

하늘의 만나

찰스 티. 러셀 (*Charles T. Russell*)

김호영 역자 delugenr@naver.com

1월 1일

시 66:8,9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은혜로써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실족하지 않도록” 보살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우리 대부분이 그분의 말씀과 그 봉사에서 계속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진실로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속아내기 위하여 주께서 대적으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을 “크게 기만” 하도록 허락하신 점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계속 굳게 서서, 진리를 감사하고, 우리를 실족에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히 고착하여야 합니다.

JANUARY 1

O bless our God, ye people, and make the voice of His praise to be heard: which holdeth our soul in life, and suffereth not our feet to be moved. Psalm 66:8,9

THANKS be to God that His grace has preserved us, "kept us from falling," through another year:--that so many of us are still of one heart and of one mind in respect to His Word and its service! When we remember that the Adversary is to be permitted to bring "strong delusions" upon the Lord's people for the very purpose of sifting out all not truly His (2 Thessalonians 2:10-12), it should surely call forth our thanks to God that the opening of another year finds us still standing fast,--appreciating the Truth, and in full accord with all the divine appointments by which He has kept us from falling.

1월 2일

고린도 전 6:19,20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새 해의 시작 무렵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분께 속해 있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봉사하며, 우리 자신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노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장 절대적이고 포괄적 의미에서 거룩함을 뜻합니다. (죄에서 분리되어 의로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에서 분리되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JANUARY 2

Ye are not your own. For ye are bought with a price: therefore glorify God in your body, and in your spirit, which are God's. 1 Corinthians 6:19,20

AT the opening of the new year, what lesson could be more important to us than this one, that we are not our own, but belong to another; that we are not therefore, to seek to please ourselves, but to please Him; nor to seek to serve self, but to serve Him; nor to seek to obey self-will, but on the contrary His will? This means holiness in the most absolute and comprehensive sense of the word (not only separation from sin to righteousness, but separation from self to the will of God in Christ).

1월 3일

데살로니가 전 5:17 “끊임없이 기도 하십시오”

기도에서 명확함과 지속성과 관련하여 우리의 타고난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서로부터 지시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고난 편애를 극복하고, “어린 아이들” 과 “사랑하는 아이들” 처럼 우리의 견해와 행동을 위로부터 오는 지시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이름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이며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 16:24)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분께 요청하는 순종적이고 충실한 자녀들을 위하여 은혜, 축복과 섭리를 증가시켜 오셨습니다.

JANUARY 3

Pray without ceasing. 1 Thessalonians 5:17

WHATEVER might be our natural inclinations with reference to definiteness and persistency in prayer, we must take our instructions from the Scriptures; and overcoming our natural predilections, we must as "little children" and as "dear children" conform our views and conduct to the instruction which is from above. Let us all, therefore, remember the words, "ask (in My name), and ye shall receive, that your joy may be full."--John 16:24. The Heavenly Father has multiplied mercies, blessings and providences in store for His obedient and faithful children who will ask for them.

1월 4일

시 27:14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간은 하느님의 모든 계획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오랫동안 지체되면서 인내의 시험이 적용될 때에 실망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하게 하시는 데에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악을 대처할 경험을 주는 시간; 세상의 대속자로서 예수의 출현을 준비하는 시간; 예수와 영광스러운 통치를 함께 할 교회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일들을 형성하고 조정하는 데에 시간이 허락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랫동안 지체 되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느님께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과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분께서는 그분의 가장 겸손한 자녀의 매우 가냘픈 요청과 대단히 작은 필요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JANUARY 4

Wait on the Lord: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thine heart: wait, I say, on the Lord. Psalm 27:14

TIME is an important element in all God's plans: we are not, therefore, to be disappointed when the test of endurance is applied while the blessings we crave tarry long. God took time to frame the world and to fit it for human habitation; time to give the world its necessary experience with evil; time to prepare for the advent of Christ as the world's Redeemer; time for the preparation of the Church to share in His glorious reign; and time must be allowed for the shaping and adjusting of the individual affairs of His people. God has not forgotten when the answers to our prayers seem to tarry long. He who heeds the sparrow's fall and numbers the very hairs of our heads is not indifferent to the faintest call or the smallest necessity of His humblest child.

1월 5일

로마 15:3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비방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비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신다면,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연민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겸손한 인내심과 함께 훌륭한 병사로서 그분의 봉사에서 고난을 참으면서 주께 대한 우리의 헌신을 증명하는 것을 우리의 특권으로 삼도록 합시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이 드러나는 것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죄에 묶여 있는 적대적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아셨으며, 세상은 대체적으로 어둠의 군왕의 지배 아래에 있으므로 비방과 조롱과 박해를 기대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참을성 있게 인내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의 고통은 전혀 염두에 두시지 않고 남들을 위한 연민과 사랑에 찬 염려를 보이는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JANUARY 5

The reproaches of them that reproached Thee fell on Me. Romans 15:3

LET us see to it that we bear the reproaches of Christ as He bore them,--with pity and prayer for the erring and depraved, if perchance God may grant them repentance; and with humble fortitude esteeming it a privilege to prove our devotion to the Lord by enduring hardness in His service as good soldiers. He was not surprised by the exhibitions of human depravity: He knew that He was in an unfriendly world bound by sin and largely under the dominion of the prince of darkness, and therefore He expected reproaches, taunts and persecutions, all of which He endured patiently while His great loving heart, almost unmindful of its own sufferings, was full of pity and loving concern for others.

1월 6일

시 90: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날을 계수함에 있어서, 비록 냉정한 정신으로 하더라도, 우울하거나 쓸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날들을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자신의 경이로운 빛으로 인도하신 분을 찬양하는” 많은 축복과 많은 특권과 많은 기회의 날로 간주하고, 순례 여행에서 남들을 도우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의 성품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더욱더 닮아 갑니다.

JANUARY 6

So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apply our hearts unto wisdom. Psalm 90:12

THE Christian, in numbering his days, does not do so with a doleful or disconsolate sentiment, although he does so with sobriety. He counts the days as they go as so many blessings, so many privileges, so many opportunities to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us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to render assistance to others in the pilgrim journey, and to develop in himself more and more of the character pleasing in the sight of God,--to become more and more a copy of God's dear Son.

1월 7일

디도 3:2 “아무도 휘방하지 말며”

중상과 험담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 살인이며, 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의 좋은 이름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병사들이 정확히 인식한다면, 이 문제가 주의 관점에서 반드시 나타날 때에 그 점을 진실로 경이로운 빛에 의해서 더 빨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 진실의 빛에서 본다면, 하느님의 관점이 반드시 새 창조물을 일깨워서 육체의 일과 악귀의 일을 극복함에 있어서 가능한 가장 큰 활동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각자는 악과 질투와 분쟁과 비뚤어짐과 험담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마음이 정결케 되고 주를 닮게 될 것입니다.

JANUARY 7

Speak evil of no man. Titus 3:2

IF once the soldiers of the cross would get the proper thought, that slander and evil speaking are assassinations of the character of another, and that defamation is robbery of another's good name, the sooner they will see this matter in its truly awful light as it must appear in the Lord's sight; and once seeing the matter from this true, divine standpoint must awaken the new creature to the greatest activity possible in the overcoming of such works of the flesh and of the devil. Each will seek to purge out the old leaven of malice and envy and strife and crookedness and evil speaking, that he may be pure in heart, a copy of the Lord.

1월 8일

데살로니가 전 5:15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성서의 표준에 비춰 볼 때, 그리스도의 택하심 받은 교회는 온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세련되며, 가장 점잔하고, 가장 관대하며, 가장 친절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가장 절대적 의미에서 이러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인 것처럼 단지 외양적 형태나 모습의 의미에서만 친절하고, 관대하거나, 등등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고, 또한, 주의 영과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과 공의의 영에 대한 감사에서 우러나온 관대함과 친절이어야 합니다.

JANUARY 8

See that none render evil for evil unto any man; but ever follow that which is good, both among yourselves, and to all men. 1 Thessalonians 5:15

ACCORDING to the Scriptural standard, the elect church of Christ should be the most polished, the most refined, the most polite, the most generous, the most kind of all the people in the world;--and should be all these in the most absolute sense; not in the mere sense of an outward form and appearance of kindness, gentleness, etc., so common in the world; but a gentleness, a kindness, proceeding from the heart, proceeding from an appreciation of the Lord's spirit and the spirit of the Truth, the spirit of love, and the spirit of justice, also.

1월 9일

고린도 전 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모든 주의 성별된 백성은 그들 자신의 지혜나 다른 사람들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의 지혜와 은혜에 따라 지금의 은혜와 진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자로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믿음의 가족 안에서의 위치로서 주께 책임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하며, 주의 대변인으로서 섬기는 그들의 기회를 인식하고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JANUARY 9

Who maketh thee to differ from another? And what hast thou that thou didst not receive? 1 Corinthians 4:7

ALL of the Lord's consecrated people should realize that they have come into the present grace and truth, not by their own wisdom nor by the wisdom of others, but through the wisdom and grace of the Lord. The same thought should be entertained by all who serve the Church of God as ministers, servants in any department, in any manner responsible to the Lord for their position in the household of faith, and their opportunities to serve as the Lord's mouthpieces should be felt and confessed. But failure to confess it implies a failure rightly to appreciate it.

1월 10일

야고보 5: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올바른 길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는 “좁은 길” --온유하고 겸손한 길--입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올해도 그 길을 걸으려면 마찬가지로의 또는 아마도 더욱 많은 노력과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지식에서 더욱 자람에 따라 자랑하고 뽐내고 완고하고 우쭐대고자 하는 유혹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희망과 사랑에서 더욱 깊어지고 주의 봉사에서 더욱 활동적이 될수록, 대적이 우리의 발전을 더욱 가로막고, 그의 사자들이 더욱 우리를 중상하고, 뒤에서 헐뜯고, 일상적으로 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JANUARY 10

Take, my brethren, the prophets, who have spoken in the name of the Lord, for an example of suffering affliction, and of patience. James 5:10

THE right path is still the "narrow path" of self-abasement and self-denial--the path of meekness and humility: and it will require as much effort and grace to walk it this year as last, or possibly more; for the more we grow in grace and knowledge, the stronger will be the temptations to be boastful, puffed up, heady, high-minded; and the higher we climb in faith and hope and love and activity in the Lord's service, the more the great Adversary will oppose our progress, and the more his emissaries will slander, backbite, and generally seek to injure us.

1월 11일

예레미야 20:9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있어서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호의와 축복과 계몽의 때까지 남아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주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요한의 사랑에 찬 기질이 그의 활력과 열정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 많은 형제라고 불리었던 것 외에도 그의 맹렬한 열정 때문에 그의 형제 보아너게--천둥의 아들--와 같이 취급되었다는 점도 명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활력에 차고, 신속함을 사랑하는 희생정신으로 충만함으로써 주의 것인 우리의 몸과 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JANUARY 11

His Word was in mine heart as a burning fire shut up in my bones, and I was weary with forbearing, and I could not stay. Jeremiah 20:9

LET us who are privileged to remain to this time of favor, blessing and enlightenment give glory to the Lord, and see to it that the loving disposition of John is manifested in us, and also his energy, his zeal; for while he is called the loving disciple we are to remember also that he was, because of his impetuous zeal, styled, with his brother, Boanerges--son of thunder. Let us be full of energy, full of sacrifices which love prompts, that we may glorify the Lord in our bodies and spirits which are His.

1월 12일

갈라디아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들을 책망함에 있어서, 매우 상냥하고, 매우 사려 깊고, 친절하게, 잘못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세한 지적보다는 암시적으로--그들이 잘못을 범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과거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의 그들의 마음 상태에 관하여 질문함으로써--하는 이 교훈을 잘 배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잘못에 따르는 벌보다는 잘못을 범한 사람을 그 길로부터 회복시키는데 더욱 관심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에 대하여 서로서로 심판하고 벌주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복수하거나 응징하거나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JANUARY 12

Brethren, if a man be overtaken in a fault,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n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thyself, lest thou also be tempted. Galatians 6:1

LET us learn well this lesson of reproofing others very gently, very considerately, kindly, by a hint rather than a direct charge and detail of the wrong-- by an inquiry respec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ir hearts rather than respecting a former condition, in which we know they have erred. We are to be less careful for the punishments that will follow wrongdoings than for the recovery of the erring one out of the error of his way. We are not to attempt to judge and punish one another for misdeeds, but rather to remember that all this is in the hands of the Lord;--we are not in any sense of the word to avenge ourselves or to give chastisement or recompense for evil.

1월 13일

요한 1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약에 우리가, 주의 뜻과 우리들의 최선의 영적 유익에 상반되게도, 믿음의 부족이나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나쁜 길에 빠졌음을 인식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발길을 돌리고 주께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통해 성별한 제단이 있으며, 그것은 모든 면에서 전형적인 동물의 피로써 성별한 아브라함의 제단보다 훨씬 월등하며, 사도는 “모든 어려운 때에 자비와 은혜를 받기 위해 담대하게[용기를 가지고--믿음에 충만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 갑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JANUARY 13

My little children,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ye sin not. And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1 John 2:1

IF we find that through lack of faith or weakness of the flesh a wrong step has been taken, contrary to the Lord's will and our best spiritual interests, no time should be lost in retracing the steps and in calling upon the Lord. We have an altar consecrated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far superior every way to that which Abraham consecrated with the blood of typical animals, and the apostle exhorts us, "Let us come boldly [courageously--full of faith]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every time of need."--Hebrews 4:16

1월 14일

고린도 전 9:26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의지를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완전히 성별--마음과 정신의 모든 힘과 재능을 완전히 바치는 것--하는 것은 타락한 기질의 연약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께 성별하고 주의 군대에 입대하는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주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나와 나의 집은 주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였을 때, 그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의지의 싸움은 모두 종식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사들은 자신의 입대 기간이 죽을 때까지이며, 전투를 중단하거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시라도 휴전하려는 어떠한 제의라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JANUARY 14

I therefore so run, not as uncertainly; so fight I, not as one that beateth the air. 1 Corinthians 9:26

IT will be found a great help to the weaknesses of the fallen nature to have understandingly made a full consecration of the will,—a full enlistment of every power and talent of mind and of body. He who takes this proper view of his consecration to the Lord and enlistment in the Lord's army, realizes that he has nothing more to give to the Lord, and hence, whatever struggle of the will he may have is all ended when he has finally decided—"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How important it is, therefore, that all the soldiers realize that the term of the enlistment is until death, and that there is no room for even considering any suggestion to withdraw from the battle and cease even for an hour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1월 15일

미가 6:8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위와 같은 것들은 매우 합리적 요구사항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대한 미래의 심판에 관해 교육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이하로 요구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러한 세 가지 특성 모두는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이해됩니다.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 가족과 우리 자신에게 공의로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그들의 육체적, 도덕적, 지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라도 그것들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JANUARY 15

What doth the Lord require of thee, but to do justly, and to love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thy God? Micah 6:8

THAT these are very reasonable requirements will be conceded by all. That God could not require less from those whom He is educating for the future judging of the world, is evident: and yet, all three of these qualities specified through the prophet, are comprehended in the one word Love. Love requires that we shall deal justly with our neighbors, with the brethren, with our families, with ourselves; that we shall seek to

cultivate our appreciation of the rights of others,--their physical rights, their moral and intellectual rights, their liberties; and that, appreciating these, we shall in no sense of the word seek to abridge or deny them.

1월 16일

로마 12:12 “기도에 항상 힘쓰며”

사랑하는 주의 친구-제자들로서 즉각적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상신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매일 그리고 매시간 아버지와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들의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매일의 활동적인 임무가 그분의 주시와 감독 아래에서 수행되고, 언제든지 영혼이 그 필요성을 인식할 때에, 우리의 깊은 처소로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함께, 우리의 마음의 짐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JANUARY 16

Instant in prayer. Romans 12:12

WHAT a blessed privilege, dear fellow-disciples of the Lord, is ours, to be instant in prayer, to pray always-- to lift up our hearts and minds to God at any time and in any place and to realize thus daily and hourly that the Father and our dear Lord Jesus continually abide with us. And then, when the active duties of the day have been performed under His eye and supervision, or at any time when the soul realizes its necessity, how precious is the privilege of entering into our closets and there, alone with God, unburdening our hearts.

1월 17일

유다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우리는 매일 매시간 의의 원칙에 대한 복종과 증가하는 사랑으로써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의 모든 경험--생활의 즐거움과 마찬가지로 시험, 어려움, 낙담 등에서도--가운데서 기뻐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우리의 결점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하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확립하신 완전한 자유와 사랑의 법에 관하여 더욱 분명히 알도록,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완전하고도 충성된 마음의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JANUARY 17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Jude 21

WE may daily and hourly keep ourselves in the Lord's love by obedience to, and a growing love for, the principles of righteousness. And we are to rejoice in every experience of life,--its trials, difficulties, sorrows, disappointments, etc., no less than in its pleasures, if by any or all of these means the Lord shall instruct us and give us clearer insight into our own deficiencies, and a still clearer insight into that perfect law of liberty and love which He has established, and to which He requires our full and loyal heart-submission.

1월 18일

로마 12: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일에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주의 합시다. 우리가 회피할 수 있거나 제쳐두어도 될 세상의 염려나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소질들을 묻어두거나,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세상의 야망 때문에 그것들을 묻어 둔다면--이것이 과학, 철학, 음악 또는 예술이나 사업이나 정치나 오락 또는 주체할 수 없는 자만이나 성욕 때문에 하느님께 바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든지 간에--불충실한 종으로서 우리는 조만간에 밖의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JANUARY 18

Not slothful in business;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Romans 12:11

LET all who would run the race successfully look well to their zeal and activity in the Lord's work. If we bury our one or many talents under a weight of worldly cares and encumbrances which might be avoided or set aside; if we bury them under worldly ambitions for either self or family--whether this be by wasting consecrated time upon science, philosophy, music or art, or upon business, politics or pleasures, or in pampering pride and appetite--then as unfaithful servants we will sooner or later go into outer darkness.

1월 19일

시 119:97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가 아무런 목적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행되지 않는 연구는 시간 낭비보다 나쁩니다....하느님의 계획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위하여 주의 백성은 모든 합당한 기회를 사용해야하며 희생하기까지 해야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은 희생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편의와 안락함을 희생해야지, 주로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안락함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명심해야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행해지는 성경연구는 주의 사랑의 영이 충만하다는 표상이라기보다는 이기심의 표상입니다.

JANUARY 19

O how love I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 Psalm 119:97

IT is a great privilege for Christians to study the Lord's Word, yet a great deal of study is done to no purpose. Study which is not put into practice is worse than a waste of time....Every reasonable opportunity should be used by the Lord's people to obtain a knowledge of the divine plan--even to the extent of sacrificing; but the child of the Lord will be particular to see that it is his own conveniences and comforts that he is sacrificing, and not chiefly the conveniences and comforts of others. The Bible study which is done merely at the expense of others is a sign of selfishness rather than a sign of a rich indwelling of the Lord's spirit of love.

1월 20일

히브리 12:7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성품은 시련 없이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식물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풍부한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빗물로 자주 물을 줍니다; 믿음을 위한 좋은 기초와 복종의 영으로서 그분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더욱 경작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성품이 개발되었으면, 훈련의 가지치기를 할 준비가 되었으며, 마찬가지로 역경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성품의 강도가 깊어지면서, 시험을 통해 더욱더 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어 결국에는 --고통을 통하여--확고하고, 성장하고, 확립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JANUARY 20

If ye endure chastening, God dealeth with you as with sons; for what son is he whom the Father chasteneth not? Hebrews 12:7

CHARACTER cannot be developed wholly without trial. It is like a plant: at first it is very tender; it needs an abundance of the sunshine of God's love; frequent watering with the showers of His grace; much cultivating through the applied knowledge of His character as a good foundation for faith and inspiration to obedience; and then when thus developed under these favorable conditions, it is ready for the pruning hand of discipline, and is also able to endure some hardness. And, little by little, as strength of character is developed, the tests applied to it serve only to develop more strength, beauty and grace, until it is finally fixed, developed, established, perfected --through suffering.

1월 21일

마태 16:24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밀접히 관련이 있지만, 둘 사이의 차이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_부인은 주를 위하여 수동적으로 복종하고 인내하는 것과 특별히 더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의 봉사에서 활동하는 것과 특별히 더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_부인에서 충실한 것은 용기와 열정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승리와 극복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기_부인은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의 승리일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주의 축복을 충분히 받기를 원한다면 남들은 전혀 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적어도 어떤 범위에서는 우리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도 있으며, 특히 우리와 동일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일 것입니다.

JANUARY 21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CROSS-BEARING is closely related to self-denial, and yet a distinction between them may be noted. Self-denial relates more particularly to passive obedience and endurance for the Lord's sake; cross-bearing has to do more especially with activities in the

Lord's service, which we find to be contrary to our natural inclinations. Faithfulness in self-denial means courage and zeal; cross-bearing means victory, overcoming. Our self-denials may be victories in our own hearts, of which others may know nothing, and of which they should know nothing, if we desire to have the fullness of the Lord's blessing. Our cross-bearing, however, may be seen to some extent at least, by those who are in close contact with us, and especially by those who are walking in the same "narrow way."

1월 22일

시 31:24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대적은 때때로 우리가 시련과 희생의 “좁은 길”을 걷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전혀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차라리 포기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담케 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떤 행로를 추구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주의 모범을 따라야 하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심사가 그분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를 알기위해 갈망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모든 행동을 하여도 우리는 계속 그분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갖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극복할 것이며,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더 나은 부활을 받는 자의 일부가 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새로운 확신을 갖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JANUARY 22

Be of good courage, and He shall strengthen your heart, all ye that hope in the Lord.
Psalm 31:24

IT would seem as though the Adversary at times attempted to discourage us by making us think that the trials and difficulties of the "narrow way" of sacrifice will be unavailing anyhow, and that we might as well give up....And what course should we pursue at such a time? We should follow the example of our Lord, and seek the Father's face, anxious to know whether or not our interests are all right with Him; anxious for some assurances that while the world may hate us, and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us falsely, we still have His approval; anxious for some fresh assurance that it will be well with us, that the Lord will grant us a part in the better resurrection to life eternal.

1월 23일

고린도 전 7:24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의무들은 때때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의무는 그의 모든 행로에서 창조주이며 주이신 분을 마음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의무는, 그가 남편이며 아버지라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는 아내 또는 어머니라면,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의 마련에서, 결혼 계약은 모든 남편과 아내의 시간에서 첫째 순위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요구는 국외자에게 정당하게 행해져야 할 어떤 의무보다도 먼저 합당하게 관철되어야 합니다.

JANUARY 23

Brethren, let every man, wherein he is called, therein abide with God. 1 Corinthians 7:24

DUTIES may at times seem to conflict, but they do not really do so. A Christian's first duty is his hearty acknowledgment of his Creator and Lord, in all his ways. His second duty, if he be a husband and father, is toward his wife and children; or if she be a wife and mother, it is toward her husband and children.... The marriage contract, by divine arrangement, comes in as a first mortgage upon every husband's time and upon every wife's time--the demands of this mortgage must be reasonably met before anything can be properly done to or for outsiders.

1월 24일

잠언 3:3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 관에 새기라.”

공의가 사랑의 계명의 첫째 특징이기는 하지만 그 요구조건들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엄격한 공의를 넘어서, 우리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비와 용서를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자비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사랑을 본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타락하고 불완전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공의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자비롭고 관대하며 친절하게 하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JANUARY 24

Let not mercy and truth forsake thee: bind them about thy neck; write them upon the table of thine heart. Proverbs 3:3

WHILE justice is the first feature of the commandment of love, it is not the end of its requirements: it requires that, going beyond strict justice, our love shall prompt us to the exercise of mercy and forgiveness. And in thus exercising mercy we are again but copying divine love....Hence, in our dealings with others who, like ourselves, are fallen and imperfect, we are to remember this feature and not only be just toward them but, additionally, to be merciful, generous, kind, even to the unthankful,--that thus we may be children of our Father in heaven.

1월 25일

마태 6: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리라.”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된 생각이 그분의 봉사와 의를 행하는 것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매일 매일, 많이 겪게 될 것이며 좁은 길을 걷고자 노력하면서 신랑의 팔에 매일 의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날의 괴로움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매일 충분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JANUARY 25

Take therefore no thought for the morrow: for the morrow shall take thought for the things of itself. Matthew 6:34

OUR Lord assures us that if the main thought of our hearts is His service and the promotion of righteousness and an attainment of the Kingdom which God has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then we need carry no anxious cares respecting the future. As His disciples we will have trials and tribulations enough, day by day, and will need daily to lean upon the Bridegroom's arm as we seek to walk the narrow way. Sufficient for

each day will be the evil of itself: and thanks be to God also, we have the promise that daily His grace shall be sufficient for us.

1월 26일

마태 6: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주의 백성에게는 때때로,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세상과 육체와 마귀로부터 심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금식이 특별히 권장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힘과 활력을 약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원기 왕성하고 충동적인 사람들을 모든 면에서 자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대다수가 때때로 금식--완전히 단식을 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을 통하여 도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거나 알려지거나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경건함의 표시로 생각되어 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해로울 것이며, 영적인 자만심이나 위선으로 인도 되어서, 우리가 자기_제어를 함에 있어서 결코 유익하지 못할 것입니다.

JANUARY 26

When ye fast, be not, as the hypocrites, of a sad countenance. Matthew

FASTING is specially commendable to the Lord's people at times when they find themselves lacking in spirituality and exposed to severe temptations from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for by impoverishing the physical force and vitality, it may assist the full-blooded and impulsive to self-control in every direction. We believe that a majority of Christians would be helped by occasional fasting--a very plain diet for a season, if not total abstinence. But fastings, to be seen and known of men or to be conjured up in our own minds as marks of piety on our part, would be injurious indeed, and lead to spiritual pride and hypocrisy, which would far outweigh their advantages to us in the way of self-restraint.

1월 27일

잠언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악한 것인 죄를 고백하고, 그것이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저항하도록 노력할 것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께서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모든 염원이나 욕망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과 특히 생각에서 이것은 그 얼마나 청결한 것입니까! 이 점을 주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유혹에 빠지는데, 왜냐하면, 겉으로는 큰 부도덕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비밀리에 죄에 해당하는 것들--그것들이 금지되지만 앎는다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염원하기 때문입니다.

JANUARY 27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Proverbs 4:23

IT is not sufficient that we acknowledge sin in its various forms to be evil, and that we resolve that we will strive against it because it is under the Lord's ban. In addition to this we are to root out of our hearts every longing, every desire for everything not thoroughly approved by the Lord. Oh, what a cleansing this would mean in the hearts and lives, and especially in the thoughts, of many who have named the name of Christ! Many who fail to note this point find themselves continually beset by temptations, because, while outwardly avoiding gross immoralities, they secretly harbor sympathies for things condemned --desiring that they might have them, if only they were not forbidden.

1월 28일

계시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충실한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옷을 세상으로부터 흠 없게 지키고 보존합니다.... “그들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흠 없이 지킵니다.” 그들은 죄가 그들을 오염시키도록 허락하거나 주로부터 분리되기를 바라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흠을 제거하기 위하여 귀중한 피를 재빨리 취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 죄를 지극히 반대하고 이 옷을 흠 없이 지키는 것에 열심을 다하므로 대적은 그들을 붙잡지 못합니다-- “사악한 자는 그들을 붙잡지 않는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뜻을 그리스도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그들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며,” 그러므로 고의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JANUARY 28

He that overcometh, the same shall be clothed in white raiment;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out of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and before His angels. Revelation 3:5

THE faithful overcomers watch and keep their garments unspotted from the world...."They have not defiled their garments," they have "kept their garments unspotted from the world." They have not been willing to permit sin to contaminate them and to separate them from the Lord, but have quickly applied for and obtained the precious blood to remove every stain. They are so heartily opposed to sin and so earnest about the keeping of this garment unspotted that the Adversary gets no hold upon them--"the wicked one catcheth them not." All this indicates a full submission of their wills to the will of Christ-- they are "dead with Him," and hence could not willingly practice sin.

1월 29일

시 111:10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이것이 창조자, 우리 존재를 만드신 분, 온 우주의 보존자이시며 주이신 분께 대하여 피조물이 취해야 할 유일한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귀는 그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하며, 온 힘을 다하여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빈틈없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사랑 및 감사를 추구하는 고상한 성품과 신속하고 현명하게 지시를 따르고 지식과 지혜가 발전하는 등의 모든 것들은 무엇보다도 주께 대한 우리의 최상의 경외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상응하고 효성스런 경외심을 키우고 발전시키려고 하십니다.

JANUARY 29

The fear [reverence]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salm 111:10

THIS is the only proper attitude of the creature toward the Creator, the Author of our being, and the Creator, Preserver and Lord of the whole universe. When He speaks, therefore, our ears should be reverently attentive to His voice, and every power alert to do His bidding. Our safety, our happiness, and that nobility of character which prompts to love and gratitude, and which promptly and wisely heeds instruction and advances in knowledge and wisdom, all depend primarily upon our supreme reverence for the Lord.

And therefore the Lord would foster and cultivate in us that becoming, filial reverence that is due to His name.

1월 30일

누가 18: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셨다.”

하느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는 더 중요한 다른 일들로 너무 바쁘시거나, 우리가 중요성이 적은 일들을 가지고 반복하여 찾아가는 것에 대해 성가시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성가시게 줄라던 결과 그녀의 요구가 응답된 어떤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점에 관하여 우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일에서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종종 그러한 것처럼,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이나 열정의 부족으로 낙담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진지함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JANUARY 30

Jesus spake a parable unto them to this end, that men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to faint. Luke 18:1

IN coming to God we need have no fear that He is too busy with other matters of greater importance, or that He is weary of our coming to Him repeatedly with things of small importance. It was to assure us against this very thing that our Lord spoke the parable of the importunate widow, who was heard and answered on account of her importunity. In so doing we evince both the earnestness of our desires and our faith that our prayers will be answered, if we faint not from lack of faith or zeal when the answer is delayed, as often it must necessarily be, since time is an important element in all God's work.

1월 31일

시 25:9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러한 성품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점과 지혜의 부족에 대한 겸손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오늘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즐거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거리낌 없이 진심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정신은 건전한 정신의 영을 위한 기초로서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누가 공의롭고 합리적이며 편견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정신에 있어서 첫째 요소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ANUARY 31

The meek will He guide in judgment; and the meek will He teach His way. Psalm 25:9

SUCH a disposition is essential to those who would receive the wisdom which cometh from above. They must have a humble appreciation of their own deficiencies and lack of wisdom, else they cannot receive freely, heartily, the wisdom which God is pleased to grant in the present time only to those who are in the attitude of heart to receive it. And it will be seen also that this humility of mind is essential as a basis for the spirit of a sound mind--for who is in a proper condition to think justly, reasonably, impartially, except first of all he have a humble disposition? Hence we must agree that humility is a primary element in the disposition or mind of Christ.

2월 1일

이사야 30:21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 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니”

만약 우리가 길의 분기점에 이르러--우리 경험상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기 상황임--왼쪽으로 가야할지 오른 쪽으로 가야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즉각 멈춰 서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즉각 주의 말씀에 따라야 하며, 그 교훈과 원칙과 까다로운 주제에 관한 설명들을 숙고함으로써 주의 뜻을 배우고자 힘쓰며, 동시에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사랑하고 복종하며 믿음 깊은 태도의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FEBRUARY 1

And thine ears shall hear a word behind thee, saying, This is the way, walk ye in it, when ye turn to the right hand, and when ye turn to the left. Isaiah 30:21

IF we have come to the forks of the road--to some crisis in our experience--and know not whether to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we should stop at once and listen to the voice. Or, in other words, we should turn at once to the Word of the Lord, and by pondering its precepts and principles, and its illustrations bearing on the perplexing

subject, seek to learn the will of the Lord, asking also the leading of His Spirit, and endeavoring to bring the mind into a loving, submissive and trustful attitude.

2월 2일

로마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과 일치하게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옛 성품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적당히 맡겨두고 그것에 저항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즉시, 우리는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며, 점점 그 물살은 빨라지고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FEBRUARY 2

For if ye live after the flesh, ye shall die. Romans 8:13

WHAT is it to live after the flesh? We answer, It is to live after, in conformity to, and in gratification of, the inclinations and cravings of the fallen human nature. And it is the easiest thing possible to do this. All we have to do is just listlessly to abandon ourselves to the current of our old nature, and cease to strive against it. As soon as we do this, we begin to float down the stream, and by and by we find the current more and more rapid and resistance more and more difficult.

2월 3일

잠언 4:20, 22 “내 아들이야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정신이 육체에 주는 영향을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실체를 조직하시면서, 일반적으로 순결하고 고상하고 경건한 생각이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체계에만 영향을 주어서 그 품위를 높이고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체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불결하고 비열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불경건한 생각(마찬가지로 행동)은 정신과 도덕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육체에 이미 침투한 질병의 씨앗을 발아 시킵니다.

FEBRUARY 3

My son, attend to My words; incline thine ear unto My sayings. For they are life unto those that find them, and health to all their flesh. Proverbs 4:20,22

FEW recognize the influence of the mind over the body. God has so organized our beings that pure, noble, holy thoughts in general have not only an elevating and ennobling effect upon the mental and moral constitution, but an invigorating influence upon the physical system. And, on the contrary, every unclean, ignoble, unchaste, unholy thought (as well as act) has a direct effect not only toward debasement of mind and morals, but toward the germination of seeds of disease already in the constitution of the fallen race.

2월 4일

계시 18: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여 바빌론으로부터 나옴으로써 “그녀의 재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의 실제 모습을 보는 즉시 도망함으로써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들이 그녀의 죄에 실제로 참여한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과 그녀의 신성모독적인 교리가 지금 비취지는 빛에 의해서 드러난 것을 보고난 뒤에도 계속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신성모독을 승인하여 그 “재앙”을 철저히 받기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바빌론의 “가라지” 반열보다 더한 재앙을 받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FEBRUARY 4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e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and that ye receive not of her plagues. Revelation 18:4

WHOEVER are worthy the name, "My people," will hear and obey the Lord's voice and come out of Babylon and "receive not of her plagues"; because their obedience in fleeing out as soon as they see Babylon's real condition will prove that they were never in real accord with her sins. Those who remain after seeing Babylon and her blasphemous doctrines in the light now shining are reckoned as endorsing the

blasphemies and deserving the "plagues" most thoroughly--as much or more than the "tare" class of Babylonians, because they have greater light

2월 5일

데살로니가 전 4:3 “하느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느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일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부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들--믿음의 가족들에 대한 봉사와 국내외의 선교활동을 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선한 일들 등등--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영감을 받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남들에게 복음을 유창하게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 선한 일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활의 지배적 원칙으로서 우리 내부에 배양된 사랑과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성령이 없다면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FEBRUARY 5

This is the will of God [concerning you], even your sanctification. 1 Thessalonians 4:3

COMING to the Scriptures to ascertain God's will, we find that the great work which God asks of us is not work for others, but work in ourselves, subduing, conquering, ruling self. Everything else, therefore-- our service for the household of faith, and our doing good unto all men, by home and foreign missions, etc. --is subservient to this most important work within. For, as the apostle by inspiration declares, though we should preach the gospel eloquently to others, and though we should give all our goods to feed the poor, or become martyrs for a good cause, without love, the Spirit of Christ and the Father, developed in us as the ruling principle of life, we would be nothing, from the divine standpoint.

2월 6일

시편 75:6,7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열망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지위와 명예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근면한 가운데에 그분의 섭리에 만족하며 안식하도록 하십니다; 부주의 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며, 무관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를 열렬하고 성실히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무시당하거나 잊혀지더라도 만족하며, “단지 서서 기다리는 그들도 섬긴다”는 것과, 주께서 자신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면밀히 선택하신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FEBRUARY 6

Promotion cometh neither from the east, nor from the west, nor from the south. But God is the judge: He putteth down one, and setteth up another. Psalm 75:6,7

WE may have desires and aspirations for usefulness which will never be gratified. The Lord may see that we could not bear the exaltation and honor which we seek. He knows far better than we do what is for our good, and so He would have us rest contented in His providence, not idle, but diligent; not careless, but watchful; not indifferent, but full of intense, earnest longing to do the will of God; yet patient under restraint, and content to be neglected and forgotten, remembering that "they also serve who only stand and wait," and that the Lord in His own well-chosen hour can lead us forth to fulfil His purposes of grace.

2월 7일

로마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러한 새 계약의 법인 사랑--자비, 친절, 관용, 선함--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도 하느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의 증거나 증명이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자비의 사랑이 없거나, 야만적인 피조물에 대하여 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만심과 헛된 영광의 힘에 의해, 그들의 희생을 가로막고, 산산이 흩어지고, 이기심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FEBRUARY 7

Love worketh no ill to his neighbor: therefore love is the fulfilling of the law. Romans 13:10

HE who finds his heart not in harmony with this law of the New Covenant, love--mercy, kindness, gentleness, goodness--lacks the evidence or proof that he is in any sense of the word accepted as a son of God, and a joint-heir with Christ. If we have not love in our hearts for the brethren, and love of gentleness and benevolence toward all men, and even toward the brute creation, we have not the spirit which will carry us through in making the sacrifices necessary under present conditions. It will only be a question of time when the power of pride or vain-glory, holding them in the way of sacrifice, will snap asunder, and selfishness take full control.

2월 8일

마태 14:31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러한 믿음의 결핍을 극복하고,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옛날의 사도들처럼 우리는 “주여, 우리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이 기도와 일치하게 행동하고, 각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a)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새롭게 함으로써,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에 매우 친숙해지도록하며, (b)주와 계약을 맺은 것과 이러한 약속들이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마음과 입술로써 그것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감사의 기도로 주 앞에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과 말로서 거룩한 것들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FEBRUARY 8

O thou of little faith, wherefore didst thou doubt? Matthew 14:31

WHAT must be done to overcome this lack of faith, and to have an increase of faith? We answer that, like the apostles of old, we should pray, "Lord, increase our faith." And then, acting in harmony with this prayer, each should cultivate faith in his own heart: (a) By refreshing his memory continually with the divine promises, becoming very familiar with these in the Father's Word, (b) He should seek more and more to remember that, having made his covenant with the Lord, these promises are his, and in his heart and with his lips he should claim them as his before the Lord in prayer with thanksgiving. He should claim them in his own thoughts, and in his conferences on holy things with the brethren.

2월 9일

시 116:7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 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생각하는 습관은 실제로 그의 영적 진보나 퇴보와 많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그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지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고 습관은 주의 깊게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습관”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한가할 때에 정신이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통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수행할 때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당면한 일에 우리의 정신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단지 기계적으로 한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 원칙은, 성품으로 잘 확립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과 염려에서의 긴장의 끈이 잠깐 동안 풀어질 때에는, 확립된 사고 습관은, 나침반이 북극성을 가리키듯이, 즉각 하느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FEBRUARY 9

Return unto thy rest, O my soul; for the Lord hath dealt bountifully with thee. Psalm 116:7

THE Christian's habit of thought has much indeed to do with his spiritual progress or retrogression, as it is also an index of his spiritual state; and good habits of thought need to be carefully cultivated. By "habit of thought" we mean that normal condition to which the mind habitually returns in the moments of mental leisure. While engaged in the active duties of life we must of necessity bend our mental energies to the work in hand, for if we do anything merely mechanically and without concentrating thought upon it we cannot do it well; yet even here Christian principle, well established in the character, will unconsciously guide. But when the strain of labor and care are lifted for a time, the established habit of thought, like the needle to the pole, should quickly return to its rest in God.

2월 10일

디모데 전 4:12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방할 가치가 있는 본--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기 위해 성실하고 충실히 노력하며, 그분의 봉사에서 열정을 나타내는 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도덕적 영광과 아름다운 경건함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본은 현 생명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본은 단지 우리 주이신 그리스도에게서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의미에서, 나를 따르시오 또는 우리를 따르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의 추종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전 11:1) 그 사도는 완전함을 얻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 위대한 모범이었지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궁극적 완전함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그의 열정과 강렬한 성실함을 본 받아야 합니다.

FEBRUARY 10

Be thou an example of the believers, in word, in conversation, in charity, in spirit, in faith, in purity. 1 Timothy 4:12

EVERY Christian should strive to be a pattern worthy of imitation--a pattern of earnest, faithful endeavor to copy Christ in his daily life, and of active zeal in His service. Patterns of perfection, of the ultimate moral glory and beauty of holiness, we cannot expect to be in the present life. Such a pattern we have only in Christ our Lord. In no such sense did Paul ever say, Follow me, or Follow us; but he did say, "Be ye followers of me, even as I also am of Christ." (1 Corinthians 11:1) The apostle was a grand example of earnest endeavor to attain perfection, but not of the ultimate perfection which was in Christ only; and it is his zeal and intense earnestness in striving to copy Christ and to accomplish His will that we should imitate.

2월 11일

마태 5:11, 12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반대와 박해는 하느님의 봉사에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이며, 그것들은 이치적이며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한 경고와 함께, 고의적 반대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추구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구원의 소식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 당하신 반대와 그분이 그것에 대하여 행하신 태도와 관련하여, 유사하게 시련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값진 교훈들이 있습니다.

FEBRUARY 11

Blessed are ye when men shall revile you, and persecute you, and shall say all manner of evil against you falsely, for My sake. Rejoice, and be exceeding glad: for great is your reward in heaven: for so persecuted they the prophets which were before you.
Matthew 5:11,12

OPPOSITION and persecution are the inevitable concomitants of activity in the service of God, and they should be met with reason and candor; and when these fail of their purpose, then, with solemn warnings of the dangers of such a course, the wilful opposer should be left to pursue his own course while we turn to others with the message of salvation. In the opposition which our Lord incurred and the manner in which He met it, there are valuable lessons for all who are similarly tried.

2월 12일

야고보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의 은혜를 실행하지 않고는 조금의 진보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은혜도 이것보다 더 그리스도인 성품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없으며, 세상의 양심의 지지를 얻을 수 없으며, 진리로써 영감을 주는 하느님의 모든 은혜를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완전함과 약함의 조류를 저항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오래-참는 겸손함이며, 하느님과 닮은 성품을 다시 갖기 위해 각고하며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하기를 천천히 하고 자비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와 의의 길을 재빨리 인식하고 신속히 그길로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염두에 두고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과 약점에 대하여 동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FEBRUARY 12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that ye may be perfect and entire, wanting nothing.
James 1:4

NOT a step of progress can be gained without the exercise of this grace of patience; and not one of the graces more beautifully adorns the Christian character, or wins the approval of the world's conscience, or glorifies the God of all grace whose truth inspires it. It is long-suffering meekness earnestly striving to stem the tide of human imperfection and weakness, and endeavoring with painstaking care to regain the divine likeness; it is slow to wrath and plenteous in mercy; it is quick to perceive the paths of

truth and righteousness, and prompt to walk in them; it is mindful of its own imperfections and sympathetic with the imperfections and shortcomings of others.

2월 13일

고린도 전 13:5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에 관한 이러한 주의 명령을 무시하면, 아무리 그가 다른 것들에 관하여는 “사려 깊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을 마음으로 잉태하고 있다면, 거의 하느님을 의심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 맛과 쓴 맛의 영은 사랑의 영인 주의 영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가 승리합니다. 나쁜 영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새 창조물을 부패시키고 그를 “버림 받게” 합니다. 반대로 만약 새 창조물이 승리하면, “정복자”로서, 이와 같은 행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악한 생각들이 정복된다면, 현재의 어려움들과 괴롭히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반 이상 승리한 것입니다.

FEBRUARY 13

Love thinketh no evil. 1 Corinthians 13:5

WHOEVER neglects the Lord's commands along this line of "evil surmisings" weaves a web for his own ensnarement, however "circumspectly" he may walk as respects other matters; for a heart impregnated with doubt and suspicion toward fellow creatures is more than half prepared to doubt God: the spirit of sourness and bitterness is at war with the spirit of the Lord, the spirit of love. Either the one or the other will conquer. The wrong spirit must be gotten rid of, or it will defile the new creature and make of him a "castaway." On the contrary, if the new nature conquer, as an "overcomer," it will be along this line: if evil surmisings are overcome, half the battle against present difficulties and besetments is won.

2월 14일

마태 12:37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께 간주됩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반항적이거나, 불충하거나, 변덕스럽거나, 경박하거나, 불친절하거나, 감사하지 않거나, 불경건하거나, 불순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그에따라 마음이 판단되어 집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우리가 말과 행동에서 항상 완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행동은 물론 말에서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로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은 부단히 경계하고 충실히 노력함으로써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FEBRUARY 14

By thy words thou shalt be justified, and by thy words thou shalt be condemned.
Matthew 12:37

ALL our words are taken by the Lord as an index of our hearts. If our words are rebellious, or disloyal, or frivolous, or flippant, or unkind, unthankful, unholy or impure, the heart is judged accordingly, on the principle that,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eth."... That as imperfect beings we may always be perfect in word and deed is not possible. Despite our best endeavors we will sometimes err in word as well as in deed, yet the perfect mastery of our words and ways is the thing to be sought by vigilant and faithful effort.

2월 15일

요한 1서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시험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우리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원하고 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부활된 새 몸이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완전해 지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우리의 정신의 영이 밀접히 주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의 친교를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FEBRUARY 15

Whoso keepeth His Word, in him verily is the love of God perfected. 1 John 2:5

THE test is obedience. In proportion as we keep the Lord's Word, in like proportion the love of God is perfected in us; for if we have received the mind of Christ, the Holy Spirit, the Spirit of God, the effect will be to cause us to both will and do His good pleasure--to the extent of our ability. And this ability should be continually on the

increase year by year. And altho we may not hope to be perfected until we shall be "changed" and be granted our new resurrection bodies, nevertheless all the while we may keep so closely in touch with the Lord in the spirit of our minds that we may have continual fellowship with Him.

2월 16일

고린도 후 6:8,3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하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무를 수행하고 분명히 주의 축복과 호의가 충분할 정도로 우리와 우리의 일들에 베풀어 질 때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고, 역경이 닥치고, 어두움의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 동안 우리가 우리의 동료들을 판단하는 죄를 범한 것처럼 외견상으로 보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분명히 버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홀로 빛 가운데서 걷는 것보다는, 어둠 속에서 하느님과 함께 걸으리라” 하고 노래하더라도,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의 손을 잡고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발전시키는 고된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허한 자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FEBRUARY 16

Through honor and dishonor, through evil report and good report: as deceivers, and yet true; ...giving no offence in anything, that the ministry be not blamed. 2 Corinthians 6:8,3

WHILE in the discharge of duty to the best of our ability and when apparently we have the Lord's blessing and favor upon us and our affairs in a most marked degree, suddenly trouble may arise, adversity come, the powers of darkness seem to triumph, and for a moment we may be apparently culprits in the judgment of our fellowmen, and apparently forsaken by divine providence. Such experiences, doubtless, are needful to us; for though we may sing:-- "I would rather walk in the dark with God, Than go alone in the light," yet this might be but an empty boast unless we were put through the trying experiences which would develop such faith, such trust, as would hold to the Lord's hand, and trust divine providence in the darkest hour.

2월 17일

마태 11:29, 30 “나의 멍에를 메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를 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그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는 짐이 무거울수록, 축복과 보상이 점점 더 클 것입니다; 현재의 경험의 혹독할수록, 영광은 더욱 밝아지고, 그들의 성품도 더욱 밝아지며, 그들이 하늘 왕국을 위하여 적합하고 연마되었다는 확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짐은 가벼운데, 왜냐하면 우리의 멍에는 평가되어지고, 아주 쉬우며,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메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가볍습니다.

FEBRUARY 17

Take My yoke upon you,...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Matthew 11:29,30

THOSE who wear this yoke have the assurances of the divine Word that all things are working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the heavier the burden that may be attached, the greater will be the blessing and the reward by and by; the more severe the experiences during the present time, the brighter shall be the glory, and the brighter shall be their character, and the more sure shall they be of being fitted and polished for the heavenly Kingdom. From this standpoint every burden is light, because our yoke is appreciated, and is so easy, so reasonable: and additionally it is so light because the Lord is with us in this yoke.

2월 18일

신명기 1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왕국은 하느님의 은혜에 따라 마음으로 주 예수와 같이 되고자 하며, 모든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오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 완전히 복종하는 이러한 것 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왕국에 합당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것도 하느님께 완전한 자기_복종과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되어진 적이 없는 모든 하늘의 것들을, 하느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FEBRUARY 18

The Lord your God proveth you, to know whether y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Deuteronomy 13:3

THE Kingdom is only intended for those who by God's grace shall at heart become like to the Lord Jesus, in that they will love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with all their souls, and be able to say, "Not my will, but Thy will, O Lord, be done." No other condition than this of full submission to the Lord can make us acceptable for the Kingdom; for no other condition represents full self-submission and full love to God. And let us not forget that all the heavenly things which "eye hath not seen nor ear heard, neither have entered into the heart of man," God hath reserved for them that love Him supremely.

2월 19일

디도 1:15, 16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마음과 정신을 순결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매우 양순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밀접히 따르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로지, 엄격히 그리고 자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사랑의 법의 원칙에 따라 우리 자신을 심판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량과 욕망을 추구하여 제일 먼저 달려가고자 하네; 방황하는 내 의지를 붙잡고, 타오르는 불을 끄고자 하네.”

FEBRUARY 19

Un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unto them that are defiled and unfaithful nothing is pure; but both their mind and conscience are defiled: they profess to have known God, but by their works they renounce Him, being abominable and disobedient, and as to every good work worthless. Titus 1:15,16 (Diaglott)

WHAT a terrible condition this is, and how careful all the Lord's people should be, not only to have pure hearts, pure minds, but also to keep their consciences very tender, in close accord with the Word of the Lord. This condition can only be maintained by

judging ourselves, and that strictly and frequently, by the standard which God has given us, His law of love. "I want the first approach to feel Of pride or fond desire; To catch the wandering of my will, And quench the kindling fire."

2월 20일

야고보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는 마음의 지표이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갈 먹이지 않은 혀는 이기적이며, 질투하며, 통렬하며, 자랑하며, 중상하며,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차서 흘러넘치는 사람들은 성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으며, 통탄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부족합니다--그러므로, 그동안에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더라도 헛된 것이며, 그 마음은 구원받지 못하며, 구원받을 여건이 되지도 못합니다.... “훌륭한 의사” 껴서는 중독된 영혼을 해독하는 약을 처방하셨으며, 지시에 따라 잘 복용하면, 쓰라린 마음이 상쾌하게 될 것입니다.

FEBRUARY 20

If any man among you seem to be religious, and bridled not his tongue,...this man's religion is vain. James 1:26

BECAUSE the tongue is the index of the heart, because "out of the fullness of the heart the mouth speaketh," therefore the unbridled tongue, speaking selfishly, enviously, bitterly, boastfully, slanderously, proves that the heart from whose fullness these overflow is unsanctified, unholy, grievously lacking of the spirit of Christ--hence, whatever religion it may have attained is thus far vain, as that heart is not saved, nor in a salvable condition....The Good Physician has pointed out antidotes for soul-poisoning--medicines which, if properly taken according to directions, will sweeten the bitter heart.

2월 21일

시 31:3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경험을 주신 후에, 그것들의 몇몇은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지시의 진행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며, 주의 섭리들이

지시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도함으로써-- 그동안에 좋았거나 또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았던 상태를 단절하는 결과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영적 이스라엘은 중얼거리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며, 선택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안됩니다; 오히려 주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하느님의 섭리가 인도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그가 이전에 있어 왔던 상태보다 더 황폐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는 의심 없이 주의 인도를 믿음과 신뢰의 노래와 함께 따라야 합니다.

FEBRUARY 21

Thou art my rock and my fortress; therefore for Thy name's sake, lead me, and guide me. Psalm 31:3

AFTER the Lord has given us certain lessons and experiences, some of which come to us under quiet and restful conditions, the order of procedure may be changed, and the indication of the Lord's providences may lead to some breaking up of conditions which had been both favorable and unfavorable in some respects --leading into new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It is not for the true spiritual Israelite to murmur or complain, or even to express a choice; but to look to the Lord for guidance. If he can discern the leadings of divine providence, even though it be in a wilderness condition more arid undesirable than that in which he has previously been, he is to follow the Lord's leadings unquestioningly, and with songs of faith and confidence.

2월 22일

히브리 13:5 “여러분의 생활방식에서 돈을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이기적인 기도는 너무 값 비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를 얻고 진리와 그 봉사를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그 이상의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직전에서 회복하여 받았지만, 그 후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음 깊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받아들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모든 것을 감사와 함께 하느님의 선물로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간구는--오래 참음과 마음의 만족을 포함하여--영적인 선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FEBRUARY 22

Let your conversation be without covetousness; and be content with such things as ye have. Hebrews 13:5

SELFISH prayers are too expensive. Some have gained wealth and lost the truth and its service; some have gained health, only to find that with it they gained other trials no less severe: some have had their dear ones restored to them from the very jaws of death, only to wish afterward that God had not answered their prayers--or, more correctly, to wish that they had accepted the Lord's wisdom and providences trustfully, contentedly, uncomplainingly....Spiritual Israel should use wisely such things as are within their reach--accepting all as God's gifts with thanksgiving; but their petitions should be for spiritual gifts --including patient endurance and heart contentment.

2월 23일

시 32:8 “내가 너의 갈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영적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의 하나는 생활의 모든 일들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세상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그에 관하여 주의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고 있으며 다른 경험들이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약속들을 상속하기 전에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위한 교훈은 즉각적인 것이며 투덜거리지 말고--즐거이--주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주어진 교훈들--믿음의 모든 교훈에 더하여 주의 능력과 선하심과 충성하심에 대한 신뢰--을 배운 사람들에게만 기대되는 것입니다.

FEBRUARY 23

I will instruct thee and teach thee in the way which thou shalt go: I will guide thee with Mine eye. Psalm 32:8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for the spiritual Israelite to learn is to look to the Lord for leading in all of life's affairs--never to attempt any undertaking either temporal or spiritual, without seeking to note the will of the Lord concerning the same.... We are marching toward Canaan and know that other experiences are due us and must be undergone ere we can inherit the promises. The lesson for us is prompt and thorough obedience to the Lord's leadings without murmurings--with joyfulness;

and this can only be expected on the part of those who have learned the lessons previously given them, and above all the lessons of faith,--confidence in the Lord's power and goodness and faithfulness.

2월 24일

로마 8: 3,4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고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한 확신은 얼마나 위로와 위안이 됩니까! 이것들은 실로 놀랄만한 생명의 말씀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줍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육체 대신에 완전한 마음의 의도를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표준--완전의 표준--에 달하기 위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지만, 우리의 멸성인 육체에 관한 한, 우리는 성령의 요구조건에 달할 정도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성령에 따라 걸을 수 있으며, 우리의 의도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도의 완전함--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FEBRUARY 24

For what the law could not do, in that it was weak through the flesh, God, sending His own Son in the likeness of sinful flesh, and for sin, condemned sin in the flesh: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Romans 8:3,4

WHAT comfort and consolation are in these assurances! These are wonderful words of life, indeed! They inspire us with hope. If God will accept perfect heart-intentions, as instead of the absolute perfection of the flesh--then indeed we have hope of attaining to the standard which He has marked for us--the standard of perfection....We can walk after the Spirit, though, so far as our mortal bodies are concerned, we cannot walk up to the Spirit's requirements. Our minds can walk up to the Spirit, our intentions can be perfect; and this is what our Heavenly Father seeks in us, perfection of intention.

2월 25일

마태 4: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음식과 의복 등--의 풍부함에 달려 있지 않고, 충분하고 고상하고 높은 의미에서,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권고와 모든 격려와 모든 약속이, 하느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할 왕국의 공동상속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초대하시는 사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주 예수의 제자이며 학생으로서, 이 성구의 말씀이 제시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합시다.

FEBRUARY 25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God. Matthew 4:4

WE are to learn the lesson that a man's life consists not in the abundance of things which he possesseth-- food and raiment--but that his life, in the fullest, grandest, highest sense, is dependent upon his complete submission to the divine will--his careful attention to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God...--every admonition, every encouragement, every promise, is necessary to the development of those whom God is now calling to eternal life as joint-heirs with His Son in the Kingdom. Let us then, more and more, as the disciples, pupils, of the Lord Jesus, keep in memory and act upon the suggestion of the words of this text.

2월 26일

빌립보 4: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으며, 주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기뻐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반드시 떠들썩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반드시 그 반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평온함, 행복, 평화, 영혼의 즐거움을 내포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시끄러운 표현이 필수적인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주와 아주 가까이 살며, 그분과 항상 일체감을 갖고, 그분의 보호와 염려가 그들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며,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며, 모든 것들이 새 창조물로서의 그들의 복지를 위하여 협력할 것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FEBRUARY 26

Rejoice in the Lord alway: and again I say, Rejoice. Philippians 4:4

WE cannot have too many rejoicing Christians, nor can they rejoice too much, if they rejoice in the Lord. This rejoicing is not necessarily boisterous, nor of necessity the reverse. It implies serenity, happiness, peace, pleasure of soul, however, and does not mean that noisy demonstration is essential, as some seem mistakenly to think....The only ones who can rejoice alway are those who are living very near to the Lord, and who can feel always their oneness with Him, and that His protection and care are over them, and that His promise is sure, that all things shall work together for their highest welfare, as New Creatures.

2월 27일

빌립보 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합리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너무 혹독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비와 관용은 기름부음 받은 몸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한 한 충분히, 수행함에 있어서는 충성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공의의 요구조건에 관하여는 자비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인데, 하느님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FEBRUARY 27

Let your moderation be known unto all men. Philippians 4:5

THE Greek word here rendered "moderation" seems to carry with it the thought of reasonableness, and of not exacting our rights too rigorously. Mercy and leniency are certainly qualities required of all who would be members of the body of the Anointed. Faithfulness in the performance, as far as possible, of all that justice would require of us, and mercifulness in respect to all our requirements of justice from others should be our rule: so shall we be the children of 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for He is kind and merciful to the unthankful.

2월 28일

빌립보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느님께 아뢰라.”

왜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간청하거나 그분의 약속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 않는가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가 그분의 호의를 받고 그로인해 유익을 얻으려면 먼저 올바른 마음 상태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입은 하느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리 감사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마도 감사 할 명분의 반도 식별하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알게 됩니다.

FEBRUARY 28

Be careful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unto God. Philippians 4:6

THE question may arise, Why will not God give us the things which He sees us to need without our making petition to Him and claiming His promises? Undoubtedly because we need previously to come into the proper attitude of heart to receive His favors and to be advantaged by them. Even as it is, we may be sure that we do not sufficiently appreciate the divine care bestowed upon us hitherto and now. Even in the attitude of prayer and thanksgiving we probably do not discern one-half of our causes for gratitude, as we shall see them by and by, when we shall know even as we are known.

3월 1일

빌립보 4:7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평화인데, 그 평화는 하느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그분의 자녀들로서 우리를 그분의 오른 손으로 기꺼이 붙잡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인식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이 평화가, 보초와 같이, 모든 적군이나 두려운 생각과 공포를 대항하여 계속해서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지켜서 마음으로 하느님과의 평화, 교분, 화목을 갖게 합니다--그리고 그것은 하느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관련하여 그를 지도하고 확신시켜줌으로써, 그의 추리하는 능력인, 정신도 보호해 줍니다.

MARCH 1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all understanding, shall keep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Philippians 4:7

IT is not our own peace that is here referred to. It is the peace of God--the peace which comes to us from a realization of God's power and goodness and willingness to hold us by His right hand as His children. The thought is that this peace stands guard continually, as a sentinel, to challenge every hostile or worrying thought or fear. It keeps the Christian's mind so that he at heart has peace with the Lord, fellowship, communion--and it guards his mind also, his reasoning faculties, instructing him and assuring him respecting the divine power and wisdom and love.

3월 2일

빌립보 4:8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과장을 동정하는 사람은 많은 적든 간에 자신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과장 등등을 피하면 그런 만큼 자신의 정신과 성품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물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더욱 시험하고, 그것들이 어떤 범위에서 영예롭고 고상한지 분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주께서 우리 성품의 비천한 면을 덮어주셨고, 자기 자신의 공적으로써 끝까지 그것들을 덮어주실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동정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과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참다운 고상함과 명예의 가장 높은 표준을 갈망하여야 합니다.

MARCH 2

Whatsoever things are true, whatsoever things are honest,...think on these things. Philippians 4:8

WHOEVER sympathizes with falsehood or exaggeration is more or less defiling himself. Whoever cleanses his thoughts, and avoids exaggeration, etc., is in that degree purifying his mind and his entire character. Nor is it sufficient that we are sure of the truth of matters. We are to test them further, and discern to what extent they are honorable, noble; for, although the Lord has covered the ignoble features of our characters, and proposes to cover them to the end with His own merit, nevertheless we

cannot be in sympathy with our fallen condition, but on the contrary must desire true nobility and the highest standards of honor in our hearts, in our thoughts, in all our dealings with our God and with our fellows.

3월 3일

빌립보 4:8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정신이 불의로 향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며, 이 공의의 시험을 우리의 모든 언행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다른 관점에서--이성이 허락하는 한, 자비, 용서, 연민, 도움의 관점에서--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는 모든 생각과 완성시킨 모든 계획에 관하여는 철저히 비판을 가함으로써, 공의의 일들이 어떤 언어적 의미에서라도 우리 마음의 승인을 받아 침해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MARCH 3

Whatsoever things are just,...think on these things. Philippians 4:8

WE are not to allow our minds to run along lines that would be unjust, and we are to learn to apply this test of justice to every thought and word and act of ours, while learning at the same time to view the conduct of others from a different standpoint--so far as reason will permit, from the standpoint of mercy, forgiveness, pity, helpfulness. But we cannot be too careful how we criticize every thought we entertain, every plan we mature, that the lines of justice shall in no sense of the word be infringed by us with our hearts' approval.

3월 4일

빌립보 4:8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만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는 불결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정결한 것을 사랑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기를 바랄 것이며, 이것은 오직 정결한 것을 계속하여 생각하고 불결한 것에 대한 생각을 회피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최상으로 정결한 것들을 생각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정신적 시야를 가능한 한 높이 들어야 하며, 가능한 한 가장 가까이서 봄으로써,

하느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성품의 사랑을 분별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는 추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사랑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MARCH 4

Whatsoever things are pure, lovely, and of good report,...think on these things.
Philippians 4:8

WE are to love and cultivate that which is pure to such an extent that which is impure will become painful to us, distressing, and we will desire to drop it from memory, and this will only be accomplished by continually thinking upon those things that are pure, and avoiding the giving of thought to the things that are impure. We are to recognize true loveliness, and to esteem it. When we would think on the purest of things we must of necessity lift our mental vision to as high a point as possible, and, as nearly as we may be able, discern the loveliness of the perfect character of our God and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proportionately the loveliness manifested in one or another of the followers of Jesus, who walk closely in His footsteps.

3월 5일

빌립보 4:8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 무엇이든지 칭찬할만한 것,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어떤 덕이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어떤 정도라도 칭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어떤 사람의 고상한 언행이나 감상--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그 결과로 우리의 정신과 기질이 그러한 이상으로 배양되어 우리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신이 새롭게 되고, 우리 주이시며 소유자이신 분의 영광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주와 함께 계속 연합하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주의 모습을 닮아 영원히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MARCH 5

If there be any virtue, and if there be any praise, think on these things. Philippians 4:8

THINGS of any virtue or value, things in any degree praiseworthy--the noble words or noble deeds or noble sentiments of anybody--we may safely meditate upon, and as a consequence find ourselves growing toward those ideals upon which our minds, our new

natures, thus feed. We will become more and mor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our minds, and approach nearer and nearer to the glorious likeness of our Lord and Master, being changed from glory to glory, inch by inch,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during the present life; and our thoughts being in this attitude and our union with the Lord maintained, we shall have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which will perfect us forever in the Lord's image and likeness.

3월 6일

빌립보 4:11, 12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만약 우리가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겪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미래의 직책을 위해 우리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번영과 역경의 높고 깊음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하였던 것처럼,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워서, 세상의 좋은 것들로 풍부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성별 서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시다; 그리고 또한 비천에 처하는 법도 배워서, 주의 지혜와 섭리가 가장 좋다고 보시는 것으로 주시는 것 이상의 어떤 것도 바라지 말고 만족하도록 합시다.

MARCH 6

I have learned, in whatsoever state I am, therewith to be content. I know both how to be abased, and I know how to abound. Philippians 4:11,12

IF we find our experiences in life very checkered we may conclude that the Lord sees that we need both the heights and depths of prosperity and adversity to properly instruct us and qualify us for the position He designs for us in the future. Let us, then, as the apostle did, learn how to abound, not allowing the abundance of earthly good things to swerve us from our consecration vows; and learn also how to be in want (need) and yet not to want anything beyond what the Lord's wisdom and providence see best to give--to be content.

3월 7일

요한1서 4:12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은--나의 지식, 명성, 웅변술이 아니라--그분과 그분의 형제들, 그분의 대의, 일반적 세상, 더욱이 적들에 대한 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첫째로 두고, 그것을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가고 주께 받아들여지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누구든지 좋은 기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영을 나타내는 것보다 우리를 암흑에서 하느님의 경이로운 빛으로 불러주신 분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MARCH 7

If we love one another, God dwelleth in us, and His love is perfected in us. 1 John 4:12

WHETHER I am something or nothing in God's estimation is to be measured by my love for Him, for His brethren, for His cause, for the world in general, and even for my enemies,--rather than by my knowledge or fame or oratory.... In the measurement of character, therefore, we are to put love first, and to consider it the chief test of our nearness and acceptance to the Lord.... Those begotten of the Holy Spirit should all be good tempered. In no way can we better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us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than by the exhibition of the spirit of love in the daily affairs of life.

3월 8일

고린도 전 12:18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중에 누구도 다른 지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지체의 일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머리의 인도 아래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지체는, 그리고 그분께 봉사하기를 바라는 모든 지체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상의 때가 왔을 때에, 바울과 아폴로의 유익함의 많은 부분이, 주의 일들에서 자신들보다 더 유능한 형제들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은 아퀼라와 프리스킬라와 같은 겸손한 어떤 사람들의 공으로 돌아갈지 누가 알겠습니까?

MARCH 8

God hath set the members every one of them in the body, as it hath pleased Him. 1 Corinthians 12:18

NO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can say that he has no need for another member, and no member may say that there is nothing whatever that he can do in the service of the body. Under the guidance of our glorious Head each member who is filled with His Spirit, and desirous of serving Him, may do so. When the time for rewards shall have come, who knows how much of the usefulness of Paul and Apollos may be accredited to some of the humble ones, such as Aquila and Priscilla, who in various ways ministered to and encouraged and supported their abler brethren in the Lord's work.

3월 9일

히브리 6:10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의 자녀는 누구도 현재 추수 때의 날들과 함께, 그들의 충성된 깃발을 스스로 들기 위하여 매일 노력하지 않고, 봉사와 협력을 위한 황금의 기회들을 그냥 보내 버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분에 대한 찬양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야하며, 주께서 그분의 섭리로 공개 봉사를 위해 더 유리한 위치에 두신 사람들을 도우고 그들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MARCH 9

God is not unrighteous to forget your work and labor of love, which ye have shewed toward His name, in that ye have ministered to the saints, and do minister. Hebrews 6:10

NO child of the Lord should be content to let the days of the present harvest time go by with their golden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co-operation without seeking each day to lift the royal banner himself, and to publicly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him out of darkness into light, or without assisting and co-operating with others whom the Lord in His providence has placed in more advantageous positions for public service.

3월 10일

히브리 3: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만약 영적 무감각 상태가 약간이라도 우리에게 스며들고, 슬그머니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그 결과로 진리가 우리를 고무하는 힘을 잃어 가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첫째 의무는 우리 자신을 기도로 행하게 하고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진리의 성결케 하는 힘이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굳건하게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히브리 3:14

MARCH 10

Exhort one another daily, while it is called Today; lest any of you be hardened through the deceitfulness of sin. Hebrews 3:13

IF...we realize that a spiritual lethargy has to any extent been creeping over us, imperceptibly benumbing our spiritual senses, so that the truth is losing its inspiring power upon us, our first duty is to betake ourselves to prayer and to communion with God and His Word, that its sanctifying power may be realized. "For we are made partakers of Christ, if we hold the beginning of our confidence steadfast unto the end." Hebrews 3:14

3월 11일

히브리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높은 곳의 부르심의 상을 분별하고, 목표를 향하여 매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은 “정신의 허리띠를 졸라 매십시오” ;... 목표를 노력을 강화하십시오; 결심을 새롭게 하십시오; 근면을 배가하십시오; 불필요한 세상의 염려를 내려 놓으십시오; 열정을 증가시키십시오; 그리고, 시도 바울이 강권한 것처럼, 당신 앞에 있는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하십시오. 단지 허공을 치는 사람과 같이 경주하지 말고, 보이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같이 하며, 필사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결심하는 사람처럼 경주하십시오.

MARCH 11

Wherefore seeing we also are compassed about with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lay aside every weight, and the sin which doth so easily beset us, and let us run with patie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Hebrews 12:1

YOU that discern the prize of your high calling, and who are endeavoring to press along the line toward the mark,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strengthen and fortify your purposes and efforts; renew your determination; redouble your diligence; cast aside the weights of unnecessary worldly cares; increase your zeal; and, as the Apostle Paul also urges, run with patience the race set before you. Run, not like one who is merely beating the air, but like one who has a purpose in view, and who, in desperate earnest, is determined to make his calling and election sure.

3월 12일

디모테 전 1:5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선한 사랑이거늘”

그러므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의 궁극적인 의미는 사랑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그것은 하느님을 닮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주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 안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주와 주의 사랑의 법과 완전히 일치하며, 대적과 그의 이기심의 법을 철저히 미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RCH 12

The end of the commandment is love from a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and an undissembled faith. 1 Timothy 1:5 (Diaglott)

WE are therefore to have clearly before our minds the fact that the ultimate object of all the divine dealings for us and with us, and the ultimate significance of all the divine promises made to us, is the development of love, which is Godlikeness, for God is love. And to have this love developed in us, in the sense and to the degree intended by the Lord, it is necessary that it shall come from a pure heart, in full accord with the Lord, and His law of love, and wholly antagonistic to the Adversary and his law of selfishness.

3월 13일

빌립보 3:15-17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찌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완전한 사랑의 표식에 이른 사람들은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주의 봉사에 활발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느님과 의의 원칙의 대표자로서 뿐만 아니라 주와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강한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경주코스에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함에 있어서 준비되고 자발적이며 숙련됨으로써 그들도 마찬가지로 “표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일어서야 합니다.

MARCH 13

As many, therefore, as are perfect, should be of this mind; and if in any thing you think differently, God will also reveal this to you; but to what we have attained, let us walk by the same line. Philippians 3:15-17 (Diaglott)

IT is indispensable to those who have reached the mark of perfect love that they shall keep actively engaged in the service of the Lord, laying down their lives for the brethren....Such must stand, not only as representatives of God and of the principles of righteousness, but as representatives of thos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and in the faith of His Word,--ready and willing and efficient in the encouragement of other runners in the race-course, that they likewise may attain to the "mark".

3월 14일

잠언 16: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닮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노할 때에, 증오의 성격을 갖고 있는, 악의, 싸움, 질투 등을 배제하여야 하며, 죄의 여러 가지 형태 인 잘못에 대한 의로운 분노의 의미에서의 노는 적절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사랑으로 뒷받침되는 엄격한 자제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의분을 행사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MARCH 14

He that is slow to anger is better than the mighty; and he that ruleth his spirit than he that taketh a city. Proverbs 16:32

WHILE anger, in the nature of hatred, malice, strife, envy, should be put away by all who are seeking to be copies of God's dear Son, anger in the sense of righteous

indignation against wrongdoing, sin in its various forms, is proper; and although it should be used with great moderation, backed by love, there are circumstances in which it would be wrong not to have righteous anger and use it.

3월 15일

히브리 10:38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처음 박동을 얻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적절한 영적 자양분을 계속하여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마음과 머리가 별개 이듯이 믿음의 생활도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서적이며 그래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리라고 확증한 것에 동화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그것의 원칙들이 우리의 원칙들이 되고, 그것의 약속들이 우리의 영감이 됩니다.

MARCH 15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Hebrews 10:38

IT is not enough that, by faith, we receive the first impulse of life, but, having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y the same means, we must continue to receive and appropriate spiritual nourishment, that we may grow thereby: we must walk by faith, following the leading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Word of truth. The life of faith is an individual matter, as well of the heart as of the head. It is far more than an acceptance of doctrines which we consider Scriptural and therefore true; it is the assimilation of that which we have proved to be the Truth, so that its principles become our principles, and its promises our inspiration.

3월 16일

요한1서 3:14,16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 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러한 "형제들"에 관한 최종적이고 가장 엄격한 시험 중의 하나이며, 아마도 한때는 깨어 있고 무장되어 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넘어지는 것 중의 하나는 형제들을 위한 사랑일 것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이러한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며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왕국으로의 입장 자격이 부족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별히 약하거나

넘어지기 쉽다면, 십자가의 병사는 그를 멸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우두머리이신 큰 형님께서도 그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그가 강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가장 기뻐하기는 하지만 더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것입니다.

MARCH 16

We know that we have passed from death unto life because we love the brethren,...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1 John 3:14,16

ONE of the final and most searching tests of these "brethren," and the one under which probably the most of those once awakened and armed will fall, will be--love for the brethren. Seemingly many will fail at this point and be therefore accounted unworthy of an abundant entrance into the Kingdom on this score. Should any be specially weak and liable to stumble, the true soldier of the cross will not despise him, nor revile him, even as the elder brother, the Captain, would not do so. On the contrary, he will be the more watchful and helpful toward the weaker even though he most enjoy himself in the company of the stronger.

3월 17일

마태 25:28, 29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러한 "달란트-묻음"의 비유로 선택되었습니까? 그것은 가장 적게 가진 사람들의 책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주께서는 그분의 성별된 백성 중의 가장 작은 자라도 이것을 알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능을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며, 그분과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진리를 위해 섬기기 위하여 아주 작은 능력이라도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죄 없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MARCH 17

Take therefore the talent from him, and give it unto him which hath ten talents. For unto every one that hath shall be given and he shall have abundance; but from him that hath not,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which he hath. Matthew 25:28,29

WHY is the one-talented man chosen as an illustration of these talent-burials? It is to show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have least--that the Lord expects even the least

of His consecrated people to know of and to use the talents he has in his possession, and that He will not hold guiltless even those who have the smallest ability to serve Him and His brethren and His truth, and who neglect to use it.

3월 18일

베드로 전 1:13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장기적이고 꾸준하며 확고한 노력으로써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흥분의 자극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당신의 모든 영적 활력을 소진하여, 그 후에 냉담과 낙심으로 원상태로 돌아가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반대로 심사숙고하여, 이기는 자로 증명되고 “이기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의 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훈련과 믿음의 시험과 인내에 필요한 오래 참음을 예비하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는 발작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MARCH 18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be sober, and hope to the end for the grace that is to be brought un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1 Peter 1:13

HAVING..."girded up the loins of your mind" for a long, steady and determined effort, "be sober"; do not allow yourself to become excited and, under the spur of excitement, to exhaust all your spiritual vitality in a very short time, and then to suffer a relapse into coldness or discouragement; but thoughtfully to consider and prepare for a long and patient endurance of all the discipline and trial of faith and patience necessary to prove an overcomer and worthy of the blessed reward promised "to him that overcometh." The race before us is not one to be run by fits and starts, but by "patient continuance in well doing."

3월 19일

베드로 전 1:14, 15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좇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므로 그분의 자녀들은 단지 그분의 손 안에서 수동적으로 따라가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느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

자신을 틀 잡아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자기들이 일어서서 일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으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적을 행해 주시기만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크게 기만당하는 것이며 적으로 하여금 그들을 삼킬 큰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스스로 분발하지 않는다면 그 적은 틀림없이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MARCH 19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in your ignorance; but as He which hath called you is holy,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1 Peter 1:14,15

SOME Christians have the erroneous idea that God does all the fashioning, and that His children are to be merely passive in His hand; but Peter does not so express it. He exhorts us to fashion ourselves according to the divine instructions. There is work to be done in us and about us, and those who are not up and doing, but who passively sit and wait for the Lord to work miracles in their behalf, are greatly deceived and are giving the enemy great advantage over them, which he will certainly use to bind them hand and foot and cast them into outer darkness, unless they bestir themselves to work out thei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3월 20일

요한 8:31,32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느님의 진리는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발견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주와 사도들과 예언자들입니다. 영감 받은 기록들에서 주어진 원칙들에 고착하고, 그것들을 연구하며 묵상하고,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들에 우리의 성품을 충실하게 맞추는 것이 주의 말씀에 고착한다는 것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한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에 고착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고”, “우리 안에 있는 희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성도들에게 주어진 믿음을 위하여 성실하게 경쟁할 것이며”,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며”, “선한 고백으로 증거 할 것이며”, 우리의 행로의 마지막까지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서 역경을 인내” 하게 될 것입니다.

MARCH 20

If ye continue in My Word, then are ye My disciples indeed;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John 8:31,32

DIVINE truth is never found except in the divinely appointed channels: and those channels are the Lord and the apostles and prophets. To continue in the doctrine set forth in their inspired writings, to study and meditate upon them, to trust implicitly in them, and faithfully to conform our characters to them, is what is implied in continuing in the Word of the Lord. If we thus continue in the Word of the Lord, as earnest and sincere disciples, we shall indeed "know the Truth;" we shall be "firm in the faith," and "able to give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us,"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once delivered to the saints," to "war a good warfare," to "witness a good confession," and firmly to "endure hardship as good soldiers of Jesus Christ," even unto the end of our course.

3월 21일

마태 5:44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며 ,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적으로 너희를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한 것에 대한 당신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당신의 능력껏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극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드럽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약함과 무지와 발전의 결핍을 인내하고, 훌륭한 모범을 통하여 그들에게 더 탁월한 방법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결코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오류 없는 심판이 죄와 죄인이 불가분으로 함께 연결된다고 선언할 때까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MARCH 21

Love your enemies, bless them that curse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and pray for them which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Matthew 5:44

HERE is a way to examine the real disposition of your own heart toward such. Would you cheerfully do them kindness and help them to the extent of your ability to see the error of their way and to overcome it? Can you tenderly pray for them and patiently bear with their weakness, their ignorance and lack of development, and try by a noble example to show them a more excellent way? If such be the case, then it is the sin that you despise, and not the sinner. The sin you should hate, but the sinner, never. Not until God's unerring judgment declares that the sin and the sinner are inseparably linked together may love let go its hold upon a brother man.

3월 22일

고린도 전 11:31, 32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새 창조물로서의 득실과 세상, 육체,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언제,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한 가지 시각으로써만 계산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매시간을 대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는 삶을 영위합니다. 극미한 정도의 양심의 오염이라도 제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대속자의 피가 끊임없이 간청되어야 하며, 그 결과로 주께 귀속한 의로움의 결혼 예복이 질질 끌리지 않게 하고, 극소량의 얼룩도 제거되어서, 우리에게 “점이나 주름이나 어떠한 나쁜 것들”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MARCH 22

If we would judge ourselves, we sh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of the Lord, that we should not be condemned with the world. 1 Corinthians 11:31,32

THE ascertainment of gains and losses as New Creatures, and how and when and where these came to us in the constant battle with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will surely profit all who make such reckonings with an eye single to the pleasement of the Lord. Spiritual Israelites...are to live a daily and hourly life of nearness to the High Priest. The blood of the dear Redeemer is to be continually invoked for the cleansing of the slightest defilement of conscience, that thus the wedding garment of our Lord's imputed righteousness may not become draggled, but that the slightest spot being removed, we may have it "without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3월 23일

히브리 10:32, 33 “너희는 고난의 큰 싸움을 인내하였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가장 강한 형제 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 격려, 조력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마련하셨으므로 우리는 자기_만족감에 빠져서는 안 되며, 주께 합당하게 의지할 때조차도 역시 포도원에서 동료 일꾼들의 협력, 격려, 동정심과 사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의 봉사에서 어느 만큼이라도 수고를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생각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봉사를 위한 탁월한 재주나 기회를 갖고 있지 못한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서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MARCH 23

Ye endured a great fight of afflictions; partly, whilst ye were made a gazingstock, both by reproaches and afflictions, and partly whilst ye became the companions of them that were so used. Hebrews 10:32,33

THE strongest of the brethren need the help, the encouragement, the assistance of others. The Lord has so arranged it that we may not feel ourselves entirely self-sufficient, and that even our proper leaning upon the Lord shall seem to require also the cooperation, encouragement, sympathy and love of the fellow-laborers in the vineyard. Who that has borne any measure of the labor and heat of the day in the gospel service cannot sympathize with this thought? Here, then, is a way in which many of the Lord's dear people, who have not themselves the largest amount of talent or opportunity for service, may be co-laborers and assistants in the Gospel work.

3월 24일

히브리 13:5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왜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려워해야 하며, 주의 일과 관련하여 사탄이나 다른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것처럼 걱정해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우리의 헌신을 나타내야 하며, ...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는 모든 짐과 책임이 주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며, 주의 일에서 전진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사람이 “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나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주의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소중한 것은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 입니다.

MARCH 24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Hebrews 13:5

WHY, then, should we fear what man may do unto us, or be distressed in regard to the Lord's work, as though Satan or any other evil power could prevail against it? Nevertheless, it is for us to show our devotion, not only by our zeal, but also by our prudence, ...therefore we are to proceed in the Lord's work as though the entire responsibility rested upon us, but in our hearts are to recognize that the entire weight and responsibility rest with the Lord. Long ago some one said, "I am immortal until my work is finished;" and we may rely upon it that this is practically true of all engaged in the Lord's service --that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is the death of His saints."

3월 25일

베드로 후 3:17,18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주시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 약속들의 성취를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지식에서 자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은혜에서도 자라는데, 각각의 지식이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에 알맞은 순종과 의(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지식을 예비하지 못하게 되어, 중단하게 되고, 아마도 후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상실은 어느 정도의 은혜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은혜의 상실도 상당한 지식의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세상의 일과 죄에서 우리의 선함과 은혜가 상실되어 감에 따라 어두움으로 들어가고, 주의 말씀의 약속들이 점점 더 희미하고 불명료해집니다.

MARCH 25

Ye therefore, beloved, seeing ye know these things before, beware lest ye also, being led away with the error of the wicked, fall from your own steadfastness. Bu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2 Peter 3:17,18

We grow in knowledge as we take note of the promises of God, and by faith apply them to ourselves, and seek to discern in our lives the fulfilment of those promises; we grow in grace simultaneously, for unless each item of knowledge be received into a good and honest heart, and bring forth its measure of obedience and righteousness (grace), we will not be prepared for the next step of knowledge, and would thus be stopped, or possibly turned back. And as a loss of knowledge would mean a measurable loss of grace, so also a loss of grace would mean a corresponding loss of knowledge--going into darkness, the promises of the Lord's Word becoming more and more dim and obscured, in proportion as our goodness or grace would be lost in worldliness or sin.

3월 26일

데살로니가 전 5:5,6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천년왕국에서의 지위--영광과 명예와 불멸성에 참여--에 적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성서의 빈번한 권고들--잠자지 말고, 태만하지 말고, 인생의 염려로 짓눌리지 말고, 영에 충만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의 필요성을 봅니다. 주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첫째로 그들 자신을 주의 뜻에 밀착하게 일치시키고, 가능한 한 하느님을 최대한 가까이 본받으며, 둘째로 교훈과 모범으로써 다른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같은 좁은 길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MARCH 26

We are not of the night, nor of darkness. Therefore let us not sleep, as do others. 1 Thessalonians 5:5,6

THE Christian, as a disciple of the Lord, as a pupil in the school of Christ, is being fitted for a place in the Millennial kingdom--for a share in its glory, honor and immortality....Hence, we see the necessity for the frequent admonitions of the Scriptures, that the Lord's people shall be awake;--not of those who slumber; not of those who are idle; not of those who are overcharged with the cares of this life; but that they be fervent in spirit, serving the Lord. Their service toward the Lord is primarily the bringing of themselves into as close harmony with the Lord's will, and into as close likeness to the divine pattern as possible; and secondly, it is that by precept and example they may help others of the called ones in the same narrow way.

3월 27일

요한 17:9, 20-23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경이로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의 주 예수께서는 항상 아버지와 완전히 일치--아들로서 영광스럽게 그 분을 그대로 반영하신 점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으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씻겨 지고 깨끗하게 되었으며, 우리의 질그릇이 아직도 얼마나 불완전하든지 간에,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그분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마음--완전한 목적과 의도--을 가지고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의 약함과 무능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고통스럽지만 확고한 노력으로써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우리를 타락으로부터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신 마련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식하십니다.

MARCH 27

I pray for them...that they all may be one... that they may be made perfect in one...that the world may know that Thou hast...loved them, as Thou hast loved Me. John 17:9,20-23

IN amazement we inquire, How can this be? Our Lord Jesus was always in perfect harmony with the Father--a son who gloriously reflected His likeness; but it has not been so with us; we were sinners and had nothing worthy of love. Yes, but we have been washed and cleansed, and, however imperfect our earthen vessels may still be, our hearts are perfect in His sight who is able to read the heart. And, as He sees us with a perfect heart--a perfect purpose and intention--striving to overcome the weaknesses and disabilities of our imperfect flesh, and with painful, yet determined effort to do His will, and humbly trusting in the provisions which He has made for our redemption from the fall, God recognizes in us that which is worthy of His love.

3월 28일

디모데 후 2: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참 병사는 그의 대의명분에 관해 토론하지 않습니다. 그는 봉사하기 위해 소집되기 전에 그 공의와 의로움에 관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후에는 그는 그것을 단언하고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물리칩니다.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완전히 희생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정직하고 완전한 충성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영광입니다. 올바른 편에 선다는 것과, 피의 평원과 그림자의 계곡을 넘어가면 승리하는 왕 중의 왕의 기쁨과 평화로 향하는 풍부한 입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서 아무도 전투의 고난으로 위축되거나, 맹렬한 적의 앞에서 기가 죽거나, 배고픔, 목마름, 헐벗음, 부상이나 죽음을 직면해서 떨거나 하여서는 안 됩니다.

MARCH 28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2 Timothy 2:3

THE true soldier does not debate his cause. He is rightly supposed to have settled upon its justice and righteousness before he enlisted to serve it. Thereafter he avouches it and defies contradiction of it. He is ready to spend all and be all spent in its defense. It is glorious to serve Christ in honesty and in fullness of fidelity. There is an ineffable joy in being on the right side, in knowing that beyond the field of blood and the valley of shadows is an abundant entrance into the joys and peace of the triumphant King of kings. For that hope none should shrink from the hardness of battle, none quail before the rage of the enemy, and none tremble before the certainty of hunger, thirst, nakedness, wounds or death.

3월 29일

에베소 2: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타락한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실만한 어떤 일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물로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옛 창조물이 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이 교훈은 철저히 인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하여 타락할 위험에 처해집니다.... 새 창조물이 옛 창조물에서 진화하였다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새롭고 분리된 창조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선한 일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들을 위해서 예비 된 하느님의 제작품입니다.

MARCH 29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Ephesians 2:8

AS members of the fallen race we were incapable of doing any work which our holy God could accept... Our present standing, therefore, as New Creatures, is not the result of anything that the old creature did, or could have done. It is not of 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This lesson must be thoroughly appreciated, else we will be continually in danger of falling. ...So far from considering the New Creature as an evolution of the old creature, the apostle would have us understand distinctly that it is a new and separate creation. We were created in Christ Jesus, God's workmanship--prepared for good works, but not by good works.

3월 30일

베드로 후 3: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느님을 닮는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해로운 소문 이야기나 불결하거나 거룩하지 못한 대화나 불충성하거나 반역적인 말들은 그 어느 것이라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성실함과 진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시다. 그리고 주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확고히 하고, 나태한 말들이나 우리를 거스르는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 용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할 것을 매일 기억합시다.... 만약 우리가 매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계산하고 매일 마다 극복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주시도록 하느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승인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영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느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그분의 성령의 증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MARCH 30

Seeing then that all these things shall be dissolved, what manner of persons ought ye to be in all holy conversation and godliness. 2 Peter 3:11

GOD-LIKENESS certainly cannot include any harmful gossip, any unclean or unholy conversation, any disloyal or rebellious words. Let such things be put far away from all who name the name of Christ in sincerity and truth. And let us remember daily to settle our accounts with the Lord, to make sure that no record of idle words, unrepented of,

and consequently unforgiven, stands against us....If daily we render up our accounts to God and seek His grace for greater overcoming power with each succeeding day, we shall be acquitted in judgment and stand approved before God through Christ, having the testimony of His Holy Spirit with our spirits that we are pleasing and acceptable to Him.

3월 31일

디모데 전 6:12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 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이 공적인 종류의 것이든지, 사적인 종류의 것이든지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승리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자”로서 주께 받아들여 질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주께서는 판단하실 때에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는 영을 살펴보실 것입니다....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손이 일을 찾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할 뿐만 아니라, 주와 주의 대의를 위해 바치는 우리의 모든 희생과 재능은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할 때, 헛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대의를 위해서 행해질 때, 주께서 기꺼이 승인하실 것임을 명심합시다.

MARCH 31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lay hold on eternal life, whereunto thou art also called, and hast professed a good profession before many witnesses. 1 Timothy 6:12

WHETHER our warfare be of the more public kind or of the more private sort, there must be warfare; and, more than this, there must be progress and victory, else we can never be accepted of the Lord as "overcomers." Another thought should be borne in mind by us all....The Lord in making His estimate will take knowledge of the spirit which actuated us, rather than of the results secured by our efforts....In view of this, let us see to it, not only that we do with our might what our hands find to do, but also that our every sacrifice and gift to the Lord and His cause is so full of love and devotion that the Lord will surely approve it; as done from love for Him and His, and not from vain glory.

4월 1일

마가 14:38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무엇이 유혹의 성격인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까지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안다면 그것은 단지 미약한 유혹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안전한 유일한 방법은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적인 마귀가 삼킬 자를 항상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각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곤란한 때에 도와주시는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저의 영혼이 당신의 보호 아래 있사오며, 수만의 적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죄가 압박하므로 당신의 상을 가로 막고 있나이다."

APRIL 1

Watch ye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Mark 14:38

WHAT may be the character of the temptations, we may not clearly discern until they are upon us; for if we knew all about them in advance they would be but slight temptations. Watch, therefore, and pray always; for the only safe way is to be prepared;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is seeking whom he may devour. He knows your weak points, and is ready to take advantage of them. We will each need the graces of the Spirit in our hearts, as well as the Lord's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if we would overcome. "My soul be on thy guard, Ten thousand foes arise; The hosts of sin are pressing hard To draw thee from the prize."

4월 2일

갈라디아 6: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간과 편함을 희생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며,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그는 나날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기회를 찾아야하며, 진리를 소통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바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의 형제들을 도와주거나,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APRIL 2

As we have therefore opportunity, let us do good unto all men, especially unto them who are of the household of faith. Galatians 6:10

THE CHRISTIAN is to be ready to do good at the expense of his own time and convenience to all men, but he is to be ready to lay down his life for the brethren--he is to seek opportunities for laying down his life day after day, in the sense of giving his time to the communication of the Truth, or helping the Lord's brethren in any manner, to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and to stand in the evil day.

4월 3일

로마 13: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들은 완전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 제도가 완전히 도래한다면, 새 제도의 빛 가운데서 승인 받지 못할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새 제도에 속해 있으며, 낡은 제도에 속하지 않으므로 빛의 군왕으로 향하는 시민권과 책임에 부합하게 살아야 하며 어두움의 군왕의 일들과 행로들을 반대해야 합니다.

APRIL 3

The night is far spent, the day is at hand: let us therefore cast off the works of darkness, and let us put on the armor of light. Romans 13:12

THE works of darkness would be any works whatsoever that would not stand the fullest investigation; that would not stand approval in the light of the new dispensation, if it were fully ushered in. Let us remember that we belong to the new dispensation, and not to the old, and should, therefore, live in accordance with our citizenship and our responsibilities toward the Prince of light and in opposition to the prince of darkness, his works and his ways.

4월 4일

로마 13:13 “낮에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각자는 금전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문제, 형제들을 대하는 문제와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그의 믿음에 관한 고백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면에서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하느님의 호의보다 사람들의 호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과 부정직하게 거짓으로 고백하기를 좋아 하는 사람들은 그 거짓에 굴복하게 되고,

그들의 영원한 유익들을 상실하게 되며, 자신들이 왕국에 부적합함을--다른 어떤 것들이 아무리 적합하더라도--증명할 것입니다.

APRIL 4

Let us walk honestly, as in the day. Romans 13:13

EACH one should see to it that he is honest, not only in matters of dollars and cents, but honest in his treatment of his neighbors, in his treatment of the brethren, and above all, honest in his confessions respecting his God and his faith. The test is being made along this line, and those who love the favor of men rather than the favor of God, and who dishonestly are willing to confess and profess a lie, will be given up to their lie, will be permitted to blight their eternal interests, will be proving themselves unfit for the Kingdom--whatever else they may ultimately become fit for.

4월 5일

시 63:5,6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기도는 단지 특권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기도 한--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명령받은--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비의 아버지께 대한 감사와 숭배와 친교의 욕구를 상실한 사람은, 분명히 바로 그 아들 신분의 영을 상실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장애물--세상, 육체, 마귀--을 제거하기 위하여 즉각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의 성품과 계획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모든 추가 증거는 우리의 숭배와 기도를 결코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대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토양이라면 더욱 풍부하게 산출할 것입니다.

APRIL 5

My mouth shall praise Thee with joyful lips: when I remember Thee upon my bed, and meditate on Thee in the night watches. Psalm 63:5,6

PRAYER is not a privilege merely, but also a necessity; --commanded as indispensable to our Christian growth. Whoever loses the desire to thank and worship and commune with the Father of mercies, may rest assured that he is losing the very spirit of sonship, and should promptly seek to remove the barrier--the world, the flesh or the devil. Every additional evidence of the Lord's confidence in us by the revealing to us of His

character and plan, so far from diminishing our worship and prayers, should multiply them. If our hearts are good soil they will bring forth the more abundantly.

4월 6일

베드로 전 4:16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진리를 위한 봉사에서 우리의 활력에 가해진 질병이나 어떤 종류의 불편함은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난들의 위험이 없거나, 기적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것들로부터 구조된다면, 주를 위한 봉사는 우리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지 못하고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인내하는 우리의 시험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하여튼 간에, 모든 육체적 또는 감정적 아픔,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사회적으로나 문자적으로 목 베임을 당하는 것은 영으로 증거 하는 것이며, 우리의 충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환난들에서 우리는--주와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APRIL 6

If any man suffer as a Christian, let him not be ashamed; but let him glorify God on this behalf. 1 Peter 4:16

SICKNESS and discomfort of any sort, incurred by our energy in the service of the Truth, are permitted by our Father as evidences of our fidelity and love; because if not liable to such tribulations, or if relieved of them instantly by a miracle, the Lord's service would cost us no sacrifice and the test of our willingness to endure for the Truth's sake would be wanting. As it is, however, every ache or pain or wound of person or of feelings, and beheading socially or literally for the Truth's sake, becomes a witness of the spirit, testifying to our faithfulness. And in all such tribulations we should rejoice greatly--as say our Lord and the Apostle Peter.

4월 7일

빌립보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만약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불타는 열정이 없다면,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면 곧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만약 열정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기회가 부족하다면, 가능하면 빨리 그것을 주께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의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이라도 활용하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놀리지 말고, 더욱 많은 기회들을 찾으십시오.

APRIL 7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IF you have no burning zeal to preach the good tidings of great joy, pray earnestly and faithfully and persistently for it, and strive for it, and you will soon have it. If you have a zeal and love for the gospel, and lack ability to present it, pray for the ability while you make full use of what you have. If you have the zeal and the ability, and lack an opportunity, take it to the Lord in prayer as soon as you can, telling Him that you are faithfully using all the opportunities you have. Then watch for more opportunities, without slacking your hand to use the very humblest and smallest within your reach.

4월 8일

히브리 10:38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처음에는 희생의 좁은 길에서 매우 조금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아마도 지나간 일들을 탄식하면서, 단지 되돌아보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의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후에 타락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진리를 타협하는 경향을 약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혹자의 간계가 준비되며, 그는 우리의 약점들을 재빨리 간파하고, 우리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용합니다. 미묘한 죄들이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의로움을 가장하고, 아첨하는 유혹이 육적인 정신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은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며, 주의 봉사를 위한 처음 열정을 잊어버리며, 진리와 그것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며, 더 이상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APRIL 8

If any man draw back, My soul shall have no pleasure in him. Hebrews 10:38

THE drawing back may at first be a very slight departure from the narrow way of sacrifice--only a looking back perhaps, with a sigh for the things behind; a little slowing up of speed in the race set before us; then a little disposition to compromise the Truth in favor of the cravings of the fallen nature. Thus the way is prepared for the arts of the tempter, who is quick to note our weak points, and to take advantage of them in a manner best suited to our case. Subtle errors are brought to bear against the judgment; pleasing allurements, with a show of righteousness, are presented to the fleshly mind; and, almost imperceptibly, the soul forgets its "first love" for the Lord, and its first zeal for His service, and drifts away from the Truth and the spirit of it, being no longer led of the Holy Spirit of God.

4월 9일

고린도 전 9:24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

승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단지 하느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에서 영웅이 되어야 하며, 눈과 육체의 정욕과 생활의 자랑과 모든 의와 순결에 대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공세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주와 진리와 의를 위한 사랑--으로 영감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한 유산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합니다. 열렬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하면 마음이 완전히 주께 복종하는 것이 되며, 그것은 전투에서 9할은 이미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조차도,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유다 21),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의 사랑과 경각심과 기도와 열정 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랑이 풍부한 곳에 자비가 풍부할 것입니다.

APRIL 9

Know ye not that they which run in a race run all, but one receiveth the prize? So run, that ye may obtain. 1 Corinthians 9:24

TO gain the victory we must not only put on the armor of God, but we must be heroes in the strife, and wage an aggressive warfare upon the lusts of the eye and flesh and pride of life and all the foes of righteousness and purity. Love--love for the Lord, for the Truth and for righteousness--must inspire us, or we shall never be victors. Love alone will keep us faithful even unto death, and make us meet for the inheritance of the saints

in light. Where fervent love rules the heart it implies that the heart is fully submitted to the Lord, and that means that nine-tenths of the battle is already won. But even then, as the apostle says (Jude 21), we must keep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in watchfulness and prayer and zeal; and grace will abound where love abounds.

4월 10일

베드로 전 5:6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길을 걷고, 끊임없이 인간적 야망을 억누르고,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높은 곳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자신의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것이며, 우리의 축복받으신, 그리고 온유하시고 마음이 낮으신 선구자의 발걸음을 밀접히 따르는 충실한 승리자에게 약속된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고 충실하게 되면 주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그릇으로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면, 그분은 그분의 성령과 그분의 진리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는 만군의 주와 그분의 능하신 활력 안에서 강력하게 나아갈 것이며, 십자가의 병사로서 용감한 봉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APRIL 10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that He may exalt you in due time. 1 Peter 5:6

IT is indeed no easy matter to tread the pathway of humility, to continually check the human aspirations and to keep the sacrifice on the altar until it is fully consumed. But thus it is that we are to work out our own salvation to the high calling with fear and trembling, lest we come short of worthiness for the prize of the high calling promised to the faithful overcomers who tread closely in the footsteps of our blessed Forerunner, who was meek and lowly of heart. It is when we are thus humble and faithful that the Lord makes us His chosen vessels to bear His name to others. Thus emptied of self, He can fill us with His Spirit and with His Truth, and we can go forth strong in the Lord of hosts and in His mighty power, to do valiant service as soldiers of the cross.

4월 11일

로마 13:13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도취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업에; 다른 사람들은 옷에; 다른 사람들은 음악에; 다른 사람들은 예술에 도취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날과 그 날에 성취될 하느님의 큰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느님의 일에 열중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합하고 올바르게 생각되어질지라도--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깨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우리의 생각과 행로로부터는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APRIL 11

Let us walk...not in rioting and drunkenness. Romans 13:13

SOME have an intoxication for money, wealth; others an intoxication for business; others for dress; others for music; others for art; but as the Lord's people, who have got a glimpse of the new day, and the great work of God which is to be accomplished in that day, our hearts should be so absorbed in the work of God that these matters, which would be thought proper enough and right enough in others, worldly people--because they are not awake as we are, and because they see not the future as we see it--should be far from our conception and course.

4월 12일

고린도 전 10:16, 17 “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비록 많은 곡식 알갱이들로 만들어 졌지만 한 개의 빵인 것처럼, 많은 포도 알갱이들로 만들어진 과즙이지만 한 개의 컵입니다. 그 곡식 알갱이들이 남들을 위한 빵이 되려면 자신의 개성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포도 알갱이들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려면 포도 알갱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한 개의 빵과 컵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도의 설명의 아름다움을 봅니다....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입는 유일한 길은 주의 컵을 마시라는 그분의 초대에 응하고, 한 개의 빵의 구성원으로서 그분과 함께 부서지고, 그분의 죽음으로의 침례에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럼으로써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영예와 불멸성을 얻는 것입니다.

APRIL 12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is it not the participation of the blood of Christ? The bread which we break, is it not the participation of the body of Christ? For we being many are one bread. 1 Corinthians 10:16,17

IT is one cup, though it be the juice of many grapes, even as it is one loaf, though it be from many grains. The grains cannot maintain their individuality and their own life if they would become bread for others; the grapes cannot maintain themselves as grapes if they would constitute the life-giving spirit; and thus we see the beauty of the apostle's statement that the Lord's people are participants in the one loaf and cup....There is no other way that we can attain the new nature than by accepting the Lord's invitation to drink of His cup, and be broken with Him as members of the one loaf, and to be buried with Him in baptism into His death, and thus to attain with Him resurrection glory, honor and immortality.

4월 13일

요한 6:53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여,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우리의 '의롭다 하심' (의인)을 위하여--희생하신 당신의 순수한 본성의 혜택을 (우리의 필요에 적합하게)먹습니다. 또한, 우리는 당신과 함께 고통의 잔을 마실 것이며, 그것을 당신과 고통을 함께 하는 축복된 특권이라고 인식하며, 때가 되면 우리도 역시 당신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당신과 함께 죽음으로써,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 살며, 당신과 같이 되며, 당신의 신부로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영광을 함께 할 것입니다. 오! 우리가 상징적 행위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충성스럽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받으신 주여, 우리는 “너희는 진실로 나의 잔을 마시고 나의 침례를 함께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 자체로는 그렇게 희생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전적으로 당신의 소유이므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APRIL 13

Except ye eat of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e have no life in you. John 6:53

GLADLY, dear Lord, we eat (appropriate to our necessities) the merit of Thy pure nature sacrificed for us--for our justification. Gladly, too, we will partake of the cup of

suffering with Thee, realizing it to be a blessed privilege to suffer with Thee, that in due time we may also reign with Thee;--to be dead with Thee, that in the everlasting future we may live with Thee, and be like Thee and share Thy love and Thy glory as Thy Bride. Oh! that we may be faithful, not only in the performance of the symbol, but also of the reality. Blessed Lord, we hear Thy Word saying, "Ye shall indeed drink of My cup and be baptized with My baptism." Lord, we are not of ourselves able thus to sacrifice; but Thy grace is sufficient for us, for we are wholly Thine, now and forever.

4월 14일

아사야 53:12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주의 발걸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겟세마네의 경험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각자는 주의 경험의 일부라도 맛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인 “형제들”과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한 기회를 찾아보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각자는 어린 양의 추종자 모두에게 비난이 가해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대로 동정심 있는 말을 하며, 우리 행로에서의 십자가와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주이시며 머리이신 분께, 갈보리로 향하는 길에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기회를 인식하였음을,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APRIL 14

He hath poured out His soul unto dea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Isaiah 53:12

AS every one who follows the Master's footsteps must needs have some Gethsemane experiences, so also each must have a taste at least of all the Master's experiences. Let us not forget, then, to look about us for opportunities for serving the "brethren," the "little ones," th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Let each be careful not to add to the reproaches that must fall upon all the followers of the Lamb, but on the contrary to offer words of sympathy, and to help bear each other's crosses, difficulties and trials by the way. Thus can we best show to our Lord and Head how we would have appreciated the opportunity of helping Him bear His cross on the way to Calvary.

4월 15일

누가 23:46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대속자께서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으며, 믿음에 가득차서 자신의 모든 생명과 미래에 대한 모든 축복된 희망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능에 의탁하셨음을--아버지의 계획과 말씀에 일치하도록 제공되도록--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의 발걸음을 따르는 자로서, 믿음으로써 바라보며, 우리의 죽음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들을 하느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우리의 대속자로서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여행을 통하여 그분의 섭리로 돌봐 주시며, 또한 과분하게 크고 소중한 약속들을 미리 우리에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힘과 안위와 확신을 주십니다.

APRIL 15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Luke 23:46

WITH full confidence our dear Redeemer looked up to the Father, and full of faith declared that He committed all of life and all of the blessed hopes for the future to the Father's love and to the Father's power, --to be provided in harmony with the Father's plan and Word. And so must we, as followers in our Master's footsteps, look forward with faith, and in our dying hour commit all our interests to the keeping of Him who has manifested His love for us, not only in the gift of His Son as our Redeemer, but all our journey through,--in His providential care, as well as in the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which go before us and give us strength, comfort and assurance.

4월 16일

말라기 3:1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주께서 자신의 신부를 찾도록 우리를 보냈지만, 우리는 마음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서 배척하시는 어떤 사람들을 모아 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매우 겸손하고, 관대하고 온유하며 주를 매우 신뢰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일과 관련하여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종으로서의 우리 직분과 관련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성품을 깊이 함양하게 해야 합니다.

APRIL16

They shall be Mine, saith the Lord of hosts, in that day when I make up My jewels; and I will spare them as a man spareth his own son that serveth him. Malachi 3:17

HAD the Lord sent us forth to seek His Bride, we might have gathered in some whom He rejects as unworthy--because we are unable to read the heart. This thought should make us very humble, gentle and meek toward all, and very trustful of the Lord, and very much inclined to look for His leading in respect to our labors as His servants, just as Samuel looked to the Lord in connection with the anointing of

4월 17일

요한1서 2:27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주의 축복과 권능이 다윗의 기름부음에 함께 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우리가 이해 하지 못할 수 있는--그로 하여금 지식 등에서 자라고, 그가 기름부음 받은 직책의 의무 이행을 위해 적합하도록 준비되게 하였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받아들이신 때로부터 교회에 대한 기름부음이 이와 같은 것의 모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름부음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성격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와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첫째 부활에서 완성되고 우리의 주이시며 머리로서 주인이신 분과 함께 왕좌에 오를 것입니다.

APRIL 17

The anointing which ye have received of Him abideth in you. 1 John 2:27

THE blessing and power of the Lord accompanied David's anointing in some manner--just how we may not understand--enabling him to progress in knowledge, etc., and fitting and preparing him for the duties of the office to which he had been anointed. May we not consider as an antitype to this, the anointing which comes upon the church from the time of her acceptance with the Lord? Ours is not a physical anointing, nor are the blessings conferred of a temporal character: it is as New Creatures that we grow in grace and knowledge and love; and as New Creatures that, by and by, we shall be perfected in the First Resurrection and come to the throne with our Lord and Master as our Head.

4월 18일

베드로 전 4:12,13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함이라.”

호의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주인께서 받으신 비난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육체와 마귀는 우리의 길을 방해합니다: 내적으로는 싸움이 외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으며, 많은 화살과 불화살이 의로운 사람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혹독한 시험 아래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안전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느님 앞에서 잠잠하고, 모든 일에서 많은 점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주께 넘겨 처리하기 이전에, 먼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필자는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침묵하였습니다: 좋은 것들조차도 침묵하였고 나의 평화를 붙잡았습니다. [내 눈에는 좋게 보이는 것조차 행하거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APRIL 18

Beloved, think it not strange concerning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ry you,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ppened unto you. But rejoice, inasmuch as ye are partakers of Christ's sufferings; that when His glory shall be revealed, ye may be glad also with exceeding joy. 1 Peter 4:12,13

IN an unfriendly world we can expect to receive only the reproaches of our Master, for the servant is not above his Lord.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oppose our way: there are fightings within and fears without, and many are the arrows and fiery darts aimed at the righteous. But what is the safe attitude of the soul under afflictions and severe testings? Is it not in silence before God, waiting and watching first to see His leading, His will, in every matter before presuming to touch things that often involve so much? So the Psalmist suggests, saying, "I was dumb with silence: I held my peace, even from good." [even from doing or saying what seemed good in my own sight].

4월 19일

마태 12:34,35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첫째 관심사는 마음이어야 합니다--그래서 그것의 애착과 기질이 하느님의 은혜의 완전한 인도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와 의로움의 원칙이 그곳에

보좌하게하려는 것입니다; 공의, 자비, 박애, 형제애, 사랑, 믿음, 온유, 인내,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숭상과 모든 거룩한 아름다움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생명을 주관하는 원칙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마음의 훌륭한 보물로부터 진리, 냉철함, 지혜와 은혜의 말들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APRIL 19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eth. A good ma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the heart bringeth forth good things; and an evil man out of the evil treasure bringeth forth evil things. Matthew 12:34,35

OUR first concern, then, should be for the heart-- that its affections and dispositions may be fully under the control of divine grace; that every principle of truth and righteousness may be enthroned there; that justice, mercy, benevolence, brotherly kindness, love, faith, meekness, temperance, supreme reverence for God and Christ, and a fervent love for all the beauties of holiness, may be firmly fixed as the governing principles of life. If these principles be fixed, established, in the heart, then out of the good treasure of the heart the mouth will speak forth words of truth, soberness, wisdom and grace.

4월 20일

누가 16: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것은 주의 백성들이 가정이나 밖에서의 일상생활에 만족하여,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하느님께서 내게 하는 일을, 다른 어떤 더 바람직한 형태로 그분께 직접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받아들이신다”고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각자는 매일 매일 사려 깊게 자신의 세속적 의무와 책임을 점검하여, 세속적 일들과 관심사로부터 어떻게 정당하고 적합하게 시간을 잘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일들과 영적인 관심사를 위하여 희생하는데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희생하는 제사장으로서, 빠르게 날아가는 순간들을 선용하여 가능한 한 아버지의 일에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APRIL 20

He that is faithful in that which is least is faithful also in much. Luke 16:10

THIS does not mean that the Lord's people are to be content with the usual routine of daily life in the home or in the shop, and are to say to themselves, "God accepts my labor as though it were given directly to Him in some other more desirable form," but it does mean that each person so situated should day by day carefully scan his earthly duties and obligations to see in what manner he could justly and properly cut off moments, hours or days from the service of earthly things and earthly interests, that now might be given to sacrifice for spiritual things and spiritual interests of himself or others. The consecrated heart, the sacrificing priest, is the one who will improve the moments as they swiftly fly, using them as far as possible in the Father's business.

4월 21일

히브리 4:15, 16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 갈 것이니라."

유혹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위대하신 주인을 바라보아야하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인식하여야합니다. 곤궁한 때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우리는 확실히 주의 조언과 도움과 의, 진리, 순결과 사랑을 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매 시간 승리하고, 매일 승리하며,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APRIL 21

We have not an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un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Hebrews 4:15,16

IN the moment of temptation the heart should lift itself to the great Master, in full assurance of faith, recognizing His love, His wisdom and His ability to help us, and His willingness to make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Him. Asking for assistance in such a time of need would surely draw to us the Lord's counsel and help and strength for righteousness, truth, purity and love; and thus we should be hourly victorious, daily victorious, and finally victorious.

4월 22일

마태 12:3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매일의 우리 행로를 점검해보고, 만약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말로서 주께 불명예를 초래하였다면, 우리는 우리를 옹호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가 잘못하였음을 인식하며 거룩한 언행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대의를 영예롭게 하는데 실패하였음을 깊이 뉘우친다는 것을 설명해드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련에 따라 우리의 죄가 씻어지도록 겸손하게 청원하며, 우리의 모든 희망과 신뢰는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에 있다는 것을 겸손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쓸모없는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말에 의하여, 믿음이 수반된 그리스도의 혜택으로 보충되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PRIL 22

I say unto you, That every idle [unprofitable or pernicious] word that men shall speak, they shall give account thereof in the day of judgment. Matthew 12:36

IF, in the daily scrutiny of our ways, which is the duty of every Christian, we discover that in any particular our words have been dishonoring to the Lord, we should remember that in the name of our Advocate we may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explain to our Heavenly Father our realization of the error, our deep regret at our failure to honor His name and His cause by a holy walk and conversation, and humbly request that the sin be not laid to our charge, but that it may be blotted out through His gracious provision for our cleansing through Christ, humbly claiming that in His precious blood is all our hope and trust. Thus we should render up our account for every idle word; and by our words of repentance, supplemented by the merits of Christ applied by faith, shall we be acquitted.

4월 23일

누가 8: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희생자가 되고자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배울 자세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는 매우 빨리 정로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인내의 부면에서 주의 은혜를 발전시키는 것을 배워야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의 대의를 손상하거나 주의 백성 중의 일부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회피할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때때로 불의에 굴복할 때에 분명히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형제 사랑을 키우고, 한 마디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하느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전시키는 것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상에서 희생하는 일을 완성하려면 폭 넓고 극복하는 수준의 사랑이 갖춰져야 합니다.

APRIL 23

That on the good ground are they, which in an honest and good heart, having heard the Word, keep it, and bring forth fruit with patience. Luke 8:15

EVERY one who will be a sacrificer must of necessity be meek, humble, teachable, else very shortly he will get out of the way. He must also learn to develop the grace of the Lord along the line of patience, because it certainly requires patience to deny ourselves and to submit at times to injustice where there is no proper means of avoiding it without doing injury to the Lord's cause or to some of His people. It also implies a cultivation of brotherly kindness and, in a word,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will of God in our hearts and lives; namely, love, which must be attained in a large and overcoming measure ere we shall have completed our earthly work of sacrificing.

4월 24일

로마 15:2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찌니라”

왕 겐 제사장의 각 성원들에 해당하는 교훈은 그들의 직책 상 특수 임무, 과제, 현재의 부르심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봉사 형태로서 왕 겐 제사장들에게 종종 분별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길이나 계획이나 방법이나 선호를 포기하고 --그것이 단지 개인의 선호 문제이거나, 주께서 기꺼이 그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도 하게 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때-- 평화를 위하여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계획이나 선호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떤 선한 것이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선호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APRIL 24

Let every one of us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edification. Romans 15:2

THE lesson to each member of the Royal Priesthood is that the special mission of their office, vocation, calling in the present time, is to sacrifice....Another form of service frequently not discerned by the royal priesthood is the opportunity of renouncing our own ways or plans, our own methods or preferences, and in the interests of peace accepting instead the plans, the preferences of others--where it is merely a matter of personal preference, and where we believe the Lord will be as willing to have the matter one way as another. We can in the interests of peace sacrifice our preferences to the wishes of others if we see some good can be gained by such a course.

4월 25일

히브리 1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당신의 믿음에 따라 당신에게 이뤄질 것입니다"라는 것이 주께서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그들의 그리스도인 행로와 경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에 적용될 것입니다....그분께서 우리를 주시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의 믿음; 영적인 일들이나 현세적인 일들이 번창한다고 보일 때의 믿음과 그리고 현재의 일들이 모두 우리에게 불리하게 되어 질 때에도 똑같이 강한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의 선하심과 충실하심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에 따라 궁극적으로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 종도록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APRIL 25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th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Hebrews 11:6

"ACCORDING to thy faith be it unto thee," would seem to be the Lord's method of dealing with all who are His disciples, from first to last of their Christian walk and experience....faith when He seems not to notice us; faith when things seem to be going prosperously with us in our spiritual affairs and in our temporal affairs; and faith equally strong when the currents and forces seem all to be against us. The victory that overcometh the world is the faith that in all conditions is able to look up to the Lord with absolute confidence in His goodness and faithfulness, and to realize that according

to His promise, eventually all things will work together for good to us because we are His people.

4월 26일

히브리 4: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사랑의 법은 칠일 중에 하루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지도하고 통제합니다; 일주일의 칠일 모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칠일 모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칠일 모두 우리는 또한 안식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의 일에서 안식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친 일에서 믿음으로 안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식하며, 이해를 초월하여 계속 우리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안식해야 합니다

APRIL 26

He that is entered into His rest, he also hath ceased from his own works, as God did from His. Hebrews 4:10

INSTEAD of demanding one day of the seven the law of love really controls, regulates our entire time; seven days of the week we are to love the Lord our God with all our heart, mind, soul and strength; and seven days of the week we are to love our neighbor as ourselves; and seven days in the week we are to rest also--rest from our own works--rest by faith in the finished work of Christ--rest in the love of God-- rest in the peace of God which passeth understanding, ruling in our hearts continually.

4월 27일

빌립보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는 것은 실로 합당하게 추구해야 할 하나의 요구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관한 큰 계획에 표현된 그분의 뜻에 겸손하고 충실하게 복종하는 정신이며, 그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활력을 바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염두에 두신 목적을 지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처럼, 세상의 일들에 속박되는 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랄 것이며, 우리의 시간을 주의 봉사를 위해 가능한 한 자유롭게 하며, 그 봉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활력과 능력과 노력을 다 바칠 것을 바랄 것입니다.

APRIL 27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Philippians 2:5

TO have the mind of Christ is indeed the one requirement of lawful striving--a mind which humbly and faithfully submits itself to the will of God as expressed in His great plan of the ages, and which devotes all energy to the accomplishment of His will, because of an intelligent appreciation of the ends He has in view. If so filled with the same mind that was in Christ Jesus, we, like Him, will desire to be as free as possible from entangling earthly affairs, and to have our time as free as possible for the Lord's service, and then to devote all energy, ability and effort to that service.

4월 28일

로마 5:3-5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믿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오직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위하여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병약함과 어려움과 시험을 공감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우리가 왕좌에 올랐을 때에 그들의 대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재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악을 저항하되, 악으로서가 아니라 선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pril 28

We glory in tribulations also: knowing that tribulation worketh patience; and patience, experience; and experience, hope: and hope maketh not ashamed,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ich is given unto us. Romans 5:3-5

WE have need of patience, and that can only be gained by trials. We have need of faith, and that can only be developed by necessities. We have need of experience for our

future work, which can be gained only by such experiences which permit us to be touched with a feeling of the infirmities and difficulties and trials of those about us, to whom we shall be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when we reach the throne. For us, then, the lesson of present experiences is to resist evil,--and not with evil but with good.

4월 29일

시 91: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슬픔이나 고통을 주께 가져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축복받은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생의 고뇌로부터 괴로움을 숨기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험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일들이 허무하다는 것과, 그것들이 영혼의 욕구들을 만족시켜 주거나 상처 받은 영을 위안해 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들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들은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허락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우리에게 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산출할 것이며, 우리에게 강하고 고상한 성품을 발전시켜 주며, 온전한 자제력과 생각 깊은 사고력과 고통에 대한 인내력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충성과 충실함과 신뢰를 훈련시켜줄 것입니다.

APRIL 29

He shall call upon Me, and I will answer him: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I will deliver him, and honor him. Psalm 91:15

IT is always our blessed privilege to carry our sorrows and vexations to the Lord; "For He knows How to steal the bitter from life's woes." He does it by showing us, through experience, the vanity of all earthly things and their utter inability to satisfy the soul's cravings, or to comfort the wounded spirit. Then comes the thought that however vexing our experiences, they will soon be over; and if we permit them to do so they will only work out in us the peaceable fruits of righteousness, and develop in us strong and noble characters, disciplined to thorough self-control, thoughtful consideration, patient endurance of affliction and loving loyalty and faithfulness and trust in God.

4월 30일

베드로전서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하려 하심이라.

우리들을 이 빛으로 모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빛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 보물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버려질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빛을 받았고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완전히 헌신하였다면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봅시다. "나를 어둠으로 부터 불러내어주신 분을 찬양하기위하여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나는 이러한 소식을 가깝거나 먼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나? 나는 대속을 통해 얻은 나의 모든 힘과 생각과 말과 행실과 나의 모든 날과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한다고 진실로 확신할 수 있는가"

APRIL 30

Ye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n holy nation, a peculiar people; that ye should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1 Peter 2:9

THE very object of our being called into this light is that we may let it shine. If we do not let it shine we are unworthy of it, and the treasure will be taken away and we will be left in darkness. If indeed we have received the light and have consecrated ourselves fully to God, let us ask ourselves, What am I doing to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me out of darkness? Am I going forth with these tidings to my neighbors near and far? Can I truly affirm that I am:-- "All for Jesus, all for Jesus-- All my being's ransomed powers; All my thoughts, and words, and doings, All my days and all my hours?

5월 1일

마태복음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

주께 성별할 때에 "새 창조물"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남편(아내), 자녀들, 부모, 이웃,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합당한 권리 및 이익의 어느 것이라도 희생하면 그것은 주께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집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봉사가 행해진다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거나, 주께 하는 성별이 아니거나, 주께로 향한 희생이

아닌 단지 개개인들에게로 향한 희생-- 이러한 것들은 제사장인 우리의 희생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MAY 1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Matthew 20:28

IF the consecration be to the Lord, then every sacrifice of our just rights and interests on behalf of ourselves as New Creatures, on behalf of husband(wife) or children, father or mother, neighbors or friends, brethren in Christ, is counted of the Lord as so much done to Him; whereas if the very same services were rendered from any other standpoint--by any one unjustified, and not consecrated to the Lord, or merely done to the individuals and not as a sacrifice unto the Lord--these things would not count to us as priests, as our sacrifices.

5월 2일

디모데후서 3:12 ;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의 행로를 죽음으로 마칠 때 까지 우리에게 대한 반대는 의심의 여지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에 참을성 있게 순응하기 위해 우리는 친구관계나 현재 생활의 즐거움을 선호하는 우리자신의 자연적 성향을 희생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군인처럼,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왕국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인내해야합니다.

주께 향한 참된 봉사는 첫째로, 하느님의 계획에 관한 주의 깊고 꾸준한 연구를 하고 둘째로, 하느님의 계획의 영(정신)을 흡수하며 셋째로, 그것의 성취를 위한 열정에 이르도록 하여, 어떠한 대가나 희생을 치르더라도 능력의 한도 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MAY 2

All that will live godly in Christ Jesus shall suffer persecution. 2 Timothy 3:12

OPPOSITION is to be expected, and will, doubtless, continue until we finish our course in death. To submit patiently to this opposition is to sacrifice our own natural preferences for the friendship and the pleasures of the present life, and to endure hardness as good soldiers for the Truth's sake, in whatever shape that hardness may come, in our effort to do the Lord's will and work of advancing the interests of His

Kingdom. To be really in the Lord's service involves, first, the careful and continual study of God's plan; second, the imbibing of its spirit; leading, thirdly, to an enthusiastic zeal for its accomplishment, and to activity to the extent of ability in its service, at whatever cost or sacrifice it may require.

5월 3일

이사야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6,000년 동안 시도하셨지만 결국 실패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는 성서의 확증과 그러한 견해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였고, 주에 관한 지식이 아직 세상에 충만하지 않다는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아직 사명으로 주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과 주에 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다가올 1,000년 왕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MAY 3

"So shall My Word be that goeth forth out of My mouth: it shall not return unto Me void,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lease, and it shall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I sent it." Isa. 55:11

Those who claim that Jehovah has been trying for six thousand years to convert the world, and failing all the time must find it difficult to reconcile such views with the Bible assurance that all God's purposes shall be accomplished, and that His Word shall not return unto Him void, but shall prosper in the thing whereto it was sent. The fact that the world has not yet been converted, and that the knowledge of the Lord has not yet filled the earth, is a proof that it has not yet been sent on that mission.

5월 4일

이사야 58: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아버지의 마련에 따라, 우리의 지상 일들과 관련한 상황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든지,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교훈 점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럼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험도 행운 또는 불운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와 밀착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주에 의해 지시되고 인도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MAY 4

"And the Lord shall guide thee continually." Isa. 58:11

If, in the Father's providence, some of the circumstances connected with our earthly affairs turn in this or that direction, our hearts should look to the Lord for the lesson to be drawn therefrom, and thus be able to glorify God thereby. The Christian should never view any experience as being lucky or unlucky, but should remember that all things connected with him, if he be living close to the Lord, are ordered and directed by the Lord.

5월 5일

로마서 8: 13 “너희가 ~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로 하여금 주와의 관계 및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유지하게 하는 조건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듯이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포함 합니다 --육체적 경향을 제어하고, 죽이며, 십자가에 못 박고, 주와 주의 뜻을 위한 봉사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육체의 약함과의 싸움이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말하고 있는 “전쟁”을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육체는 영을 거슬러, 또한 영은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데, 그 둘은 대립적이므로, 우리 생애의 끝까지 서로 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영이 최선을 다해 육체의 약함을 거슬러 싸운다면, 주께서는 대속의 유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MAY 5

If ye through the Spirit do mortify the deeds of the body, ye shall live. Romans 8:13

THE conditions upon which we may continue our relationship to the Lord, and our hope for a share in the glories of the First Resurrection are thus definitely stated to include mortification of the deeds of the body --restraining the fleshly inclinations, putting them to death, crucifying them, using them up in the service of the Lord and His cause.

Such mortification of the deeds of the body, such a battle against the weaknesses of the flesh, is what the apostle elsewhere speaks of as the "warfare," when he tells us that the flesh warreth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in turn warreth against the flesh, for the two are contrary, and will be opponents to the end of life; and if the spirit has been willing, and has fought to the best of its ability against the weaknesses of the flesh, the Lord will count the victory complete, through the merit of the Redeemer.

5월 6일

로마서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로써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경주의 시작 때뿐만 아니라 그 끝에 이르기까지 그러할 것이며--그 인도함이 우리가 따르고 있고, 우리가 찾고 있는 방향이라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받아들이시며, 그들은 (그리스도와) 결혼 예복의 유익을 믿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MAY 6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Romans 8:14

THIS, then, is the guide by which we may know our true position, not only at the beginning of the race, but to the end of it, viz., if we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if that is the direction in which we are following, if that is what we are seeking--then we are sons of God; He owns and accepts all who have come unto Him through Christ, and who are trusting in the merit of the wedding garment, and who continue in this attitude of heart.

5월 7일

이사야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들어지지 않거나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적절하게 요청하므로, 여러분의 요청은 받아 들어지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 목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러나 정결하고 거룩한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 “그들이 부르기 전에(표현할 단어를 찾기도 전에 그 마음의 바라는 것을 읽고) 내가 응답하겠고(조만간에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 일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천년왕국에서 주의 백성에 대한 예언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시대의 주의 충실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자신의 가장 미천하고 작은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랑의 친절을 베푸시는 주를 찬양합시다!

MAY 7

"Before they call, I will answer; and while they are yet speaking, I will hear." Isa. 65:24

How many prayers are not heard or are hindered because the one who asks does not first purify himself of evil in his own heart? "Ye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e ask amiss, that ye may consume it upon your lusts;" i.e., you ask selfishly and without regard to the will of God. But to the chastened and sanctified comes the promise -- "Before they call (reading the desire of the heart even before it finds expression in words) I will answer (will begin so to shape events as to bring the answer soon or later); and while they are yet speaking I will hear." While this is in connection with a prophecy relating to the Lord's people in the Millennial Age, it nevertheless is true of all His faithful ones of this age. Praise the Lord for all His loving kindness to even the least of His lowly children!

5월 8일

이사야 66:13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 즉

하느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옹호하므로, 악한 자(사탄)와 그 종들로 부터 항상 핍박을 당합니다; 성서의 위안과 위로가 없다면, 세상이 결코 주거나 빼앗지 못할 기쁨과 평화가 없다면, 그들은 불행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마련하신 바에 따라, 의를 위해 세상적인 손실을 겪을 때에도, 환난 중에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입니다.

환난 중에 기쁨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위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것은 성령에 의해 비취진, 성서의 안위로부터 온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MAY 8

"As one whom his mother comforteth, so will I comfort you." Isa. 66:13

The Lord's people, having embraced the truth, find themselves beset on every hand with oppositions from the Evil One and his servants; and were it not that they have the comfort and consolation of the Scriptures, and the joy and peace which the world can neither give nor take away, theirs would be a sad lot indeed. But under conditions, as the Lord has arranged them, it is their privilege, even while suffering the loss of earthly things for righteousness' sake, to rejoice in tribulation, and in everything give thanks. What is the secret of this rejoicing in tribulation? Whence comes so great comfort as this? We answer, it comes through the comfort of the Scriptures, made luminous by the holy Spirit.

5월 9일

예레미야 33:3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지난 시대의 많은 예언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밝혀진 진리의 빛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느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과거 역사와 미래 계시의 모든 세부 점을 포함하며, 완전하여, 부족하거나 어긋나는 점이 없고, 하느님의 공의, 지혜, 능력, 사랑과 완벽하게 부합하며, 하느님의 말씀(성서)의 모든 문구와 일치하며, 단지 이치적인 계획인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이기에, 다른 모든 이론과 계획은 하느님의 계획과 비교하면 결점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고, 하느님의 속성 및 말씀과 조화되지 못합니다. 시대들에 관련한 계획에 관하여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임을 인식합니다.

MAY 9

"Call unto Me, and I will answer thee, and show thee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Jer. 33:3

To us it is given to know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which many prophets and many righteous persons of the past were not privileged to see. Thank God for the light of present truth! Now we can see a plan of God -- a plan which covers every detail of history past, and of revelation future; a plan that is complete, lacking and disjointed at no part; a plan that is in strictest conformity with Divine Justice, Wisdom, Power and Love, and with every text of the Divine Word; and which thus proves itself to be not only a reasonable plan, but the plan of God, in comparison with which all other

theories and plans are defective and evidently erroneous, out of harmony with the Divine attributes and with the Divine Word. Those who have come to an understanding of the Plan of the Ages recognize it as of Divine and not of human origination.

5월 10일

시편 23:5 내 머리에 기름을 부르시니, 내 잔이 가득 찹니다.

흘러내릴 정도로 가득 찬 잔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잔과 슬픔의 잔인데, 양쪽의 의미에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슬픔의 잔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참여하려면, 고통도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시점에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 할 수 있으며, 환난이 넘칠 때에 기쁨도 넘쳐흐르고, 사도와 같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MAY 10

Thou anointest my head with oil, my cup runneth over. Psalm 23:5

THE fullness of the cup, running over, has a double significance. It is a cup of joy and a cup of sorrow, and in both respects it overflows. He who would partake of the joys of the Lord must also partake of His cup of suffering; we must suffer with Him if we would reign with Him. But we coun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ies that shall be revealed in us, and hence we are enabled to rejoice in tribulation, so that as the tribulations will overflow the rejoicing likewise overflows, and with the apostle we can say, Rejoice, and again I say Rejoice!

5월 11일

시편 44:22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각각이지만 하나의 희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희생은 매일같이, 주와 주의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기회를 선용함으로써 바쳐집니다. 그것들은 비록 조그만 희생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어떤 것은 너무 초라해서 언급하거나 생각해내기도 힘들지만, 우리가 주의 가족으로 편입되기 시작할 때 하였던 하나의 희생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모든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남겨둔다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주께 헌신한 그 모두를 뒤로 숨기는 것입니다.

MAY 11

For Thy sake we are killed all the day long; we are counted as sheep for the slaughter.
Psalm 44:22

WE are to remember that we have each but one sacrifice; that it is to be rendered to the Lord day by day in the improvement of every opportunity as it comes to us, to serve Him and His. We are to remember that while it consists of many little sacrifices, some of them too small to mention or even to consider, nevertheless it will require all of these to complete the one sacrifice which we made at the beginning of our induction into His family. When we gave our wills, we gave our all; and any holding back in any of the little affairs of life --any refusal to sacrifice that which we think would please the Lord--is a keeping back of that much of what we have devoted to Him

5월 12일

고린도 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왕 겸 제사장 신분의 구성원이 될 전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의, 배신, 위선, 시기, 험담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극복해야 할 이러한 육체적 약점들 중 일부를, 전부는 아닐지라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특히 제사장 직분을 맡기 시작할 때 그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기 위해 주의 깊게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행동, 말, 생각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그러한 행동, 말, 생각의 근본이 되는 동기까지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것들이 세상 적 더러움으로부터 점점 깨끗케 되어, 하느님께 더욱 받아들여질 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MAY 12

Having therefore these promises, dearly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filthiness of the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the Lord. 2
Corinthians 7:1

HOW many of the prospective members of the Royal Priesthood find that they have defilements along this line, malice, guile, hypocrisy, envy, evil speaking! It is safe to say that every one has some, if not all, of these weaknesses in the flesh to contend with-- especially at the beginning of his entrance upon the priestly vocation. How carefully all should seek to put all these away! How each should scrutinize not only every act of life and every word and every thought, but, additionally, every motive underlying his words, thoughts and actions, so that they may be more and more purified from the earth defilements and be more and more acceptable to the Lord.

5월 13일

사무엘상 15:22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보다 나으니”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며,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의 타당함을 때와 상황에 따라 변경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다고 잠시나마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고착합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면서 결코 멈추시거나 잠들지 않으시고, 절대 오류가 없으시고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를 둔다면, 하느님은 우리의 복종의 결과로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MAY 13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o hearken than the fat of rams. 1 Samuel 15:22

OUR heavenly Father wishes us to be very attentive to His Word, and not to think for a moment that we can improve thereon, or that times and circumstances will alter the propriety of our obedience to Him....Let us hearken to the Word of the Lord and keep close to it, not fearing the results, but having faith that He who keeps us never slumbers nor sleeps, and is too wise to err, as well as competent to meet every emergency that could possibly come upon us as a result of our obedience.

5월 14일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엇이 자비 가운데서 자랍니다? 그것은 주와의 개인적 친밀과 영을 함께하는 우정을 통해 주의 호의를 얻음으로써 자랍니다... 그렇게 자비 가운데서는 자라지만, 지식 가운데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친교의 주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완전한 지식에 이르고 주와 더욱 친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에 더욱 친밀해지고, 그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동역자로서의 특권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 복종하며 그의 호의 가운데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주의 기록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연구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게 됩니다.

MAY 14

Speaking the truth in love,...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Ephesians 4:15

WHAT is it to grow in grace? It is to grow in favor with the Lord through an intimate personal acquaintance and fellowship of spirit with Him...To grow thus in grace and not grow in knowledge is impossible; for the very object of such communion is to build us up in a more perfect knowledge and acquaintance with the Lord--to bring us into closer fellowship with the divine plan, and to give us the privilege of being "workers together with Him" in executing that plan. If, therefore, we love and obey the Lord and desire to grow in His favor, His written Word is our daily meditation and study; and thus we grow in knowledge.

5월 15일

하박국 3:17, 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므로, 이세상은 그 악행의 자연적 보응으로 쓰라린 경험을 함으로써 교훈을 얻게 됨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에게도 악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그럼으로써 성도들을 시험하고, 단련하고, 강화시켜, 하느님께서 충실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훌륭한 것들을 상속하도록 준비시키고, 이기는 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MAY 15

Although the fig tree shall not blossom, neither shall fruit be in the vines; the labor of the olive shall fail, and the fields shall yield no meat: the flock shall be cut off from the fold, and there shall be no herd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joy in the God of my salvation. Habakkuk 3:17,18

WE see that God permits evil in the world that the world may learn certain lessons of bitter experience as to the natural rewards of evil doing, but we see also a ministry of evil in respect to the saints--in their testing and polishing and refining; making them ready, and proving them worthy, as overcomers, to inherit the wonderful things which God has in reservation for the faithful.

5월 16일

이사야 62:2,3 “...너는 여호와와 입을 정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우리는 “독특한 백성”으로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큰 조직으로 부터는 물론, 세상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높은 희망과 목표, 야망 및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을 갖고, 이전의 어둠에서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이나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분리되면, 그들이 우리와 조화되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반대하여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MAY 16

...Thou shalt be called by a new name,...thou shalt also be a crown of glory in the hand of the Lord, and a royal diadem in the hand of thy God. Isaiah 62:2,3

LET us never forget that we are a "peculiar people," separate from the great body of nominal Christians, as well as from the world, having higher hopes, aims and ambitions and favored with a clearer insight into the deep things of God, having been called out of our former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nd if thus separate from the world and from Christians who partake largely of the worldly spirit, what wonder if we find them all out of harmony with us, and either ignoring or opposing us.

5월 17일

요한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 할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오늘날의 박해는 이전 시대에 비해서 더욱 교묘합니다. 오늘날의 충실한 자들은 문자적으로 돌로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머리를 베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에게 “더욱 아픈 말로써” 화살을 쏘며, 많은 사람들이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책망 받거나, 중상 당하거나 제명처분 당 합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 때문에 목 베임 당함” . 그러한 일들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인 스테반의 경우에 필적합니다. 그들은 스테반 처럼 빛나는 얼굴로 증거 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은 그들의 옹호자이자 구원자로서 지고의 장엄하신분의 오른편 손에 계신 예수를 인식합니다. 그들의 말은 스테반의 것처럼 온화하고, 그들에게 진실 되고, 그에 관해 쓰여 진 것처럼, “자비와 능력이 가득하고” , “성령으로 충만” 합니다.

MAY 17

They sha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s: yea, the time cometh that whosoever killeth you will think that he doeth God service. John 16:2

THE persecutions of today are more refined than in any previous period. The faithful today are not stoned with literal stones or shot with literal arrows or literally beheaded, but it is still true that the wicked shoot out arrows at the righteous, "even bitter words," and many because of faithfulness are reprov'd and slandered and cut off from fellowship--"beheaded for the testimony of Jesus." Let all such emulate Stephen, the first Christian martyr. Let their testimonies be given with radiant faces like his. Let their eyes of faith perceive Jesus at the right hand of the Majesty on High as their Advocate and Deliverer. Let their words be with moderation as were Stephen's, and let it be true of them, as written of him, "full of grace and power"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5월 18일

히브리서 4:3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주안에서 우리의 안식은 주안에서 우리의 믿음처럼 완전합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은 온전히 안식하며,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안식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이상적 상태는 완전한 안식을 얻는 것이며, 완전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의 일에서, 또 다른 더 완전한 안식--완전한 상태의 실제적 안식--을 위해 기다리고 힘쓰는 것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육적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 4:9-11)

MAY 18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Hebrews 4:3

OUR rest in the Lord is as complete as is our belief in Him. He who believes fully rests fully; he who believes only partially rests but partially. The ideal condition of the spiritual Israelite is the attainment of a perfect rest, a perfect Sabbath-keeping, in his present experience, and a waiting and laboring for another and still more complete rest--the actual rest of the perfected condition--the rest that remains for the people of God. "Let us therefore labor to enter into that rest [Sabbath], lest any man fall after the same example of unbelief" [of fleshly Israel].-- Hebrews 4:9-11.

5월 19일

로마 15:1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개인적 권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위해서 희생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랄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그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의 지상 권리와 특권을 희생함으로, 분명히 우리 주 예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에 훌륭한 모범이 됩니다.

MAY 19

We that are strong ought to bear the infirmities of the weak, and not to please ourselves. Romans 15:1

PRINCIPLES may never be abandoned for any consideration; but liberties and personal rights may be ignored in the interest of others frequently and to divine pleasing. The Apostle Paul was ready to go to any length in defense of principle (Galatians 2:5,11), but in the sacrifice of his earthly rights and privileges and liberties for the sake of Christ and the church, the apostle evidently came next to our Lord Jesus, and is a noble example to all the church.

5월 20일

디도 2:14 “~선한 일에 열심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하심이니라”

“친(독특한) 백성”은 의복이나 격식이나 언어나 어리석고 지각없는 외모 및 개성과 같은 면에서 독특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세상의 영으로부터 분리된다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주께 전적인 헌신을 하고, 세상과 그 이기적 목적으로부터 분리된 영--을 가집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법으로서 주의 말씀에 고착하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상충하는 세상 적 지혜를 배척하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확고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에 일치하게, 열렬히, 행하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기희생적이며 그들의 왕의 뜻이 아닌 다른 이의 뜻은 모른다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단지 추측하고 감탄하고 의심만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품고 있는 희망의 이유를 제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독특합니다.

MAY 20

A peculiar people, zealous of good works. Titus 2:14

A "peculiar people,"--not peculiar in dress, nor in manners, nor in language, nor in foolish, senseless forms and idiosyncrasies; but peculiar in that it is separate from the world and the spirit of the world. It has the Spirit of Christ--a spirit of full consecration to the Lord, and separateness from the world and its selfish aims. It is peculiar in its adherence to the Word of the Lord as its only law. It is peculiar in that it rejects worldly wisdom when it conflicts with the divine revelation. It is peculiar in that it is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It is peculiar in that it has a decided faith and acts in harmony with its faith, and with zeal. It is peculiar in that it is self-sacrificing and knows no will but the will of its King. It is peculiar in that it knows the Truth and is able to give a reason for the hope within while others merely speculate and wonder and doubt.

5월 21일

디모테 후 3:16, 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령의 자비와 우리가 이미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증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룩한 것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였고, 구약성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와 그의 영감 받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참 지혜를 위하여 다른 통로를 찾는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MAY 21

All Scripture, given by inspiration of Go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o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2 Timothy 3:16,17

IT will be well for us all to remember that all the graces of the Spirit, all the progress in the knowledge of divine things to which we have already attained, that may have helped us nearer to God and to holiness, have come to us through the Scriptures of the Old Testament and through the words of our Lord and His inspired apostles: nor will it ever be necessary to go to other channels for the true wisdom which would prepare us for the salvation promised.

5월 22 일

디모데 후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주의 백성에게 주어진 주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그 반대로 능력 있고, 활력 있고, 사랑으로 일깨움 받은 열정 있는 영입니다;—하느님께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느님께 봉사하는 영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느님의 백성에 대하여 사랑으로 헌신하고, 거룩한 것에서 그들을 세워주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영입니다.... “근신하는(건전한) 마음”의 영은, 모든 경우에 주의 말씀으로 굳건해지고 강화되는 마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별된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의 활력을 사용키 위한 시간과 때와 방법을 현명하게 판단합니다.

MAY 22

God hath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bu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2 Timothy 1:7

THE spirit of the Lord imparted to His people is not a spirit of fear, but on the contrary a spirit of power, energy, zeal awakened by love;—loving devotion to God, and a desire to please and serve Him; loving devotion to the Truth, and a loving devotion to God's

people and a desire to build them up in holy things, and to do good unto all men as we have opportunity,... a spirit of a "sound mind;" a mind that is fortified and strengthened by the Word of the Lord on every subject, and hence, while thoroughly fearless of man, is wise in judging of times, seasons and methods for using the energy of love which burns as a fire within the consecrated heart.

5월 23일

요한 13:14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은 서로간의 복지를 위해 서로 돌아보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하면서, 현 악한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극복하기위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 육체, 악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가지 근원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자비--온화함, 인내, 관용, 친절, 사랑--를 계발하여야만 우리는 이러한 성품을 옷 입고, 생활을 정결케 하며, 이 세상과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에서 특별히 남을 도울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MAY 23

Ye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 John 13:14

THIS would signify that the members of Christ's body should have a mutual watch-care over one another's welfare; to keep each other clean, holy, pure, and to assist one another in overcoming the trials and temptations and besetments of this present evil world, arising from the three sources of temptation,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Only as we cultivate the various graces of the spirit,--meekness, patience, gentleness, brotherly kindness, love--can we hope to be specially helpful to others in putting on these adornments of character and purities of life, and to get rid of defilements of the world, and the flesh.

5월 24일

고린도 전 13:5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타락하기 쉬운 자연적 경향, 유전 받은 기질, 신경쇠약 등의 요인으로 짜증이 나거나, 말이 없어지거나, 까다로워지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은 육에서 악을 행하려고 하는 성향을 억누르고, 그것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이겨 나가야합니다.

타락한 성품이 향하는 모든 길은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육체와 악귀의 일과 마찬가지로 옛 성품을 극복하는 것이 새 성품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의 힘을 이것보다 더 잘 나타내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자비가 성장하여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상냥한_기질을 배양하게 합니다.

MAY 24

Love...is not easily provoked. 1 Corinthians 13:5

HOWEVER natural depravity, and heredity, and nervous disorders may tend toward the spirit of fretfulness, taciturnity, and touchiness, every heart filled with the Lord's Spirit must oppose this disposition to evil in his flesh, and must wage a good warfare against it. It will not do to say, "It is my way;" for all the ways of the fallen nature are bad: it is the business of the new nature to overcome the old nature in this as well as other works of the flesh and the devil: and few show to our friends and households more than this of the power of the grace of Love. This grace as it grows should make every child of God sweet-tempered.

5월 25일

로마 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결코 악한 언어나 수단을 사용하거나 악한 품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적과 연합하는 것이며, 그의 수단이나 방법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주인의 그것 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비방을 비방으로, 악담을 악담으로, 중상을 중상으로, 박해를 박해로, 타격을 타격으로, 등등 이와 같은 모든 방식으로 되갚는 것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자연스레 행해지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피하고, 새 성품을 더욱 철저히 발전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대적에게 그릇 인도되어 이러한 것에서 그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악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MAY 25

Be not overcome of evil. Romans 12:21

WE are never to take up or to use evil words or methods or manners. To do so is temporarily to join the enemy, or to admit that his implements and methods are better

than those of the Captain to whom we belong. To answer anger with anger, evil report with evil report, bitter words with bitter words, slander with slander, persecution with persecution, blow with blow, or any of these, would be to endeavor to overcome evil with evil. This, which is natural to our fallen natures, is what we are commanded to avoid, that we may the more thoroughly cultivate the new nature. To be misled by the adversary to use his methods in any of these ways is to be overcome of evil.

5월 26일

고린도 전 8:1 “~지식은 교만하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하느님의 계획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특히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주와 그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영예는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의 자비가 충만해야함도 함께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인도하거나, 주의 대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을 포함한 성령의 모든 자비를 발전시켜야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자비(사랑)가 지식과 결합되어, 자신과 아울러 그가 봉사하는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MAY 26

Knowledge puffeth up, but love buildeth up. 1 Corinthians 8:1

ALL who seek to teach the divine plan to others are exposed to peculiar temptations, so that the honor of serving the Lord and His people demands a correspondingly larger measure of the graces of the Holy Spirit, as well as of knowledge....Whoever, therefore, would be an instructor of others, a mouth-piece of the Lord, should cultivate all the various graces of the Holy Spirit, including meekness; that these combined (Love) with knowledge, may build up himself as well as build up those to whom he ministers.

5월 27일

빌립보 2:3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바울은 모든 사람이 겸손의 덕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든 일에서 각자가 “어떤 일도 싸움이나 헛된 영광을 위하여 하지 말며”, 자화자찬이나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과 교회의 축복에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하여 제거되어야만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각자는 동료 성원의 좋은 점을 보아야하고, 이러한 면에서는 적어도 동료가 자신보다 낫다는 점을 인식할 줄 아는 겸손한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재능과 모든 능력이 어느 회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만 기대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를

낮추는 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자신 보다 우월한 면을 보고서, 이를 인식함으로 즐거워하며 그러한 사람을 합당하게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MAY 27

In lowliness of mind let each esteem other better than themselves. Philippians 2:3

PAUL exhorts that all shall cultivate the grace of humility, and that in every affair each shall take heed that "nothing be done through strife or vain glory," that self-laudation and strivings for pre-eminence be thoroughly put away as the greatest enemies to the Spirit of the Lord and the blessing of the church. On the contrary, each should have that lowliness of mind which can see the good qualities of fellow members and appreciate some of these qualities at least as superior to his own. All the talents, and all the abilities, need never be expected in any one person in any congregation. So, then, each may, if he be of lowly mind, see in others certain good qualities or graces superior to his own, and should delight to recognize these and to esteem their possessor accordingly.

5월 28일

고린도 후 5:6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우리가 현재 상황--우리 자신과 주변상황--에 완전히 만족 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느님과 가까이서 생활한다면, 현재의 성취나 상황 등등에 완전한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순례자나 나그네처럼, “하느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더 나은 쉼과, 더 나은 집을 구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7절), 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기뻐하여), 차라리 집(몸)을 떠나(집 없는, 순례자와 지상의 나그네), 친구의 영으로서 주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MAY 28

Therefore we are always confident, knowing that, whilst we are at home in the body [so long as we feel entirely contented with present conditions --ourselves and our surroundings], we are absent from the Lord. 2 Corinthians 5:6

IF we were living near to Him, "walking with God," we would not feel perfectly satisfied with present attainments, conditions, etc.; but would feel like pilgrims and strangers,

seeking a better rest, a better home, "which God hath in reservation for them that love Him." But this, as the apostle explains (verse 7), is true only of those who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But we are confident [full of faith toward God, we rejoice to walk by faith], and are well pleased rather to be from home [homeless, pilgrims and strangers on the earth], and to be at home with the Lord" in the spirit of our fellowship.

5월 29일

요한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과 육체와 악을 이길수록, 더욱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힘쓰고, 더욱더 우리의 친애하는 대속자와의 친교를 구하며, 더욱더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도 우리에게서 빼앗지 못할, 더욱더 많은 기쁨과 평화를 얻게 되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는 단지 우리를 더욱더 향기롭고 소중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 16:22

MAY 29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unto you:...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John 14:27

THE more we overcome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the more we seek to do the will of 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e more we seek for the fellowship and communion of our dear Redeemer, the more we seek to do those things which are pleasing in His sight, so much the more will we have of the joy and peace which no man taketh from us, and which trials, difficulties and persecutions can only make the more sweet and precious. "Ye now therefore have sorrow;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r heart shall rejoice, and your joy no man taketh from you."--John 16:22

5월 30일

로마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이 치루는 큰 전쟁의 주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성품의 타고난 성향과 싸워야하며, 담대하게 구원자이며 위대한 지도자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침이나 부의 기만적인 영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역경에 억눌려 좌절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시련 때문에 성품이 까다롭거나 완고해지거나, 침울해지거나, 무뚝뚝해지거나, 냉소적이거나, 불친절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만심이나 겉치레나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며, 주의 종으로서의 충실함을 시험키 위하여 주께서 마련하신 현재의 좋은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성장해야 합니다.

MAY 30

Rejoicing in hope, patient in tribulation. Romans 12:12

HERE is an important part of the great battle of the Christian's life. He must fight the natural tendencies of the old nature and confidently anticipate the victory in the strength of the great Captain of his Salvation. He must not succumb to the flattering and deceptive influences of prosperity, nor faint under the burdens of adversity. He must not allow the trials of life to sour and harden his disposition, to make him morose, or surly, or bitter, or unkind. Nor may he allow pride or ostentation or self-righteousness to grow and feed upon the temporal good things which the Lord's providence has granted him to test his faithfulness as a steward.

5월 31일

로마 14:21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주의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랑의 법과 주의 명령을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마태 18:6), 그러나 주의 형제들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그들이 형제 또는 믿음의 가족이 되지 못하게 막는다면, 주께서 보시기에는 역시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식이 양심의 모든 금지사항과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줄지는 몰라도, 사랑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행사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아야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 합니다---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지식이나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여금 모든 의문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십시오.

MAY 31

It is good neither to eat flesh, nor to drink wine, nor anything whereby thy brother stumbleth, or is offended, or is made weak. Romans 14:21

IT is a very serious crime against the law of love and against the Lord's injunction, to cause one of His brethren to stumble (Matthew 18:6), but it would also be a crime in His sight for us to stumble others,--to hinder them from becoming brethren, and of the household of faith. Hence, it is clear that although knowledge might remove all prohibition of our consciences and all restraints of our liberty, yet love must first come in and approve the liberty before we can exercise it. Love places a firm command upon us, saying, --Thou shalt love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and thy neighbor as thyself. Love, therefore, and not knowledge, not liberty, must finally decide every question

6월 1일

요한 14: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यो,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와 우정을 나눔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더욱더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세상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 자신을 저에게 생생하고, 분명한 실체로 보여 주십시오! 제 믿음의 시각을 예민하게 해 주심으로서, 지상의 어떠한 사물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 주시고; 지상의 어떤 달콤한 연인보다도 더 소중하고,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 되어주십시오”

JUNE 1

He that hath My commandments, and keepeth them, he it is that loveth Me: and he that loveth Me shall be loved of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manifest Myself to him. John 14:21

MAY this intimate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Christ impart to us each more and more of His own Spirit, so that the world may take knowledge of us, that we have "been with Jesus;" and let the prayer of each be, "Lord Jesus, make Thyself to me A living, bright reality! More real to faith's vision keen, Than any earthly object seen; More dear, more intimately nigh, Than e'en the sweetest earthly tie."

6월 2일

고린도 전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별한 사람으로서 “이 복음” 외의 다른 것들에 시간과 관심을 쏟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아끼고 열심을 나타내도록 권고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아무리 흥미로워도,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 버리고, 우리 자신은 모든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들을 하도록 합시다. 종종 목격하는 것처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진리와 유일한 복음을 위한 봉사를 그만 두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길(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우리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한 길에서 큰 장애물에 부딪칩니다.

JUNE 2

I am determined not to know anything among you, save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1 Cor. 2:2

OUR observation of those consecrated ones who have permitted other themes than "this gospel" to engross time and attention leads us to advise such to be very jealous in husbanding time and talent for the ministry of the gospel, leaving all other subjects, however interesting, to others now, and to the future life for ourselves, when all knowledge shall be ours. Those who for any avoidable cause turn aside from the ministry of the true and only gospel, we have invariably observed, are quickly turned out of the way or greatly hindered in their course toward "the prize of our high calling."

6월 3일

시편 19:1-4 “하늘이 하느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의 장엄함은 밤낮으로 우리의 찬양과 송배를 이끌어 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신성하고 공경하는 헌신의 영을 불러일으킵니다. 소리 없는 활동, 하느님의 법에 완전한 복종, 하늘의 무리들의 축복받은 광채 등은 우리에게 완전한 교훈 점을 인식시켜줍니다--소란이나 걸치레 없이; 모든 일들을 훌륭하게 하시고, 한 점의 오류가 없으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며; 우리에게 빛 비취 주심으로서 우리 역시 모든 관찰자에게 빛 비추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JUNE 3

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and the firmament showeth His handiwork. Day unto day uttereth speech, and night unto night showeth knowledge. There is no speech, there are no words, their voice is not heard; but their melody extendeth through all the earth, and to the end of the world their words. Psalm 19:1-4 (Leeser)

THE magnificent pageantry of the heavens daily and nightly should elicit our praise and adoration, and should inspire in our hearts holy and reverent devotion. Let the noiseless activity, the perfect obedience to divine law, and the blessed shining of the heavenly hosts, impress their wholesome lessons upon us--of zealous activity without commotion or ostentation; of perfect obedience to the will of Him who doeth all things well, who is too wise to err and too good to be unkind; and of letting the glory of the Lord which has illuminated us shine from us in turn upon every beholder.

6월 4일

베드로 전 1:7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함이라”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평온한 날에는, 태양의 빛이 밝게 비칠 때에는, 그리스도인 성품의 상부구조를 구축하면서, 진리에 관한 지식의 기초를 조용히 다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험 받기위해 용광로에 들어 왔습니다: 모든 용기를 다 내십시오; 인내심을 강화 하십시오; 오래 참기위해 애 쓰십시오; 희망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느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계속 여러분의 것으로 간직 하십시오; 그리고 “큰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평온함과 확신은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주께 의뢰하고 참을성 있게 주를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승리할 것입니다.

JUNE 4

That the trial of your faith, being much more precious than of gold that perisheth, though it be tried with fire, might be found unto praise and honor and glory at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1 Peter 1:7

IT is your faith that is on trial now. In the calmer days, when the sun of favor shone brightly upon you, you were quietly laying the foundation of a knowledge of the Truth,

and rearing the superstructure of Christian character. Now you are in the furnace to be proved: summon therefore all your courage; fortify your patience; nerve yourself to endurance; hold fast to your hope; call to mind the promises, they are still yours; and "cast not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th great recompense of reward." "In quietness and confidence shall be your strength." "Rest in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and faith has gained her victory.

6월 5일

시편 31:1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들 앞에서 가장 불리한 것은, 잠시라도, 믿음의 닻을 놓치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암흑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얼굴의 광채를 볼 수 없으며; 그 닻을 다시 붙잡더라도, 암흑의 힘이 그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공격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의 인간 불완전성 때문이며, 그 불완전성은 그리스도의 의의 겹옷으로만 덮어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합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려면, 결코 우리의 닻이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되며,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 우리가 용기를 잃지도 말아야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느님을 신뢰하리라.”

JUNE 5

In Thee, O Lord, do I put my trust. Psalm 31:1

THERE is nothing that puts the Christian at greater disadvantage in the presence of his foes than for him to let go, even temporarily, his grip upon the anchor of faith. Let him do so for a moment, and of necessity darkness begins to gather round him: he cannot see the brightness of his Father's face, for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and while he grapples again for the anchor, the powers of darkness fiercely assail him with doubts and fears, based generally upon his human imperfections, which he should ever bear in mind are covered by the robe of Christ's righteousness. If we would have the peace of God reign in our hearts, we must never let go our anchor, "nor suffer Satan's deadliest strife to beat our courage down." The language of our hearts should always be, "Though he slay me, yet will I trust Him."

6월 6일

누가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막중한 일을 인식할 때, 우리는 술 취하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우리의 육체에 밀착해 있는 강력한 적과의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외부의 적도 강력하지만, 내부의 적과의 싸움은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에 약간이라도 취한다면;--자만심, 안락함이나 쾌락에 대한 사랑, 질투, 악의, 자존심, 허영, 자기자랑, 성급함, 거만함, 증오심, 분쟁과 같은 옛 성품에 조금이라도 빠진다면-- 우리는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JUNE 6

Take heed to yourselves, lest at any time your hearts be overcharged with surfeiting, and drunkenness, and cares of this life. Luke 21:34

WHAT a work we realize to be before us, and what necessity for sobriety, vigilance, steadfastness! It is a life work, a life battle against a mighty foe entrenched in our flesh. The powers without are strong indeed, but the civil war within is by far the most to be dreaded. If we become in any measure intoxicated with the spirit of the world;--if we give way to self-gratification, love of ease, pleasure, a little indulgence of any of the old dispositions of envy, malice, pride, vain-glory, vaunting of self, headiness, highmindedness, wrath, strife, or any such thing--even a little, Oh, how great is the peril to which we are exposed!

6월 7일

베드로 전 5:10 “모든 은혜의 하느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간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훌륭한 용사로서 어려움을 인내함으로써만 이러한 바람직한 성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한 자제, 악을 저항하는 능력, 굳건한 믿음, 인내, 덕, 그리스도 안에서의 뿌리 깊고 영속적인 안식 및 주의 약속을 통한 희망 등입니다. 의문의 여지없이 이것은 주께 대한 봉사에서 늙어 감에 따라 사도가 겪은 경험이지만, 우리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세월이 감에 따라 영광스러운 완전성의 정상에 점점 가까워지도록 합시다.

JUNE 7

The God of all grace, who hath called us unto His eternal glory by Christ Jesus, after that ye have suffered a while, make you perfect, stablish, strengthen, settle you. 1 Peter 5:10

IT is only through endurance of hardness as good soldiers of Christ that this desirable condition can be attained--viz., perfect self-control and ability to resist evil, established faith, patience and virtue, settled, abiding rest in Christ, and hope through His word of promise. This undoubtedly was the apostle's own experience as he grew old in the Master's service, and so may it be ours. Let each departing year find us nearer the glorious summit of perfection.

6월 8일

야고보 5:20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 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금지된 행로나 죄의 길로 걷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우리가 그 행로를 따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옳은 행로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의 교리와 가르침에 빠져 있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성서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면, 그를 구출해 내기 위해 그러한 교리들을 탐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서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가르침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바친 시간을 오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밝혀진 오류에 시간낭비 하는 것은, 양심과 원칙을 범하는 모든 것이 위험한 것처럼, 옳지 않거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JUNE 8

He which converteth the sinner from the error of his way shall save a soul from death, and shall hide a multitude of sins. James 5:20

WHEN we see others walking in forbidden paths, in the way of transgressors, we are not to follow them there in order to help them out; but to show them the right path by keeping in it and calling to them. When we see some confusing themselves with doctrines and teachings of men, which we know are fundamentally wrong, we are not to wade through those doctrines in order to help them out; but we are to remind them that the study of any doctrine which will not square with the foundation is not only a misuse

of consecrated time, but that all trifling with that which we know to be error is wrong and dangerous, as all violations of conscience and principle are dangerous.

6월 9일

요한 16:33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 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느님의 충실한 자들에게는 지상에서의 변영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궁핍과 박해를 경험하며, 죽기까지 합니다... 그는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 이셨습니다; 하느님을 비난하던 자들의 비난이 그에게로 퍼 부어졌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고 말씀 하셨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를 박해하였다면 우리도 역시 박해할 것입니다; 주를 비난하였던 그 비난이 우리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현재의 보상은 주의 사랑과 승인을 마음 깊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JUNE 9

In the world ye shall have tribulation: but be of good cheer;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THERE was no reward of earthly prosperity for the Lord's faithfulness, but the reverse--privation and persecution were realized, even unto death....He was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the reproaches of them that reproached God fell upon Him; though He was rich, for our sakes He became poor; so poor that He said, "The foxes have holes, and the birds of the air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th not where to lay His head."...And the servant is not above his Lord: if they have persecuted Him they will persecute us also; and the reproaches of them that reproached Him will also fall upon us. The only present reward for which the followers of Christ may look is the heartfelt manifestation of the Lord's love and approval.

6월 10일

누가 11:1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께 받아드려 질수 있는 기도는, 확신하는 믿음과, 사랑에 찬 존중과 외경심,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공감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복종, 하느님께 대한

천진난만한 의뢰심, 우리의 죄와 결점에 대한 인정과 아울러 용서를 구하는 것들과 같은 태도를 나타내야하며, 겸손하게 하느님의 지도와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항상 말로써 전부 표현되어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정신 상태는 그러하여야 합니다.

JUNE 10

Lord, teach us to pray. Luke 11:1

IN brief, our prayers, to be acceptable to God, must express confident faith, loving esteem and reverence, full sympathy with the divine plan and submission to the divine will, childlike dependence upon God, acknowledgment of sins and shortcomings and desire for forgiveness, with humble craving for the divine guidance and protection. These may not always all be expressed in words, but such must at least be the attitude of the soul.

6월 11일

빌립보 3: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할 만한 영적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영적으로 퇴보할 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본을 열렬히 따라하는 신실한 추종자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만족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완전하신 본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결점은 항상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결점들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결점들이 더욱 분명히 보여 질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하여 닮으며 성장하는 것을 실현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JUNE 11

Brethren, I count not myself to have apprehended. Phil. 3:13

IF any man consider that he has attained a satisfactory spiritual state, from that moment he may date the beginning of his spiritual decline. No present attainments can be satisfactory to a sincere follower of Christ who studiously endeavors to copy the perfect pattern. It is only when we turn our eyes away from Christ that self-complacency can be exercised; for in full view of the pattern our shortcomings are ever manifest. And if in pride of heart we do lose sight of them ourselves, they only become

the more manifest to others. Only in the realization of a continual growth into the likeness of Christ should the Christian find satisfaction.

6월 12일

빌립보 3:13 “오직 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목적이 단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시도하였다면, 분명히 실패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부르심 받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헌신하였으며, 그 목적을 위해 인생의 다른 모든 목표를 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를 통해 그가 선택한 행로는 상실, 궁핍, 고통, 염려, 박해와 계속되는 비방 등을 가져다주는 것인데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적의 단일함으로 인해, 그는 현생명의 좋은 것들을 즐기거나, 허상의 거품을 추구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JUNE 12

This one thing I do. Philippians 3:13

WE observe the Apostle's singleness of purpose-- "This one thing I do." He did not try to do several things: if he had, he would surely have failed. He devoted his life to the one purpose to which he was called, and to that end dropped every other aim in life. He did it, too, in view of the fact that all through the present life his chosen course would bring certain loss, privation, toil, care, persecution and continual reproach. In this singleness of purpose he was relieved of many temptations to turn aside to enjoy some of the good things of this present life, or to pursue some of its illusive bubbles.

6월 13일

시편 17:15 “~깎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 하리이다”

“우리의 숭고한 생각의 나래가 현생활의 하찮은 일들로부터 벗어나 솟구쳐 오르고, 칸막이 휘장을 뒤로하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봅시다.”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과거와 현재의 충실한 성도들에 관한 생각, 하늘의 상속재산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된 미래의 일, 하느님의 계획의 장엄함과 자비, 현생명의 일들이

끝났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광과 축복 등에 관한 생각들로 우리의 정신을 채우고 마음에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과 아울러,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숭배와 찬양을 위해 함께 모임으로써, 부가적인 위안과 하느님과의 개인적 화목과 친교를 갖는 축복을 받도록 합시다.

JUNE 13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with Thy likeness. Psalm 17:15

"Now let our thoughts on wings sublime Rise from the trivial cares of time, Draw back the parting veil, and see The glories of eternity."

LET thoughts of God and Christ and the worthy saints of the past and present, of the heavenly inheritance, of the blessedness of our future work in co-operation with Christ, of the magnitude and benevolence of the divine plan, and of the glory and blessedness of our gathering together unto Christ when our work of the present life is finished, fill our minds and inspire our hearts. And to these contemplations let us also receive the additional comfort and blessedness of personal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God through prayer and study of the Word and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for worship and praise.

6월 14 일

베드로 전 5:5 “하느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모든 것보다도 먼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겸손함을 간직합시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은 자로 볼 때에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모든 충절의 시험에서 리를 보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서 약간의 성공에 대한 격려로서, 오늘 주께서 당신을 조금 높여 주신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것 외에는 당신 자신을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고 암전하게 받아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훈련시키고 올바른 성품을 균형 잡기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내일의 굴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의 굴욕적 상황에서 어제의 성공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조심하십시오! 당신은 바람직한 수준의 영적 진보에 온전히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JUNE 14

God resisteth the proud, and giveth grace to the humble. 1 Peter 5:5

ABOVE almost everything else, beloved, let us guard well our humility. It is only when we are little in our own eyes that God can use us with safety to ourselves. And yet He does not shield us from every test of fidelity. If therefore the Lord give you a little exaltation today, a little encouragement of success in His service, receive it humbly, meekly, remembering your own unworthiness and insufficiency except as God is pleased to work through you; and be just as ready to receive the humiliations of tomorrow as necessary for your discipline and the proper balancing of your character. If the success of yesterday make you fret under the humiliation of today, beware! You are not as roundly developed spiritually as you should be.

6월 15일

이사야 55:3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은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이 하느님을 갈구하며, 하느님을 찾은 후에는 하느님께 헌신하고,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으며, 자신의 영으로써 하느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기름부음 받은 아들로써 자신 속에 있는 참 아들에 합당한 특성들-- 충성, 믿음, 열정, 활력, 용기, 분별력, 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은 주와 함께 영원한 계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될 반열입니다.

JUNE 15

And I will make an everlasting covenant with you, even the sure mercies of David.
Isaiah 55:3

ALL wh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whose souls thirst after God as the hart for the water-brook, and who, having found Him, have consecrated themselves to Him and received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witnessing with their spirits that they are the sons of God, and who as anointed sons can discover in themselves the worthy traits of true sons,-- loyalty, faithfulness, zeal, energy, courage, discretion, etc.,--these constitute the class with whom the Lord has made an everlasting covenant and to whom belong "the sure mercies of David."

6월 16 일

히브리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영혼이 애정 깊은 순종으로 순화되어 온화하게 말하기를, ‘나를 강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옛 성질의 찌꺼기가 점점 소멸됨에 따라 순금이 점점 분명하여 지고, 이 귀중한 영혼들은 그들의 사랑하는 주께 더욱 소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께 너무나 소중하므로 모든 고통 중에 주께서 가까이 계셔서 은혜로써 지탱해 주시고 함께 환호해 주십니다; 또한 슬픔의 깊은 그림자는 기억 속에서 가장 신성한 쉼터가 되어 그곳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JUNE 16

No chastening for the present seemeth to be joyous, but grievous: nevertheless afterward it yieldeth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unto them which are exercised thereby. Hebrews 12:11

IT is under such discipline that the soul is mellowed to a loving submission that calmly says, I can do all things, bear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eth me. As gradually the dross of the old nature is consumed, and the gold becomes more and more manifest, these precious souls become ever dearer to their loving Lord. So dear are they to Him that in every affliction He is near with His grace to sustain and His presence to cheer; and the deepest shades of sorrow become memory's most hallowed resting places, where the Day Star shines the brightest.

6월 17 일

말라기 3:2,3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케 하는 자 같이 앉아서~”

‘큰 연단하는 분’ 께서는 귀금속과 같은 당신의 성품이 그의 모습을 어떻게 반영하는 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또는, 쉽게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모든 시험 중에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위해 주시하시는데, 우리가 현생활의 이익이나, 세계적 정책, 개인적 우정, 육적 사랑--남편이나 아내, 자녀, 안락함 등에 대한 사랑 또는 값 비싼 평화에 대한 사랑--등의 지배를 받는지, 반대로, 진리와 의에 대한 순수한 원칙의 지배를 받고, 어떠한 노력이나 고통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열정과 힘을 다해 이러한 원칙을

지킴으로서, 고통의 끝까지--죽을 때 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 지를 살펴보십시오.

JUNE 17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eth? for He is like a refiner's fire,...and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Malachi 3:2,3

THE Great Refiner is watching to see how the precious metal of your character reflects His image. Or, in plain language, in every trial He watches to see what influences control our actions, whether they be influences of present advantage, or worldly policy, or personal friendship, or earthly loves--of husband, or wife, or children, or love of ease, or love of peace at any cost; or whether, on the other hand, we are controlled by the naked principles of truth and righteousness; and whether we will defend these principles with zeal and energy at any cost of labor or suffering, or both, and s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to the bitter end-- even unto death.

6월 18 일

시편 16:11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앞에 있다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주와의 친분을 더 증진시키며, 기도으로써, 주의 소중한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주의 모든 선하심과 돌보아 주시는 마련을 숙고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주의 은혜를 확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예가 되고 아멘이 되는’ 주의 소중한 약속을 확인함으로써 주께 가까이 다가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8);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을 당신에게 나타내시고 당신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하느님과 함께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의 특권을 모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JUNE 18

In Thy presence is fullness of joy; at Thy right hand there are pleasures for evermore.
Psalm 16:11

IN the Lord's presence, no matter where we are, is fullness of joy. Let us cultivate the Lord's acquaintance more, drawing near to Him in prayer, in the study of His precious

Word, in meditation upon all His goodness, His providential care, the marked manifestations of His grace in our own individual experiences, and His precious promises which are all yea and amen in Christ Jesus. Thus "draw nigh to God, and He will draw nigh to you" (James 4:8); He will manifest Himself to you and take up His abode with you. It is indeed the will of God that all His children should be happy in Him, that they should be always rejoicing; and if any one lack this blessing, he is living below his privileges.

6월 19 일

시편 97:11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진리에 대한 친근감이 있으므로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그 가치를 인식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것에 관해 묵상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느님과 같고,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선하심의 표현이며, 하느님의 사랑, 자비, 지혜와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와 그것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 합니다: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재삼재사 숙독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밀히 살피면서 그 모든 조화와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자신의 성품을 그것과 동일선 상의 아름다움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실로 진리를 칭송함으로써 그들도 역시 진리로 인하여 축복받게 됩니다.

JUNE 19

Light [Truth] is sown for the righteous, and gladness [the joys of the Truth] for the upright in heart. Psalm 97:11

THE true children of God love the Truth because they have an affinity for it....When they have found the Truth they recognize its value; they prize it, and meditate upon it....They say, It is just like God: it is the manifestation of His glorious goodness, the reflection of His loving, benevolent, wise and just character. And therefore they love the Truth and the God who gave it: they treasure it up in their hearts and con it over again and again; and as they look into it, and admire all its symmetry and beauty, they strive more and more to conform their own characters to the same lines of beauty and seek to commend it by word and conduct to others, that they also may be blessed by it.

6월 20일

요한1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과 벗하는 것은 세상의 이념에 따라 걷는 것이며, 세상의 행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치 않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고 그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행로는,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는, 어렵고 외로운 길이지만, 평화와 행복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그 정욕과 함께 급속히 사라져 갑니다: 그것은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결국에는 재앙과 패망으로 인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길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주와의 화목과 친교를 누립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근원으로부터 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며, 더 순수한 공기로 숨쉬며, 세상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더 고상하고 더 달콤한 우정을 즐깁니다.

JUNE 20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1 John 2:15

TO fellowship the world is to walk in harmony with its ideas and to conform to its ways. In this sense we may not love it, but must be apart from it and in opposition to it. The way thus pointed out to us is, in some respects at least, a difficult way, and a lonely way, but it is the only way of peace and happiness. This world with the lust thereof is rapidly passing away: it is hollow and unsatisfying and eventually leads to disaster and ruin; but those who delight in the Lord's way have blessed communion and fellowship with Him. Their joys come from a source which the world cannot comprehend. They live on a higher plane, breathe a purer atmosphere and enjoy a holier, sweeter friendship than the world could ever offer.

6월 21일

마태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진실로, 안식의 비밀은 온유하고 조용한 영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인내의 은혜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하느님의 뜻에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사랑과 돌봄과 지혜로우신 권고, 확고한 섭리 등을 꾸준히 신뢰하며, 결과를 상관치 않고 좋을 때나 고통을 때나 이러한 행로를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조용한 영을 모방하기를 더욱 힘쓰며,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가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고,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하며,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에 관해 배웁니다.

JUNE 21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of heart. Matthew 11:29

TRULY, in a meek and quiet spirit is the secret of rest. To be meek is to cultivate the graces of patience; of loving submission to the will of God; of abiding confidence in His love and care and in the wisdom of His guiding counsel and overruling providences; and to persistently pursue this course through evil and through good report, or through favorable or unfavorable circumstances. Let the beloved children of God seek more and more to copy Christ's meek and quiet Spirit, accepting the providences of God and obeying His precepts and leading as He did, armed with the strength which He alone can supply, and will, to those who take His yoke upon them, and learn of Him.

6월 22일

고린도 전 4:2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니라”

마태 25:15 “각각 그 재능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무게 단위인 ‘파운드’는 하느님의 모든 백성에게 동일한 하느님의 축복인 의인(의롭다함을 받음)을 적절히 상징합니다. 다른 재능들은 양적으로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들의 자생적 기회에 따라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예를 들면 말씀이나 성령입니다. 우리의 의인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예수로부터의 선물인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파운드’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종으로서의 공통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각자 자기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열정을 전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달란트’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고대의 무게 단위)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배분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재능에 따라 행해지는 하느님의 봉사에서의 기회를 상징합니다. 그것들은 교육, 금전, 영향력, 건강, 시간, 재치, 천부의 재능 등으로서 적절한 때에 하느님의 봉사에서 사용되어 집니다.

JUNE 22

It is required in stewards, that a man be found faithful....Every man according to his several ability. 1 Corinthians 4:2; Matthew 25:15

THE "pound," being the same to all, fitly represents that blessing of divine grace which is common to all God's people--Justification. Other endowments differ in quantity, according to our natural opportunities, and are generally of the Father,--for instance, the Word and the Spirit. Our justification while planned by the Father is a gift from Jesus, because He paid for it with His own precious blood. The one "pound" each places

all on a common footing as acceptable servants and permits each to show his zeal by his sacrificings. But the "talents," being distributed according to every man's ability, represent opportunities for the service of God along the lines of such abilities as we possess. They may be talents of education, or money, or influence, or good health, or time, or tact, or genius, with opportunities for their use in God's service.

6월 23일

마태 13:23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각기 다른 분량의 결실--30, 30, 100배 또는 10, 5파운드--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충실함 이라기보다는 극복되어야 할 장애의 정도차이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동안 근면하게 일하지만 결실은 적는데 반해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결실과 큰일을 더 지속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끄러지거나 때때로 퇴보하므로, 결국에는 회복하고, 용서받고 하느님의 호의를 관대하게 다시 받은 후에 근면과 인내로써 끝까지 달려가지만, 결코 다시 얻지 못할 시간과 기회를 상실합니다.

JUNE 23

He that received seed into the good ground is he that heareth the Word, and understandeth it; which also beareth fruit, and bringeth forth, some an hundredfold, some sixty, some thirty. Matthew 13:23

THE different measures of fruitage--the thirty, sixty, and hundred-fold, or the ten pounds and the five, mark differences in obstacles to be overcome, etc., rather than unfaithfulness in the use of the means of grace. Some may work long and diligently for small results, while the same effort in others of more resolute will and of greater continuity may accomplish great things. Some by slips and occasional backslidings, from which they subsequently recover, lose time and opportunities which can never be regained, although they are forgiven and generously reinstated in the divine favor, and thenceforth run with diligence and patience to the end.

6월 24일

로마 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주를 통해서 나타난 하느님의 뜻의 관점에서 비추어 보면, 우리들을 위한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을 읽을 때, 우리를 모든 고통과 시험과 고난에서 면제시키고, 안락한 꽃밭과 같은 영광으로 개선하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바로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와는 정 반대로, 하느님께서 보내 주신 분의 발걸음을 따르고자하면, 우리의 행로는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분(그리스도)의 몸 인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의 계획과 뜻에 관해 앞으로써, 우리는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하거나 요청하여서는 안 되며, 그것들은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영광으로 향하는 행로로 마련된 것임을 즉시 배울 것입니다.

JUNE 24

If children, then heirs; heirs of God, and joint-heirs with Christ, if so be that we suffer with Him, that we may be also glorified together. Romans 8:17

READING the Father's plans for ourselves, in the light of His will exemplified in His dealings with our Master, we may settle it at once that it is not His will to keep us from all pain and trial and sufferings, and to carry us triumphantly to glory on flowery beds of ease. Quite the reverse, indeed, must be our course if we would follow in the footsteps of Him whom God set forth to be, not only a satisfaction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but also a pattern to the church, which is His body. And this much learned of God's plan and will promptly teaches us that we must not expect and should not ask freedom from pain and trouble, which His wisdom has ordained to be the path to glory.

6월 25일

골로새 4: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모든 믿음의 시련과 인내는 약속된 구원을 바라는 기도를 할 기회가 됩니다. 승리를 얻지 못하는 모든 실패는 용서와 아울러 하느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의 기회가 되며, 우리 자신의 약함이 주는 교훈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다음에 유사한 시험에 처할 때에 즉시 적용하고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붙잡게 해줍니다. 자신을 극복한 모든 승리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뿔내지 않고, 겸손하고 주의 깊게 대적의 다음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기회입니다. 진리를 위한 모든 봉사는, 하느님의 대의명분을 위해 아마도 고통을 겪으면서, 크신 왕을 섬기는 특권에 대한 감사를 위한 기도의 기회가 되며; 더욱 많은 봉사의 기회와 그 기회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탄원할 명분이 됩니다.

JUNE 25

Continue in prayer, and watch in the same with thanksgiving. Colossians 4:2

EVERY trial of faith and patience is an occasion for prayer for the promised succor. Every failure to gain victory is an occasion for a prayer for forgiveness, and as well for divine blessing, that the lesson of our own weakness may be deeply impressed, so that in the next similar trial we may promptly apply for and lay hold upon the "grace to help" promised. Every victory over self is an occasion for prayer that we be not high minded and puffed up, but kept humble and watchful for the next attack from the great adversary. Every service for the Truth becomes an occasion for a prayer of thanks for the privilege of serving the Great King, and mayhap to have suffered something for His cause; and a reason for supplication for further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grace to use them wisely.

6월 26일

히브리 3:1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느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모두는 이 세상의 약함을 공감해야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그들이 왕국으로 높여졌을 때, 왕 겸 제사장으로서, 부드럽고 동정적이며 관대하게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시며 주인께서는 타락한 인류의 불완전성이 전혀 없으시고, 거룩하고, 악의가 없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시지만, 사람들의 질병과 약함을 취하실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고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주의 직분을 예비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이 주와 함께 고통을 겪고 주와 함께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래 제사장들에게는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전혀 이치적이지 않습니다.

JUNE 26

W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the heavenly calling, consider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profession, Christ Jesus. Hebrews 3:1

IT is God's will that every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should be touched with a feeling of the world's infirmities, in order that, when exalted to the Kingdom, they may be very tender, sympathetic and generous, when, as the Royal Priesthood, they shall judge the world. Our Lord and Master, who had none of the imperfections of the fallen race, but was holy, harmless and separate from sinners, needed to take from men their sicknesses and infirmities in order that He might be touched with a feeling of our

infirmities and be a faithful High Priest. It would be thoroughly illogical to suppose that the lessons necessary to the preparation of the High Priest for His office and service are not necessary to the underpriests who are called to suffer with Him and to reign with Him.

6월 27일

고린도 후 1:21, 22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새 창조물’의 인장 또는 표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다음과 같이 삼중으로 나타납니다. (1)하느님에 대한 지고의 사랑과 하느님의 대의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즐거이 충성함 (2)형제들에 대한 비이기적이고 고상하며 순수한 사랑과 형제들의 복지를 위한 열망으로 항상 형제들을 위한 일에 깨어 있음 (3)세상에 대한 사랑과 동정심으로, 기회가 되는대로, 선한 일을 장려하며, 모든 사람과 항상 평화롭게 살기위해 열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JUNE 27

Now He which stablisheth us with you in Christ, and hath anointed us, is God, who hath also sealed us. 2 Corinthians 1:21,22

THE seal or mark of the New Creature is the possession of the Spirit of Christ. The manifestations of this Holy Spirit are three-fold. (1) Love supreme to God and joyful loyalty to His cause even at the cost of suffering. (2) Love of the brethren--unselfish, noble, pure,--a desire for their welfare, which is always alert to do them good. (3) Love, sympathetic, for the world, prompting to good works, as opportunity may afford, and to a desire and effort always to live peaceably with all men.

6월 28일

잠언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자기_기만 보다 더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발전을 하는데 장애가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나 특히 하느님의 봉사에 있어서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을 방해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호의를 베푸신다” 라고 밝혀줍니다. 자기_신뢰가 아니라, ‘지혜’는 자기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며, 자신의 약함과 불완전함을 기억함으로써, 더욱

더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타락한 지체의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JUNE 28

Be not wise in thine own eyes: fear the Lord, and depart from evil. Proverbs 3:7

NOTHING is more dangerous to the child of God than self-conceit: it blocks the way to true progress and reformation of heart, and hinders true usefulness to others, and especially usefulness in God's service; for His Word declares, "God resisteth the proud, but showeth favor unto the humble." Instead of self-confidence, Wisdom dictates a distrustfulness of self, remembering its weaknesses and imperfections, and correspondingly the greater reverence for God and reliance upon Him, which more than anything else will strengthen and enable us to depart from the evil of our fallen estate

6월 29일

마태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행위나 말이나 생각이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과 관련한 의도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그 생각, 말, 행위에 있어서 완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어야 할, 우리 앞에 있는 표준은 하느님의 표준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 하라” (마태 5:48) 하느님께서서는 이 절대적 완전함 보다 더 낮은 표준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자비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그의 발걸음을 밟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좁은 길을 걷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발걸음입니다.

JUNE 29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Matthew 5:8

THE thought of "pure in heart" is not perfection of conduct, nor of word, nor of thought, but perfection of intention as respects all of these. Our desire and effort must be for perfection--in thought, word and deed. The standard before us, to which our hearts, wills, must give assent, is the divine standard, "Be ye perfect, as your Father in heaven is perfect." (Matthew 5:48) God has set no lower standard than this absolute perfection, but He has provided for us grace, mercy and peace through Christ, if we will walk in His footsteps,--this purity of heart being one of the essential steps in the narrow way.

6월 30일

마태 13:30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은 부족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느님께 바쳐졌습니다; 낮이라고 불리는 동안에 일해야 합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의 생명을 헌신 하였습니다; 우리는 추수하시는 크신 주로부터, 참 “곡식” 을 찾고 그것을 곳간으로 모으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이나 세상적인 일 또는 친목회 등의 일에 바칠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러한 일들에는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것으로 만족하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매진하고, 우리 주인께서 “잘했도다, 선량하고 충실한 종이어” 라고 하시는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JUNE 30

In the time of harvest, I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Matthew 13:30

THE time is short; the harvest work is great; the laborers are few; our time is consecrated; we must labor while it is called day, knowing that a night cometh wherein no man can work. We have consecrated our lives even unto death; we are commissioned of the great Lord of the harvest to seek for the true "wheat" and to gather it into the barn. What time have we for frivolities or worldliness or the many social amenities? Rather, we must content ourselves with giving very little attention to these things, and must press along the line, engaging heartily in the work given us to do, if we would have the approval of our Master, Hi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7월 1일

에베소 5:8, 10 “빛의 자녀와 같이 걸으십시오... 주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에 의해 하느님께 성별되었다면--우리의 뜻을 죽이고,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 주의 뜻을 전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고 “극복한 자”로서 상을 획득할 것입니다. --비록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였고, 전파한 적도 없고,

가난한 자를 돕지도 못하였고, 진리를 위해 순교자처럼 고통을 겪어 본 적도 없지만--
“이것이 (당신에 대한) 당신의 성별을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어떤 것도--어떤 다른
진리나 오류도-- 이 진리를 가리거나 희미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행로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의 뜻이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표시된 좁은 길을 만나게 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JULY 1

Walk as children of light...proving what is acceptable unto the Lord. Ephesians 5:8,10

IF we be sanctified to God by the Truth--if our wills be dead, and the Lord's will be fully accepted as ours, in thought, word and act, we have attained the will of God and will win the prize as "overcomers" --even if, opportunities being denied us, we never preached, never gave to the poor and never suffered as martyrs for the Truth's sake. Let us all note well this point,--"This is the will of God [concerning you] even your sanctification." Let nothing becloud or obscure this truth;--neither other truths nor errors. Let it dominate our course in life, and then, if God's will is really our will, we have a clearly marked pathway before us, which is very important.

7월 2일

고린도 전 4:12 “~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당신이 충실한 제자라면 오래 되지 않아, 완전한 자유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의도를 식별하게 함으로써, 모든 악을 미워해야 하면서도, 어떤 악인도 미워할 수
없고 오히려 당신의 마음속에서 완전해진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중상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 나쁜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에
저항해야 하며, 우리 자신의 모든 기질이 우리의 위대하신 스승의 지시에 즐거이 부합하도록
그 감정을 극복함으로 승리를 완수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당신을 악의적으로
대하고 당신을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축복하고 해치지 마십시오.”

JULY 2

Being reviled, we bless; being persecuted, we suffer it. 1 Corinthians 4:12

IF you are a faithful pupil it will not be long until you see that the perfect law of liberty,
the law of Christ, is a discernor of the very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and that
while you must hate all sin, you cannot hate any sinner and yet have the love of God

perfected in your heart....If even so much as a bitter feeling against our traducers and maligners arise, it is to be fought, and so complete a victory gained over it that every fiber of our beings will be in sweet accord with our Great Teacher's instructions, "Love your enemies. Pray for them which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Bless and injure not."

7월 3일

시 16: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느님의 뜻 안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묻어 버린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생애의 모든 일에서 믿음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도록 협력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증거 중의 하나이며, 우리는 대적과 세상과 우리 자신의 육체의 반대를 참을성 있게, 불평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즐겁게” --모든 지혜와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 경험의 일부인 것처럼-- 맞설 수 있게 됩니다.

JULY 3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shall not be moved. Psalm 16:8

HE who has buried his own will completely in the will of the Lord can know no disappointment; but in every affair of his life he sees by faith divine appointment or supervision, and hears the Word of the Lord in all of life's affairs assuring him,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It is one of the evidences of reaching the graduating condition of heart, when we are able to take the oppositions of the great Adversary and of the world and of our own flesh patiently, uncomplainingly, uncomplainingly, "joyfully"--as a part of the disciplinary experience meted out to us by our all-wise and all-loving Lord.

7월 4일

이사야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오늘날 교회를 부르심은 빛을 비추게 하고 또한 그림으로써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해 박해를 인내하고, 참을성, 형제 같은 인정, 동정심과 사랑을 박해자와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느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 아버지의 요구사항, 부르심, 봉사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그러한 모든 사람은 우리가 받은 이 봉사에 집중하고 약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우리에게 대해 나쁘게 생각하든지 또는 나쁘게 말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험이 끝 날 때에 우리의 보고가 우리 주께 주어지고, 그 때 주께서 주의 보석들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JULY 4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Isaiah 53:1

THE call of the church in the present time is to let the light shine and thus attract persecution, and to endure the persecution for righteousness' sake, and to be rightly exercised by it in patience, brotherly kindness, pity and love--toward the persecutors and toward all men.... Let all, then, who see the prize, and who see the light of God's glory shining in the face of Jesus Christ our Lord, be faithful to the Father's conditions, calling, service. Let all such give attention to this ministry (service) which we have received, and faint not; be not discouraged, whether men hear or whether they forbear, whether they think ill of us or whether they speak ill of us; let us remember that our report at the end of the trial is to be rendered to the Lord Himself, when He is making up His jewels.

7월 5일

고린도 후 10:4,5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첫째 조건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복종이며, 그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둘째 자질은, 실제로 그리고 진실로 헌신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길로 걷고자 애쓰는 형제들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행동하고 고난을 겪고, 죽을 수 있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JULY 5

The weapons of our warfare are not carnal, but mighty through God to the pulling down of strongholds; casting down imaginations, and every high thing that exalteth,...and bringing into captivity every thought to the obedience of Christ. 2 Corinthians 10:4,5

LET us remember that the first condition of acceptance with God is loyal obedience to His Word, the evidence of love for Him and faith in Him. Let us remember, also, that the second qualification He will look for in us is love for the brethren, readiness to be, to do and to suffer, to die on behalf of those who are really, truly consecrated children of God, seeking to walk in His ways.

7월 6일

시 25:12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에게 닥칠지도 모를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뿐이며, 우리에게 대한 시험이나 고난의 정도에 대한 결정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시험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시험이나 큰 희생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주와 주의 뜻을 향한 더 큰 사랑과 봉사를 위한 더 큰 열정으로, 그 희생은, 사도가 자신의 경우를 말했듯이, “가벼운 고통으로서 순간적인 것이며, 더 원대하고 탁월하며 영원한 영광을 성취하는 것” 이라고 주께서는 생각하실 것입니다

JULY 6

What man is he that feareth the Lord? him shall He teach in the way that he shall choose. Psalm 25:12

IT is not for us to supervise the trials and difficulties which may beset us. It is for us to make an unreserved consecration of ourselves to the Lord and then leave to Him the decision of how great shall be our trials and besetments--how great our sacrifices in following His leadings. The Lord may see that some need special trials more than others, and those things which to some would be great trials and imply great sacrifices, to others, because of greater love for the Lord and His cause, and greater zeal for service, the sacrifice might be, as the apostle expresses it of his own, "light afflictions, which are but for a moment, and which are working out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7월 7일

요한 1:36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주의 종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께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자기_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로 결집하도록 합시다.... 겸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서 성서에서 언급되며, 주의 헌신한 종들이 폭 넓게 발전시키고 잘 다듬어야 할 보석과 같은 특성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상한 의미로, 그의 행로를 따라 걷고, 그가 오늘날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대로 행하려고 힘쓰며, 그가 행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남겨 주신 지침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사도들은 주와 함께하는 고통의 행로를 걸었으며, 그 길은 주의 왕국에서 공동상속자가 되는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JULY 7

Behold the Lamb of God! John 1:36

ALL of the Lord's servants should call attention to the Lord and not to themselves. Let us each bend our energies to pointing men to the Lamb of God, and not to self-seeking.... Modesty is a gem, wherever found, one of the graces of the Spirit, which all of the Lord's consecrated ones should seek to have largely developed and well polished.... And let us remember that following Jesus, in the best sense, means that we walk in His paths, strive to do as nearly as we are able what He would do today, taking our lessons from what He did and said personally, and from the instructions which He has left for us, through the apostles, respecting the path of fellowship in His sufferings, the path to glory and joint-heirship in His Kingdom.

7월 8일

디모데 전 3:15 “이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니라”

주의 몸 또는 교회는, 회중(에클레시아)이라는 이름이 적절하며, 보잘 것 없고 수수하며 이세상의 부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난하고, 세상 적 관점에서 보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등록됩니다. (히브리 12:23) 교회의 머리이며 감독자는 주이시며, 교회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주와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증거 위에 세워지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십니다.

JULY 8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the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1 Timothy 3:15

THE Lord's church, the only one to which the name ecclesia, body or church, is properly applicable, is so insignificant, so unostentatious, and comparatively so poor in this world's riches, that it is not recognized nor recognizable from the worldly standpoint. It is neither man-made nor man-ruled; nor are its members enrolled on earth, but in heaven. (Hebrews 12:23) Its head and bishop is the Lord, its law is His Word: it has but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and it is built upon the testimonies of the holy apostles and prophets--Jesus Christ Himself being its chief corner-stone.

7월 9일

요한 10: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선한 목자의 음성은 다른 사람의 음성으로는 혼합할 수 없는 여러 소리의 혼합입니다. 그의 음성은 사랑의 코드가 혼합된 공의의 코드를 소리 내며, 전체로서 지혜, 능력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다른 이론, 사람들이나 악귀들의 계획, 계략 등은 크신 목자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 전달하신 전갈과 같은 음성의 조화가 없습니다. 더욱이, 진실한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그들의 열망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소리, 음성, 이론 또는 계략에 미혹되는 위험에 빠지지 않고, “예수께서 충족시켜 주셨고, 예수는 나의 목자”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JULY 9

When He putteth forth His own sheep, He goeth before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for they know His voice. John 10:4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is a blending of various sounds in a manner in which they are blended by no other voice. His voice sounds forth the chord of justice commingled with the chord of love, and the whole intoned with wisdom and with power. Other theories, plans and schemes of men and devils have no such harmony of sound as has the message which the Great Shepherd has sent us through His Son. Moreover when the true sheep hear the voice of the Good Shepherd, it satisfies their longings as nothing else could do. They will no longer be in danger of being attracted by other

sounds, or voices, theories or schemes, but will reply to all, "Jesus has satisfied; Jesus is mine."

7월 10일

누가 4:22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

주의 발걸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언변은 은혜롭고, 절제가 있으며, 진리와 진리를 사랑하고 찾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넘쳐야합니다. 말에는 항상 사려 깊음과 의로움이 올바르게 깃들어야 하며, 주의 말씀과 정확하게 부합해야 합니다. 태도와 행동은, 생생한 편지처럼, 이러한 것들과 화합함으로써, 그들의 적들조차도 깜짝 놀라서,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로부터 배웠음을 알게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JULY 10

All bare Him witness, and wondered at the gracious words which proceeded out of His mouth. Luke 4:22

THIS should be true as far as possible with all of the Lord's footstep followers: their speech should be with grace, with moderation, the overflow of hearts full of loving sympathy for the Truth and all who love and seek it. Their words should always be well within the limits of reason and righteousness, and strictly in conformity to the Word of the Lord. And their manner, their conduct, as living epistles, should harmonize with these so that even their enemies would marvel, and take knowledge of them that they had been with Jesus and learned of Him.

7월 11일

요한1서 5:18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음(정신, 뜻)이 거룩하면, 하느님과 공의에 부합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탄생시킨 씨앗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면-- 새로운 정신은 죄를 승인할 수 없으며, 죄의 적이 되어야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비록 대부분의 싸움은 우리의 타락한 지체와 악한 인간의 본성, 육체적 또는 정신적 욕망과의 싸움이지만, “새 창조물”인 우리는 육체와 분리되고 구분되며, 육체의 악함과 불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물”에게는 그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주의 대속희생의 혜택을 통해 덮여지고 숨겨지는 것입니다.

JULY 11

Whosoever is begotten of God sinneth not,... but keepeth himself, and that wicked one toucheth him not. 1 John 5:18

SO long as the heart (the mind, the will) is holy, in harmony with God and righteousness,--that is to say, so long as the seed of our begetting, the spirit of holiness, continues in us,--the new mind cannot approve of sin, but must and will be its opponent. Even though many of the battles fought are with the members of our fallen and weak human nature, their appetites and desires, we nevertheless, as "New Creatures," are separate and distinct from the flesh, and the weaknesses and imperfections of the flesh are not imputed to the New Creature in Christ Jesus, but are reckoned as covered, hidden under the merits of our Lord's redemptive sacrifice.

7월 12일

요한 8: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크신 선생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참 제자들은, 모든 점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미신과 무지로부터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타고난 약점과 결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하느님의 정신--진리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갖게 된 자유는 그들을 해하는 대신에 축복해 줍니다; 자만과 뽐냄 대신에 겸손을 가지게 해 줍니다; 분노 대신에 인내를 가지게 해줍니다; 악의와 이기심 대신에 아량과 자비심을 가지게 해줍니다; 불평과 냉소의 영 대신에 기쁨과 평화를 가지게 해줍니다.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만이 홀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JULY 12

If the Son therefore shall make you free, ye shall be free indeed. John 8:36

THE true disciples heeding the Word of the Great Teacher, and continuing in all things to be His pupils, are not only set free from superstitions and ignorance, but also from the service of sin; and receive instead a correct appreciation of their own natural weaknesses and blemishes, and of the divine mind--the Truth. In consequence, their freedom is one which blesses instead of injuring them; one which brings humility

instead of pride and boastfulness; one which brings patience instead of anger; one which brings generosity and benevolence instead of spitefulness and selfishness; one which brings joy and peace instead of discontent and bitterness of spirit. Truly, the Son alone can make us free indeed.

7월 13일

고린도 후11:14, 15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사탄이 어떻게 선한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는지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 대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빛과 은혜의 천사의 옷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다른 종류의 구원의 희망으로, 다른 선생에게로, 가능하다면 선택된 자들까지 미혹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때가 오면, 그의 보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분명한 증거이며, 이것은 그 대적의 미혹하는 일의 마지막 절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는 점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JULY 13

Satan himself is transformed into an angel of light. Therefore it is no great thing if his ministers also be transformed as the ministers of righteousness. 2 Corinthians 11:14,15

IF it be asked, How could Satan be interested in doing a good work? we answer, the adversary thus assumes the garment of an angel of light and mercy, not to lead to the Light of the World--not to lead to the cross of Christ--not to lead to the Bible--but to lead away from these, to another hope of salvation, and to another teacher, to deceive, if it were possible, the very elect. And be it remembered that our Lord's words indicate that when matters come to this condition, where Satan will cast out Satan and heal disease, it is a marked evidence that his throne is tottering to its fall--that, so to speak, this is the last extremity of the adversary's efforts to deceive.

7월 14일

에베소 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느님의 법을 높은 표준으로 인식함으로써,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보실 때 증오는 살인과 같고 증상은 암살과 같으며 이웃의 좋은 평판을 훼손하는 것은 강도나 약탈과 같은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 중의 어느 것이라도 행해진다면, 그것은 이중적으로--형제를 암살 또는 강도함--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비방하지 말라”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그 악행을 알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 --그 악행을 발설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필요성 때문에-- 그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해를 입지 않게 하려는 사랑의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ULY 14

Let all bitterness, and wrath, and anger,...and evil speaking be put away from you, with all malice. Ephesians 4:31

FROM his high standpoint of appreciation of the divine law, the advanced Christian sees that in the Lord's sight hatred is murder, slander is assassination, and the destruction of a neighbor's good name is robbery and rapine. And any of these things done in the church, among the professed people of God, is doubly evil--the assassination and robbery of a brother.... The only exception to this rule, "Speak evil of no man," would come in where we might know of an absolute necessity for making known an evil--where the relating of the evil would be contrary to our heart's wishes, and only mentioned because of necessity-- because of love for others who, if not informed, might be injured.

7월 15일

고린도 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관하여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돈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어떤 사람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랑과 동정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주는 이러한 사람들 중의 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차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는 사도들처럼 아무리 고귀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탐욕스러운 사람과는 교제를 자제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마리아에게서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있음을 보셨으며, 그것은 주께 달콤한 향기처럼 기운을 북돋고 새 힘을 주는 청량제와도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 성품의 길이와 넓이를 인식하셨습니다. 그녀는 주께 배우기 위해 주의 발 자락에 앉기를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비용을 치르고서도, 그녀의 주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JULY 15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have not love, it profiteth me nothing. 1 Corinthians 13:3

IN our ministrations to others we are not to forget that money is not the only thing of which people are sorely in need--some need love and sympathy who do not need money. Our Lord was one of these: His own heart, full of love, found comparatively little companionship in the more or less sordid minds of even the noblest of the fallen race represented among His apostles. In Mary He seemed to find the depth of love and devotion which was to Him an odor of sweet incense, of refreshment, of reinvigoration, a tonic: and Mary apparently appreciated, more than did others, the lengths and breadths of the Master's character. She not only delighted to sit at His feet to learn of Him, but also delighted, at great cost, to give Him some manifestation of her devotion, her love.

7월 16일

에베소 5:18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자기_고집의 영을 비우고, 믿음과 순종의 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순종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는 것이지만, 주께서 그의 헌신한 백성에게 중요시 하는 것은 의도, 뜻, 마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온전히 주께 충실한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지만, 그들이 관계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또한, 외견적인 도덕성 때문에 “인간들 중에서 높이 존경받는” 사람들도,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차갑고 부정직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희망과 새 영이 있는 사람은 생각에서 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과 그의 안팎의 모든 일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JULY 16

Be ye filled with the Spirit. Ephesians 5:18

THE measure of our filling will correspond with the measure of our emptying of the spirit of self-will, and filling with the spirit of faith and obedience. And although the obedience cannot do otherwise than manifest itself in the daily life, nevertheless it is the obedience of the intention, of the will, of the heart, that the Lord regards in His

consecrated people. Hence some whose hearts are thoroughly loyal to the Lord may be pleasing to Him, while not the most pleasing to some of those with whom they come in contact; while others, "highly esteemed among men" because of outward moralities, may be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God, because of coldness or dishonesty of heart. Nevertheless, he that hath the new hope in him, and the new spirit, will seek to purify himself, not only in his thoughts, but also in his words and deeds and all his affairs, inward and outward.

7월 17일

이사야 26:3 “주께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것은 세상적인 평화도, 무관심한 평화도, 나태한 평화도, 자기만족의 평화도, 운명론적인 평화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볼 때, 우리의 주인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과 평화의 관계를 간직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 사랑, 공의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평화로서, 주의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어떤 것도 주의 충실한 자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평화는 믿음으로써, 하느님께서 섭리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얻게 해주며, 그 눈물을 통하여 주인께서 약속하신 최종의 축복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며, 현재의 평화와 기쁨은 단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JULY 17

Thou wilt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Thee. Isaiah 26:3

THIS is not worldly peace, not the peace of indifference, not the peace of sloth, not the peace of self-indulgence, not the peace of fatalism; but it is the peace of Christ--"My peace." Looking back we can see that the Master preserved His peace with God under all conditions. It is a peace which implicitly trusts to the divine wisdom, love, justice and power, a peace which remembers the gracious promise made to the Lord's faithful--that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His faithful, and that all things shall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his peace can accept by faith whatever divine providence permits, and can look through its tears with joyful expectancy for the ultimate blessings which the Master has promised, and of which the present peace and joy are merely foretastes.

7월 18일

디모데 후 3:1,4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배반하며 무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참 그리스도인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께로 향한 그의 헌신을 통해 상징적으로 자신의 목을 쳤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잃었으며, 자신의 뜻과 자기_지배를 포기하였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바쳤으며, 머리이신 예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생활의 모든 부면에서--즐거움은 물론,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행하거나 말할 것인가에 관해, 주의 인도를 구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도록 합니다.

JULY 18

In the last days perilous times shall come. Men shall be traitors, heady, ... lovers of pleasures more than lovers of God. 2 Timothy 3:1,4

The true Christian is not "heady"; on the contrary, his consecration to the Lord figuratively decapitated him. He lost his head, renounced his own will and self-rule, and submitted himself as a member of the body of Christ, to the absolute control of Jesus, the Head.... The true Christian, therefore, in every affair of life,--in respect to its pleasures as well as in respect to its burdens and trials--appeals to his Head for direction, to know how and what to do or say--yea, to have even the very thoughts of his mind in full conformity to the will of God in Christ.

7월 19일

요한 18:11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사랑하는 대속자의 봉사의 모든 부면에서, 아무리 작은 일에서라도 겸손의 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적들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행로가 자발적인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으시고, 순교자로서의 찬양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께 대한 개인적 충성의 증거로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하느님의 종이며, 아들로써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마도, 주의 추종자로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는 것보다 더 필요한 교훈--우리가 아버지의 것이고, 기쁨부음 받으신 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인식--은 없을 것입니다.

JULY 19

The cup which My Father hath given Me, shall I not drink it? John 18:11

How the grace of humility shines out in all the little affairs of our dear Redeemer's ministry; even at the moment of His surrender to His enemies He does not boast that His course is a voluntary one, nor seek praise as a martyr! He declares the simple truth that the Father required this of Him as an evidence of His personal loyalty to Him. He confesses Himself a servant of God, a Son who learned obedience by the things which He suffered.

No other lesson, perhaps, is more needed by the Lord's followers than the one of willingness to drink the cup which the Father pours--a recognition that the Father is guiding and directing in our affairs because we are His, as a members of the body of the Anointed One.

7월 20일

요한 15:1,2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잘 맺은 적이 있는 가장 좋은 포도나무 가지조차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듯이, 가장 정직하고 성실한 주의 백성들도 주의 훈련과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 역시 잔가지만 늘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의 뜻 속으로 완전히 담근, 하느님의 참 자녀들은 이러한 가지치기에 대해 화내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무지함과 아울러 어떤 점을 배우게 되고, 크신 농부의 지혜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부면에서 자신의 노력이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좌절된다면, 주의 뜻과 주의 방법이 최상의 것이며 축복을 이루기 위해 의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계획을 즐거이 중단할 것입니다.

JULY 20

I am the true vine , and My Father is the Husbandman... every branch that beareth fruit, He purgeth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John 15:1,2

As even the best branches in the vine, which give evidence of fruit-bearing, require pruning, so even the most honest and earnest of the Lord's people require the Lord's discipline and providential care--otherwise they might soon run to woodmaking also, and fail to bring forth much fruit. The true child of God whose will has been entirely immersed into the will of the Lord is neither offended nor discouraged by these prunings. He has learned something at least of his own unwisdom, and has confidence in the wisdom of the great Husbandman. Hence when divine providence estops his efforts in some directions he takes the thwarting of his plans joyfully, assured that the Lord's will and the Lord's way are the best, and intended to work out a blessing.

7월 21일

요한 18:37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 하려 함이로라.”

적들에 의해 눈멀게 된 사람들로부터의 반대를 초래한 것은 주의 진리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해 증거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대속의 가치를 지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주의 추종자들은 진리--하느님의 성품과 계획에 관한--를 증거 해야 합니다. 그러한 진리를 증거 하기 위해 예수님의 참 추종자 모두는 살아있는 희생제물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께 거룩하고 받아들여 질만한 것입니다. 왕국에서 생명의 왕과 함께 공동후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모두는 그 진리를 증거--왕국, 그 기초와 영광스러운 최 상부 구조에 관해 훌륭한 고백을 하는 것--해야 합니다.

JULY 21

To this end was I born, and for this cause came I into the world, that I should bear witness unto the Truth. John 18:37

It was our Lord's faithfulness to the Truth that brought upon Him the opposition of those who were blinded by the adversary. It was His witness to the truth that cost Him His life, and it was the giving of His life in defence of the Truth that constituted the redemption price. Similarly all of the Lord's followers are to bear witness to the Truth--the Truth in respect to God's character and plan. It is such witness to the Truth that is to cost all the true followers of Jesus their lives in presenting themselves living sacrifices, holy and acceptable to God through Christ Jesus. Let each one who hopes to

be a joint_heir with Prince of Life in the Kingdom witness to the Truth-- a good confession respecting the Kingdom, its foundation and ultimate superstructure in glory.

7월 22일

시 34:18,19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도다.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길로 빠졌음을 발견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로인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시에, 마음의 회개와 주께 대한 겸손, 미래를 위한 더 큰 열심, 경계심 및 충성심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어떤 실수조차도 더 높은 단계의 은혜와 진리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JULY 22

The Lord is nigh unto them that are of a broken heart; and saveth such as be of a contrite spirit.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but the Lord delivereth him out of them all. Psalms 34:18,19

A just man fallen seven times, and riseth up again. Proverbs 24:16

If at any time we find we have taken a wrong course which is irretrievable, we may expect it to bring the disappointments as the Lord has foretold: but He may permit it to bring, as well, some blessing in the way of contrition of heart, and humility toward the Lord, and greater zeal, watchfulness and faithfulness for the future. Thus even some of the blunders of life may become stepping_stones to higher planes of grace and truth.

7월 23일

디모데 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들, 특히 믿음을 같이 하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 동정심, 관심과 돌봄의 정신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곤경에 처해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주의 동정심 많은 성품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결코, 그로 하여금 그의 육적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녀의 안위를 위한 마련을 하시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이 선택한 행동을 살펴 봅시다: 첫째, 의심의 여지없이 그는 사랑 많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졌습니다; 둘째, 그는 주와 진리에 대한 큰 열정을

가졌습니다; 셋째, 주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에 직면한 주와 함께 하기 위해, 가까이 밀고 나아간 그의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주께서 승인하시는 것으로서, 우리 역시 발전시켜 나간다면, 동일한 주인으로부터 봉사를 위한 특별한 기회를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JULY 23

If any provide not for his own,...he hath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unbeliever. 1 Timothy 5:8

"THE faith" includes thoughts of love, sympathy, interest and care for others, especially for them of the household of faith....How it gives us an insight into our Lord's sympathetic nature, to find Him thinking in the interest of others at the very time when He Himself was overwhelmed in trouble! His own agony did not hinder Him from thinking of His mother, and making provision for her comfort....We note the choice of John: it was doubtless because, first of all, of his loving, tender disposition; secondly, his zeal for the Lord and the Truth; and thirdly, his courage in pressing near to be with his dying Master in His closing hours, at the risk of his own life. Let us note these characteristics, as being those which the Lord approves, that noting them we may cultivate them in ourselves, and thus be granted special opportunities for service by this same Master.

7월 24일

야고보 5:16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로써 주와의 화목은 우리의 일들을 주께서 감독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켜 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크고 소중한 모든 약속에 대한 믿음의 증가; 과거 및 현재의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의 증가; 그리스도의 모든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증가,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 영적 진보를 위한 열심의 증가를 가져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것들에서의 진보, 하느님과 형제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서의 진보와 밀접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합합니다.

JULY 24

The effectual fervent prayer of a righteous man availeth much. James 5:16

COMMUNION with the Lord in prayer brings increased confidence in the Lord's supervision of our affairs; increased faith in all the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of His Word; increased realization of His leadings, past and present; increased love for all the brethren of Christ, and increased solicitude for their welfare and spiritual progress. Prayer is thus closely and actively identified with progress in spiritual things, progress in the fruits of the Spirit, toward God, the brethren, and all men.

7월 25일

야고보 4:12 “입법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관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 세상이나 형제들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표명한 이러한 생각--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할 모든 상황과 시험과 약점을 아시는 주께서만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다는--과 일치합니다. 그는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 4:3) 주의 자녀로서 양심적으로 걷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나, 비슷한 상황에서의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탁월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날이,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 천적 은혜를 발전시켜 나가고, 모든 결과는 주께 맡겨두어야 합니다.

JULY 25

There is one Lawgiver,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who art thou that judgest another? James 4:12

IT is in harmony with this thought that the Apostle Paul declares in one place that neither the world nor the brethren were capable of judging him--that only the Lord, who could read the heart and know all the conditions and testings and weaknesses to be striven against, could properly judge. He even declares, "Yea, I judge not mine own self." (1 Corinthians 4:3) It is an excellent plan neither to condemn others who claim to be walking conscientiously as children of the Lord, nor even to condemn ourselves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e should simply press along day by day, doing the best we can to cultivate the heavenly graces and to serve our Master, leaving all the results with the Lord.

7월 26일

계시 2:17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모든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희생--주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사랑, 우정 및 승인을 희생하는 것과 같은--하는 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은 주의 헌신한 백성들에게 나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시험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에 따라 우리는 천적인 것들에 애착을 두고, 지적인 것들에 대한 애착은, 주께 대한 우리의 애착과 봉사 등과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처럼, 억제하거나 죽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JULY 26

To him that overcometh will I give...a white stone, and i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man knoweth saving he that receiveth it. Revelation 2:17

THE overcomers must all be proven to be such as would sacrifice every other thing for the Lord; such as would sacrifice the love and fellowship and approval, if necessary, of every other being, in order to retain the love and favor of the Lord. We believe that this test is coming daily closer and closer to the Lord's consecrated people, and it behooves every one of us to remember that this is one of the elements of our trial, and to set our affections on the heavenly things accordingly, and to mortify or deaden all such affections toward earthly beings and things as would bring these into competition with our Lord in our affections, service, etc.

7월 27일

다니엘 6:5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도하는 영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번역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의의 원칙을 위해 헌신하는 동일한 영을 받으며, 우리의 다니엘이자 인도자이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모범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마다, 좁은 길을 통하여 그러한 헌신이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고, 충성스럽고, “다니엘처럼 되고자” 힘쓰도록 합시다.

JULY 27

We shall not find any occasion against this Daniel, except we find it against him concerning the law of his God. Daniel 6:5

ALL are not leading spirits, as was Daniel, nor are all given to visions and revelations and interpretations, as was he; but all will have the same spirit of devotion to principles of righteousness, which devotion will be tested under divine providence, step by step, through the narrow way, as they seek to walk in the footsteps of Him who set us an example--our Daniel, our Leader, our Lord Jesus. Let all, then, who have named the name of Christ depart from iniquity; let all such be faithful: "Dare to be a Daniel."

7월 28일

베드로 전 3:14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우리가 미움을(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받더라도 진리에 대한 충성 때문에 그러할 때에만 우리는 그로부터 만족함을 얻거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하릴없이 간섭하거나, 점잖지 못하고, 버릇없거나, 하느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절제의 지혜가 부족하므로 고난을 받습니다. 주의 뜻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상황을 심사숙고하고, 그러한 절제된 행로를 추구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첫째로 하느님의 승인을 얻고, 둘째로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로움이나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께서 감독하시는 지혜와 섭리에 확신을 가지고 말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JULY 28

If ye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happy are ye. 1 Peter 3:14

IT is only when we are hated because of our loyalty to the Truth (directly or indirectly) that we are to take satisfaction therein, or to think that we are suffering for righteousness' sake. As the apostle points out, some suffer as evildoers and as busy-bodies in other men's matters, or because of ungentleness, uncouthness, or lack of the wisdom of moderation, which the Lord's Word counsels. It is our duty not only to study the Lord's will, but also to consider well the circumstances and the conditions which surround us, and to seek to adopt such a moderate course in life as would first of all have divine approval, and secondly, cause as little trouble, inconvenience and displeasure to others as possible, and then to confidently rely upon the Lord's supervising wisdom and providence.

7월 29일

다니엘 3:17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 내시겠고”

주의 섬기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구원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한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지 못하고 적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몫이 아닙니다.... 때때로, 주의 백성들이 구속당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를 제한당할 때에, 세 명의 히브리인의 경우에 불이 포승줄을 태워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처럼, 다른 경우에서라면 결코 얻지 못하였을 하나님의 영광을 입증하는 기회를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섬기가 어떠할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며, 우리는 정의와 의무의 관점에서 주시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을 따르며, 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JULY 29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Daniel 3:17

THE Lord's providences vary, and it is not for His people to decide when shall come remarkable deliverances, and when they shall apparently be left entirely to the will of their enemies without any manifestation of divine favor on their behalf.... Sometimes, the Lord's people who are bound, restrained of liberty to proclaim the Truth, find, as did the three Hebrews, that the fire burns the cords and sets them free, and really gives them larger opportunities to testify to the glory of our God than they could have had by any other course. It is not, therefore, for us to predetermine what shall be the divine providence in respect to ourselves; we are to note the point of right and duty and to follow it regardless of consequences, trusting implicitly to the Lord.

7월 30일

아가 2: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에 대한 서원을 약간 위반하였을 경우, “그렇게 주의 깊게, 그리고 일반 세상과 그렇게 다른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자문하면서 자신에 대하여 느슨한 태도를 취합니다.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의 승리는 더 큰 것들을 준비하여 큰 승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들에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한다면 전체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 로서 간주된 우리는 (만약 아직 시험 받지 않았다면) 시험 받을

것이며, 삶의 작은 것들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음식, 의복, 행동 등등에서 육체의 타고난 욕망을 억제할(죽일) 때에만, 영적으로 강해지고 “승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JULY 30

Take us the foxes, the little foxes, that spoil the vines. Canticles 2:15

MANY deal slackly with themselves in respect to little violations of their consecration vow, saying,-- "What's the use of such carefulness and so different a life from that of the world in general?" Ah! there is great use in it, for victories in little things prepare for greater things and make them possible: and on the contrary, surrender to the will of the flesh in the little things means sure defeat in the warfare as a whole. We who have become "New Creatures," reckonedly, in Christ, know that we are to be tested (if our testings have not already commenced), and should realize that only as we practice self-denials in the little things of life, and mortify (deaden) the natural cravings of our flesh in respect to food, clothing, conduct, etc., will we become strong spiritually and be able to "overcome."

7월 31일

고린도 전 3: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불같은 시험에 관해 말하면서,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행위를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지은 집에 비유하며, 현 시대의 끝 부분인 오늘날에, 불이 모든 사람의 행위를 시험하여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고, 참된 믿음과 성품의 골격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충성된 성품은, 버섯이 자라는 것처럼, 몇 시간이나 며칠 내에,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고 튼튼한 올리브 나무처럼,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JULY 31

Every man's work shall be made manifest: for the day shall declare it, because it shall be revealed by fire. 1 Corinthians 3:13

THE apostle speaks of this time of fiery trial, and, likening the faith and works of a zealous Christian to a house built of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s, he declares that the fire of this day, in the end of this age, shall try every man's work of what sort it is,

and shall consume all but genuine faith and character structures. But we are to remember that such loyal characters grow not suddenly, in a few hours or days -- mushroom like,--but are progressive developments, fine-grained and strong like the olive tree.

8월 1일

잠언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의 영향력은 다른 모든 지체를 합한 것의 영향력을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봉사하는데 있어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주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멸성인 육체와 주께 드린 이 육체를 통한 봉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 친절, 도움과 같은 몇 개의 단어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인생의 전체 행로를 변화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단어들은 나라들의 운명을 형성하는 것보다 크나큰 관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험담, 불친절한 말, 중상과 같은 단어들은 얼마나 큰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평판을 훼손하는 등등의 일을 하여 왔습니까! 또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대자연의 불길”과 같이,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격렬한 감정, 싸움,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오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러한 혀가 둘째 사망인 “게헨나의 불”이라고 선포합니다!

AUGUST 1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Proverbs 18:21

THE tongue's influence exceeds that of all our other members combined: and to control it, therefore, in the Lord's service, is the most important work of the Lord's people in respect to their mortal bodies and the service of these rendered to the Lord. A few words of love, kindness, helpfulness,--how often have such changed the entire course of a human life!-- yea, how much they have had to do with moulding the destiny of nations! And how often have evil words, unkind words, slanderous words, done gross injustice, assassinated reputations, etc.! or, as the apostle declares, "set on fire the course of nature"-- awakening passions, strifes, enmities, at first unthought of. No wonder he declares such tongues "set on fire of Gehenna"--the Second Death!

8월 2일

시 95:6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주(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생활에서 올바르게 일치된 행로를 유지하거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 은과 귀금속”의 재료로 구성된 성품과 믿음의 구조물을 짓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이에 더해서, 정기적으로--더 말하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주의 백성 중에 가장 참되고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과 증거가 이점을 확증해 준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AUGUST 2

O come, let us worship and bow down: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Psalm 95:6

OUR judgment is that it is impossible for any Christian to maintain a proper, consistent walk in life, and to build up such a character and faith structure as are represented by the apostle as composed of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s," without prayer; more than this, without regularity in prayer--we would almost be inclined to say, without kneeling in prayer: and we believe that the experiences and testimonies of the truest and best of the Lord's people who have ever lived will corroborate this.

8월 3일

에스라 10:11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려라”

어떤 사람은 적절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바다에 있는 배와 같다. 그 배 안으로 바다가 들어오지 않는 한, 그 배는 바다에서 안전하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이 땅의 족속들”, 즉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처럼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준을 낮추므로(평균적의미의 표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해가 되는데, 그들 중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겉으로는 존경 받을만하고 아마도 공개 숭배에 자주 참석하므로, 대체적으로 안전하고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AUGUST 3

Separate yourselves from the people of the land. Ezra 10:11

SOMEONE has well said:--"The Christian in the world is like a ship in the ocean. The ship is safe in the ocean so long as the ocean is not in the ship." One of the great difficulties with Christianity today is that it has admitted the strangers, the "people of

the land," and recognized them as Christians. It does injury, not only to the Christians, by lowering their standards (for the average will be considered the standard), but it also injures the "strangers," by causing many of them to believe themselves thoroughly safe and needing no conversion, because they are outwardly respectable, and perhaps frequently attendants at public worship.

8월 4일

디모데 후 2:24, 25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주의 사랑하는 백성중의 어떤 사람들은 진리에 관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에 큰 손상을 입었는데, 다른 사람들--특히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계획에 관해 말할 때 너무 큰 자신감과 확신을 갖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은 어느 경우에서든지 보석과 같으며, 특히 진리들 위한 보조물과 도구로써 바람직합니다. 온힘을 다하여 진리를 선포하되,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써 합시다. 그리고 질문의 형태로 진리를 전하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AUGUST 4

The servant of the Lord must not strive; but be gentle unto all men, apt to teach, patient, in meekness instructing those that oppose themselves. 2 Timothy 2:24,25

SOME of the Lord's dear people have greatly injured their influence in the Truth by display of too large a degree of self-confidence, self-assurance, in speaking of the divine plan to others--especially to the learned. Meekness is a jewel wherever found, and is especially desirable as an adjunct and sling for the Truth. Let the Truth be shot forth with all the force it can carry, but always with meekness and humility; and the question form of suggesting Truth will often be found the most forceful.

8월 5일

로마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점을 기억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 것에 대해 만족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한 뒤에 게으르지 않고 만족하며-- 하느님과 하느님의 섭리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짜증내거나

불만족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는 어떤 특별한 봉사를 위해 우리를 개인적으로 바로잡고 준비시키실 수도 있으며,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경험만이 그러한 봉사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를 판단할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을 아울러 기억해야 합니다.

AUGUST 5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REMEMBERING this, all the Lord's people should be content with the lot which Providence seems to mark out for them--not indolent, but content, when they have done all that their hands find to do,--not restless, peevish, dissatisfied, complainers against God and His providence. It may be that the Lord is fitting and preparing us individually for some special service, and that the permitted experiences alone will prepare us for that service....We are to remember also that we are incompetent to judge of our own imperfections, and hence incompetent to judge of the experiences which would be most helpful to us.

00

8월 6일

야고보 4:7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단호하게 유혹을 배척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강화되는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유혹을 저항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한 확신과 단호한 성품을 가진 사람과 그 문제를 토론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적은, 우리의 단호함을 주시하고서, 어느 정도 당황하게 됩니다. 반면에 의문이 토의된다면, 그 결과로, 적은 분명히 추리와 논쟁을 더욱 진척시킬 것이며, 우리는 논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귀는 교활한 적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순종만이 유일하게 모든 “형제” 들을 위한 안전한 행로입니다.

AUGUST 6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James 4:7

IF we are positive in our rejection of temptation it increases our strength of character, not only for that time, but also for subsequent temptations; and it disconcerts to some extent our adversary, who, noting our positiveness, knows well that it is useless to discuss the matter with persons of strong convictions and positive characters; whereas if the question were parleyed over, the result would surely be an advancing of further reasons and arguments on the adversary's part, and a danger on our part that we would be overmatched in argument, for, as the apostle declares, the Devil is a wily adversary, and "we are not ignorant of his devices." Prompt and positive obedience to the Word and Spirit of the Lord is the only safe course for any of the "brethren".

8월 7일

디모데 후 2: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적의 손에 넘겨질 것으로 예언된 시간을 인식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주의하게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길모퉁이에서 장황하게 기도하시지도, 무리들에게 큰 소리로 열변을 토하며 훈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언자의 말처럼, 목소리를 높이시지도, 거리에서 크게 부르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2:2) 그분은 하느님의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이성적이고 현명하며, 사람들 중에서 약속된 왕국의 상속자로 원하시는 반열을 선택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사람은, 주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더욱 더 성령으로 충만해 지도록 합시다.

AUGUST 7

If a man contend in the games, he is not crowned unless he strive lawfully. 2 Timothy 2:5 (Diaglott)

JESUS observed God's times and seasons and methods. He never recklessly exposed His life until from the prophets He recognized that His hour had come to be delivered into the hands of His enemies. He did not make long prayers on the street corners to be heard of men, nor exhort the multitude with noisy harangue; as the prophet indicated, He did not lift up His voice nor cry aloud in the streets. (Isaiah 42:2) He chose God's methods, which are rational and wise, and which are effective in selecting from among men the class which He desires to be heirs of the promised Kingdom. Let those who would so run as to obtain the prize, mark these footprints of the Master, and be filled more and more with His Spirit.

8월 8일

누가 10:5,6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다 하라. 만약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현재 추수 때에 일하는 각자는, 상기의 성구에 있는 주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합니다. 주의 대표자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야하며, 분쟁, 혼란, 소동, 말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진리는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나 분열을 야기하는 진리를 전하면서, 주의 대표자들은 거칠거나 불친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에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를 말하는” 진리의 성령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AUGUST 8

Into whatsoever house ye enter, first say, Peace be to this house. And if the son of peace be there, your peace shall rest upon it: if not, it shall turn to you again. Luke 10:5,6

EACH laborer in the present harvest should note well the Lord's instruction in these verses. Wherever the Lord's representatives go peace should go, not strife, confusion, turmoil, quarreling. True, the Truth will prove to be a sword that will arouse opposition, yet it should be the Truth that causes the opposition and division and not any rudeness or unkindness of word or action on the part of the Lord's representatives. There are plenty of things to aggravate mankind in this our busy day, and all who have received the Truth should receive also its spirit "speaking peace through Jesus Christ."

8월 9일

마태 6:23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추수 때”는 “밀”을 가려내는--키질하고, 분리하는--때이며, 우리들 각자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마친 뒤에, 바로 서십시오!” 이 “추수 때”의 시험은 유대 당시의 전형적 “추수 때”와 분명히 비슷할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는 십자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임하심이며, 다른 하나는 겸손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앙의 때를 몰랐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현재의 진리의 빛을

보고서도, 결국은 “바깥 어두움” 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충실함을 의미합니다.

AUGUST 9

If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come]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Matthew 6:23

THE "harvest" is a time for winnowing the "wheat" --a sifting, a separating time, and it is for each of us to prove our characters: "Having done all, stand!" The tests of this "harvest" must be like those of the Jewish or typical "harvest." One of them is the cross, another is the presence of Christ, another is humility, another is love. The Jews were reproved because they "knew not the time of their visitation." The matter is doubly distressing for those who have once seen the light of Present Truth, and afterward go into the "outer darkness." It implies unfaithfulness.

8월 10일

빌립보 2:1,2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 얼마나 연합, 평화, 형제애를 증진시켜주는 권고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인내하고, 자제하고, 관대하고, 도움주고, 서로 위안하게 하는 권고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 각자가 올바른 행로에서 가능한 최대의 진보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바나바--형제들의 위안자--의 이름에 걸맞도록 노력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더욱 더 충만하게 합시다. 이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풍족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모두 시온에서 위안의 아들딸들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대표자가 되며, 진리는 물론 성령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AUGUST 10

If there be any consolation [comfort] in Christ, if any comfort of love, if any fellowship of spirit, if any bowels and mercies, fulfil ye my joy, that ye be likeminded, having the same love, being of one accord, of one mind. Philippians 2:1,2

WHAT exhortations these are to unity, peace, brotherly kindness! How they suggest to us patience, forbearance, gentleness, helpfulness and comfort one toward another in the

church; that thus the Spirit of the Lord may abound in all, that each may make the greatest possible progress in the right way. Dear brethren and sisters, let us more and more be worthy of the name of Barnabas--Comforter of the brethren. Let us have the Holy Spirit abounding in us more and more, for this is the Lord's good pleasure; that with it dwelling in us richly we may be all sons and daughters of comfort in Zion, representatives of our Father, and channels of the Holy Spirit, as well as of the Truth.

8월 11일

계시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참 교회(명목상의 교회가 아닌)에 가해질 두 번째 공격이 있을 것임을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침례자 요한의 경우처럼, 두 번째이며 바벨론 여자와 그녀의 정부인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의 충실한 구성원들에게 외관상으로는 육체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어도 우리는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함께 이루어 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 너머 있는 하늘의 상을 획득하기 위해 모두 죽어야만 합니다. 장막 이쪽에 있는 엘리야 반열은 정복 당해야만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관상의 정복은 단지 왕국 영광을 재촉할 뿐입니다.

AUGUST 11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Revelation 2:10

WE are to anticipate a second attack upon the true church (not upon the nominal system), and this may mean, as in the case of John the Baptist, a second and a seemingly complete victory of the Babylonish woman and her paramour, the world, over the faithful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in the flesh. We shall certainly not be surprised if the matter so result; but this and all things must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o who love the Lord. We must all die to win our heavenly prize beyond the veil. The Elijah class this side of the veil must and will be vanquished, but the apparent defeat only hastens the Kingdom glories.

8월 12일

시 19:12-14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주제넘은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가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총명한 그리스도인은 숨은 허물로부터 깨끗해지기 위해, 위와 같은 영감 받은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주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또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모든 어려운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은혜의 샘으로 계속 찾아 간다면, 죄의 시작에서부터도 살피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외관적 또는 주께는 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정도로만 거룩한 삶이나 주께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의 시작을 살피기를 게을리 한다면, 매우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의를 피하는 것입니다.

AUGUST 12

Cleanse Thou me from secret faults. Keep back Thy servant also from presumptuous sins; let them not have dominion over me....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Psalm 19:12-14

IT would appear that every intelligent Christian would continually pray this inspired prayer, for cleansing from secret faults, that he might thus be restrained from presumptuous sins; and thus praying heartily, he would also watch against these beginnings of sin and keep his heart in a cleansed and pure condition, by going continually to the fountain of grace for help in every time of need. He who seeks to live a life of holiness and nearness to the Lord by merely guarding against outward or presumptuous sins, and who neglects the beginnings of sin in the secrets of his own mind, is attempting a right thing in a very foolish and unreasonable way.

8월 13일

고린도 후 5:20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항상 마음에 분명히 새긴다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더 품위가 있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변화시키는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새 성품이 지금은 우리가 부인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옛 성품의 저급하고 비굴한 성향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충성과 시민권은 하늘의 왕국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왕국의 임명자로서, 아직은 외국인과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대표자이며 대사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위엄과 아울러 자긍심을 가지고 막중한 책임을 지며, 항상 바울이 한 다음의 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AUGUST 13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2 Corinthians 5:20

IF we as Christians could keep this thought always prominent before our minds what a dignity it would add to our character! what a transforming power it would be! what an assistance to the new nature in its battle with the low and groveling tendencies of the old nature now disowned by us and reckoned dead!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says the apostle....While still living in the world we are not of it, but have transferred our allegiance and citizenship to the heavenly Kingdom....And now, as appointees of our Kingdom, while still living in the world amongst aliens and strangers, we as representatives and ambassadors should feel both the dignity and the honor of the position and the weighty responsibilities, and ever keep in memory the apostle's words, "Whatsoever ye do in word or deed, d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8월 14일

마태 10: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무리 정중하게 설파되더라도, 진리는 모든 방향에서 찌르는 칼과 같은 것이며, 주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종종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갈라서게 하는데,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한 주의 가르침과 진리를 가장 현명하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 나중에는 잘못 이해되어 질 수도 있지만, 진리를 충실하게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당연합니다;--우리는 어떤 종류의 무법상태도, 이에 참여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오히려 의와 가장 높은 법인 하느님의 법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AUGUST 14

It is enough for the disciple that he be as his Master, and the servant as his Lord. If they have called the Master of the house Beelzebub, how much more shall they call them of His household? Matthew 10:25

HOWEVER graciously stated, the Truth is a sword which penetrates in every direction, and which as our Lord foretold, frequently sets parents against children and children against parents, because the darkness hateth the light and opposeth it in every possible manner....In view of the Lord's teachings regarding this subject, and of how the wisest presentation of it may be ultimately misconstrued, it behooves every one who would serve the Truth faithfully to be as careful as possible not to be misunderstood;--to let it be clearly understood that we neither participate in nor advocate anarchy of any kind; but on the contrary, are standing for righteousness and the highest of laws, the divine law.

8월 15일

데살로니가 전 5:14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것은 주의 백성들 중에서 더욱 균형 잡힌 사람들은, 연약하고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용기가 너무 많아서 앞장서는 사람을 포함한--에 대하여 동정심을 갖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이러한 인내의 은혜가 자라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 참으심을 더욱 더 인식함에 따라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도록 도움 받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든지 호의를 베푸시고 초대하셨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초대와 관련하여 주와 협력함에 있어서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며, 좁은 길에서 우리 주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와 함께 걷고자하는 모든 사람을 최대한 도우도록 일깨워 줍니다.

AUGUST 15

Now we exhort you, brethren,...be patient toward all. 1 Thessalonians 5:14

THIS seems to imply that the better balanced amongst the Lord's people should look with sympathy upon and exercise patient forbearance not only toward the weak and thoso who lack courage, but toward all; including thoso who have too much courage and self-push.... Growth in knowledge helps us to grow in this grace of patience, for as we appreciate more and more the heavenly Father's patience with us it helps us to apply the same principle toward others. ...The thought that our heavenly Father has favored and called any one should make us extremely careful how we would co-operate with the Lord in respect to the call, and be as helpful as possible to all thoso who are seeking to walk with us in the footsteps of our Lord in the narrow way.

8월 16일

데살로니가 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주와 친교를 맺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매일의 시작과 끝 무렵에만 주의 축복을 간구하고 감사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모든 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헌신하였음을 기억하고자 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또한 그들이 맡은 일의 중요성에 따라, 믿음으로, 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섭리가 함께 함을 인식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입니다--주께서는 우리가 생활에서 주의 뜻과 주의 축복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두는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진보를 위해 가장 좋은 상황이며, 우리에게 대한 초대와 선택을 가장 확실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AUGUST 16

In everything give thanks. 1 Thessalonians 5:18

HAVING the condition of heart which is in fellowship with the Lord and fully devoted to the doing of His will, the Lord's people not only implore His blessing at the beginning of each day, and present their thanks at the close of each day, but in all of life's affairs they seek to remember that they have consecrated their all to the Lord, and by faith look up to Him in all the affairs of life;--and in proportion to the importance of their undertakings they, by faith, realize the association of God's providence with all the interests of life and give thanks accordingly. This is the will of God concerning us;--He wills that we live in such an attitude of constant regard for His will and for His blessing;--and He wills it in respect to us because it will be the condition most favorable to our progress in the narrow way, and which will best assist us in making 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8월 17일

데살로니가 전 5:19 “성령을 소멸치 말며”

주의 백성 가운데 있는 주의 성령은 주와 주의 대의명분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위한 “성스러운 사랑의 불꽃”에 비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불꽃은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전달되는 하느님의 전갈을 통해 점화되어지고, 그때에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집합적으로 교회에 속하여,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교회가 지식과 사랑과 주와의 친교에서 자라감에

따라 이 “성스러운 사랑의 불꽃” 은--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AUGUST 17

Quench not the Spirit. 1 Thessalonians 5:19

THE Spirit of the Lord amongst His people is compared to "a flame of sacred love" for the Lord and all connected with His cause: this flame is enkindled through the divine message in each one individually, when begotten of the Holy Spirit, and appertains, therefore, to the church collectively, under the guidance of that Spirit. In proportion as the church grows in knowledge and in love and in fellowship with the Lord this "flame of sacred love" will make it a light in the world,--a city set on a hill, which cannot be hid.

8월 18일

데살로니가 전 5: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예언이나 공개 연설을 중시해야 하더라도, 주의 백성은 들은 것을 합당한 검토와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들은 모든 것을 헤아려서, 무엇이 논리적이고 성서의 지지를 받으며 무엇이 단지 추측에 불과하며 궤변일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 분별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시험을 통과하고 성령에 부합함을 스스로 나타내는 모든 것을 굳게 붙잡는다는 관점에서 들은 것을 헤아려야 하며,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즉각 배척해야 합니다.

AUGUST 18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1 Thessalonians 5:21

HOWEVER much they should ever come to respect prophesying, or public speaking, the Lord's people should learn proportionately not to receive what they might hear without proper examination and criticism: they should prove all things that they hear, should exercise discrimination of mind, as to what is logically and scripturally supported, and what is mere conjecture and possibly sophistry. They should prove what they hear with a view to holding fast everything that stands the test of the divine Word, and shows itself to be in accordance with the Holy Spirit; and they should as promptly reject whatever will not stand these tests.

8월 19일

데살로니가 전 5:22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든 모양의 악을, 선한 모양이든 악한 모양이든, 저항하고 반대해야함을 권고합니다. 모든 겉모습의 악을 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생각--사도 바울이 원래 사용한 단어들과는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가 건전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어떤 모양이나 겉모습을 하고 있든지, 버려야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들도, 형제나 이웃이 악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건전한 정신의 영은 모든 모양의 악 뿐만 아니라 모든 겉모습의 악조차도 버려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와 진리를 위한 우리의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AUGUST 19

Abstain from every form of evil. (Rev. Ver.) 1 Thessalonians 5:22

THE exhortation is that everything that is evil, whether it have a good form or a bad form, is to be resisted and opposed....To abstain from every appearance of evil is another thought--a different one from what the apostle's words in the original would warrant; nevertheless, they represent a sound principle. We surely should abstain not only from evil things, whatever their form or garb, but we should abstain so far as possible from doing things that we know to be good, which our friends or neighbors might misunderstand and consider to be evil things. The spirit of a sound mind dictates that not only evil in its every form, but everything that has an evil appearance even, should be avoided--that our influence for the Lord and the Truth may be the greater.

8월 20일

사도 17:23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방법은 모방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현명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신뢰하지 않으며,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참 복음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라 오래된 교리이며, 새 복음이 아니라 오래된 복음--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졌고, 예수 자신과 모든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이라는 것을 보여 주기위해 힘써야 합니다. “암흑시대”로부터 기원하여 오늘날 널리 퍼져있는 오류들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오류 있는 새 교리를 날조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시대의 오류들은 버렸으며, 주와 주께서 임명하신 대표자인 사도들에 의해 선포된 처음의 원칙과 규범과 지시들로 이루어진 복음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AUGUST 20

Whom therefore, ye ignorantly worship, Him declare I unto you. Acts 17:23

THE apostle's method is worthy of imitation. All wise people distrust novelty, and incline to say that whatever is valuable has long been. We, like the apostle, should endeavor to show that the true gospel is not a new theology, but the old theology; not a new gospel, but the old gospel,--the one foretold to Abraham;...the one declared by the Lord Jesus Himself and by all His apostles. In proportion as we would show that errors prevail today, which had their origin in the "dark ages", we must show that we are not forging a new theory equally erroneous, but that we have discarded the errors of the dark ages, and have gone back to the first principles and precepts and instructions of the gospel, as announced by the Lord and His authorized representatives, the apostles.

8월 21일

마태 6: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 이스라엘인 주의 백성들은 위와 같은 생각을 정신에 계속 품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항상 영적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일상적 일들은 영속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영적 성장과 개발과 번창의 관점에서;--자녀들의 최상의 유익과 영향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자신들과 가족들을 좋지 않은, 무신적인 환경으로 이끄는 어떠한 제안도 성급히 따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안을 추종하여서는 안 됩니다;--반대로 주의 백성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야 하며, 비록 그 결과로 현재 생활이 덜 안락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AUGUST 21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Matthew 6:33

THE Lord's people of spiritual Israel will do well to bear this thought continually in mind--that spiritual interests are to be given the preference always; that temporal affairs are to be managed and controll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everlasting welfare;-- from the standpoint of spiritual growth and development and prosperi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best interests and influences upon their children. They should not only hesitate to follow any suggestion that would take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to unfavorable, godless surroundings, but they should determine that not

under any consideration would they follow such a suggestion;--that on the contrary the Lord's people should be their people, even though this meant less of the comforts and luxuries of this present life.

8월 22일

누가 2:49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모두는 주의 말씀으로 표현된 주의 성령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참 성도들은 헌신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바쳤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을 주를 위한 수탁자의 입장에서 관리합니다... 그들이 사망하는 때에도 그 사업이, 번창한 상황에서, 그들의 자녀나 친구들에게로 이전되지 않음으로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탁자의 사망 전에 수탁자에 의해서 자신이 아는바 가장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그의 수탁임무가 종료되며 자신의 회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UGUST 22

Wist ye not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 Luke 2:49

SHOULD we not all have the Master's Spirit, expressed by His words?...The Lord's true saints have no business of their own, for they gave their all to the Lord at consecration. Their business they manage as trustees for the Lord--not to be turned over at their death, in prosperous condition, to their children or their friends, possibly to their injury. It is to be used by the trustee as wisely as he knows how before death; for then his trusteeship ends, and he must render his account.

8월 23일

고린도 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가장 탁월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지속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완전히 보고 알게 될 때에는 실제적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망 역시 우리의 소망의 결실을 얻게 되고 하늘의 아버지의 약속을 충분히 소유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끝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랑은, 그 시작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시작이 없으셨던 것처럼, 사랑도 시작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특성이며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영원합니다.

AUGUST 23

And now abideth faith, hope, love, these thre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1 Corinthians 13:13

AS love is the most excellent thing, so is it the most enduring,...for will not faith practically come to an end when we shall see and know thoroughly? And will not hope practically be at an end when we shall reach the fruition of all our hopes and be possessors of the fullness of our heavenly Father's promises? Love, however, will never fail, even as it had no beginning. God is love, and since He was without beginning, so love was without beginning; because it is His character, His disposition; and as He endureth forever, so love will endure forever.

8월 24일

요한 17:11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아름답게 표현하신 주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하느님의 가족의 축복된 연합의 영광을 일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 신뢰, 동정심, 사랑, 영예, 서로 소유함에 있어서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이 연합이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장래의 일이었으며, 현시점에서도 그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열망하도록 가르침 받는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AUGUST 24

Holy Father, keep through Thine own name those whom Thou hast given Me,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John 17:11

AS we come to consider this beautiful expression of the Lord's sentiments with reference to the church, we catch a glimpse of the glory of the blessed oneness of the divine family. It is a oneness of purpose, a oneness of confidence, a oneness of sympathy, a oneness of love, a oneness of honor, and a oneness of mutual possession. This oneness our Lord described as already existing between Himself and the Father,

but so far as His disciples are concerned it was and still is prospective; and its full accomplishment is the ideal goal toward which we are taught to aspire.

8월 25일

요한 1서 3:2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부활로 변화되어, 우리의 사랑하는 구속자와 같이 되고, 그를 계신 그대로 보며, 큰 “에피파니아(출현)”의 때에 그의 영광을 함께하며, 왕국의 영광 가운데서 하느님의 아들들이 빛을 비추게 되리라는 희망은 우리를 열중시켜서--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모든 의무와 특권과 기회를 위해 우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주와 믿음의 가족을 위해 섬기게 합니다. 이러한 희망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닳과 같은 역할을 하여왔다면, 지금 그가 임재하여 계시는 때에, 그의 “아포칼립시스”--왕국 영광 가운데 그의 나타나심--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AUGUST 25

We know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1 John 3:2

LET the hope that we shall soon experience our resurrection change, and be made like our dear Redeemer, and see Him as He is, and share His glory in the great "epiphania," or shining forth of the sons of God in the glory of the Kingdom, enthuse us--let this energize our hearts, loose our lips, and strengthen us for every duty, privilege and opportunity--to serve our Master and the household of faith. If this hope has been an anchor to the Lord's people for so many centuries, how much more does it mean to us who are living now in the very time of His presence, waiting for His "apokalupsis"--His revealing in the glory of the Kingdom!

8월 26일

고린도 전 13:4 “사랑은... 친절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비행자를 고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듯이, 모든 가족 같은 사람들의 장점 결핍에 대해서도 반드시 말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중함은 항상 그리스도인 성품의 한 부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광택제 역할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단지 걸치장이 아니라, 생명의 영--사랑--으로 길러지는 마음의 정서를 나타냅니다. 사랑은 관대함, 참을성, 친절, 등으로

인도하며, 저항을 당하더라도 불친절한 언사를 자제하며, 자기의 책임이 허용하는 한 똑같은 방법으로 맞상대하기를 피할 것입니다.

AUGUST 26

Love...is kind. 1 Corinthians 13:4

IT is no more obligatory upon the Lord's people to denounce every wrongdoer whom they may meet in the street than it is for them to tell all homely persons they may see of their lack along the lines of beauty. ...Politeness is always a part of Christian character. In the world it may be a polish, but in the Christian it is not merely a veneer, but represents the true sentiments of the heart, developed along the lines of the spirit of life--love. Love leads to gentleness, patience, kindness, etc., and even in the case of disobedience it will hesitate to utter an unkind word, and will avoid the same so far as duty will permit.

8월 27일

고린도 후 5:16 “우리가 이제 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그리스도의 몸인 다른 성원들의 육체적 약점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적 약점은 싸워 이겨야하며, 그것들은 ‘새 창조물’의 유익을 위해 엄밀한 치료를 종종 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창조물과 그의 연약하고 멸성인 육체와는 구분해야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의 유익과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의 나쁜 행로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바로 잡아 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의는 두 부류의 차이를 알게 하는데, 개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고, 반면에 개심하는 사람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AUGUST 27

Henceforth know we no man after the flesh. 2 Corinthians 5:16

THE apostle did not mean that we should pay no attention to the shortcomings of the flesh, either in ourselves or in other members of the body. All fleshly weaknesses

should be striven against, and they may frequently demand rigorous treatment in the interest of the New Creature; but nevertheless, we are to distinctly differentiate between the New Creature and his weak mortal body, and are to love and sympathize with the brother, while it may be necessary for us, in his interest, and also in the interest of the church, to reprove or rebuke or otherwise correct his wrong course. The apostle's definition as to how we are to know the two classes apart is that the unregenerate will mind the things of the flesh, while the regenerate will mind the things of the Spirit.

8월 28일

디모데 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기 내용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그가 불편해하거나 때 아니게 찾아가서 억지로 강요함으로써 이성과 예절의 법을 범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아무리 불편한 때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기회를 붙잡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의 주 사업이며, 생명 자체도 그것에 종속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위한 어떠한 기회도 제쳐두어서는 안 됩니다.

AUGUST 28

Preach the Word; be instant in season, out of season. 2 Timothy 4:2

This cannot mean that we are to violate the laws of reason and decency by intruding the good tidings upon others at times inconvenient and unseasonable to them; but it does mean that we are to have such a love for the Truth, such an earnest desire to serve it, that we will gladly accept the opportunity to do so, however inconvenient it may be for ourselves. It is the chief business of our lives, to which life itself even is subservient, and hence, no opportunity for service must be laid aside.

8월 29일

야고보 4: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올바로 기도하고, 일하며, 올바른 희망을 가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며, 주의 말씀과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주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방법을 속히 경청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주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디게 합시다;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과 방법을 항상 추구하도록 하는 그리스도인 성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AUGUST 29

Ye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e ask amiss. James 4:3

LET us learn to pray aright, as well as to labor and to hope aright; and in order to do so let us be swift to hear, slow to speak, swift to hearken to the Word of the Lord and to the lesson which He has already given us, and to His method of instructing us and guiding us and blessing us. Let us be slow to tell Him what our preferences are; indeed let us seek to attain that development of Christian character which will permit us always not to seek our own wills, but the will and the way of our Father in heaven.

8월 30일

마태 5:16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는 모든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 머리와 어깨에 해당하는 지위--“수천 명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모두가 사랑스러운 자”--를 갖게 된다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고, 현재--예수께서 온 세계의 왕으로 선포되기 전-- 그리스도의 몸 구성원과 친교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인간들의 일에서 영예로운 지위로 선택하신 자들의 관대하고 고상한 성품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역시 진실입니다.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 예수와 함께하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선택된 자들의 마음의 관대함과 도덕적 고상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그들의 건전한 정신의 영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AUGUST 30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Matthew 5:16

NOT only shall it be true that the Lord's Anointed One shall be head and shoulders above all others, "the chiefest among ten thousand, the one altogether lovely," but it should also be true to a considerable extent that all those who are intimately associated with the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in the present life--before He is proclaimed King of the whole world--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largeness and grandeur of

character in those whom the Lord is choosing for this place of honor in the affairs of men. They should be able to take knowledge of them that they have been with Jesus, should see their largeness of heart, their moral heights--should discern in them the spirit of a sound mind.

8월 31일

다니엘 3:17, 18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히브리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한 답변--“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숭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세 명의 히브리인처럼, 우리도 주이신 우리 하나님만 숭배하고 섬기도록 합시다--어떠한 형태의 분파주의도, 아무리 매력적인 보상을 주는 부의 신도, 명예도, 친구도, 자기 자신도 숭배하거나 섬기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라고 우리의 주이시며 머리이신 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AUGUST 31

If it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thy hand, O king; but if not, be it known unto thee,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thy gods, nor worship the golden image which thou hast set up. Daniel 3:17,18

THE answer of the Hebrews to Nebuchadnezzar,-- "Our God whom we serve," is worthy of note. They not only acknowledged God and worshipped Him but they additionally served Him, according as they had opportunity....Let us resolve, dear brethren, as did the three Hebrews, that we will worship and serve only the Lord our God--that we will neither worship nor serve sectarianism, in any of its many forms, nor mammon, with its enticements and rewards, nor fame, nor friends, nor self. God "seeketh such to worship Him as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is the declaration of our Lord and Head.

9월 1일

사도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선택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과 봉사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게라도 도움이나 지원을 베푼다면,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그리할 것입니다--단지 개인적 매력이나 편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서 임명하신 인도자를 인식하면서 주께로부터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SEPTEMBER 1

But the Lord said unto him, Go thy way: for he is a chosen vessel unto Me, to bear My name before the Gentiles, and kings, and the children of Israel. Acts 9:15

IT is because we see Jesus to be the Father's choice that we unite ourselves to Him; because we see the Father's character manifested in Him that we leave all to follow Him. Similarly, if we lend our aid, our support to any human being in connection with the divine plan and service, it should be simply upon this ground--not merely a personal magnetism or favoritism, but because our hearts are touched by the Lord with a realization of the leader being of His appointment.

9월 2일

베드로 전 1: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지식은 교회에서 높이 존중받아야 하며, 진보와 성장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식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주와 주의 능력--은혜--에서 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열정으로써 주와 주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장 높이 여기는 것은 적절하며, 그들은 하느님의 깊은 것들로 더욱 인도됨으로써 그들의 하느님에 대한 애착이 증명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족에서 아기와 미숙자를 돌보듯이, 믿음의 가족에서도 작은 자와 약한 자들은 돌봄과 사랑과 도움을 받음으로써 그들도 주와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SEPTEMBER 2

Seeing ye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the brethren, see that ye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1 Peter 1:22

KNOWLEDGE is to be highly esteemed in the church, and to be regarded as an evidence of progress, of growth; for none can grow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in grace--unless he grows also in knowledge. We properly esteem most highly those whose love for the Lord and for His Truth are evidenced by zeal in the study of His Word, and whose favor with God is evidenced by their being guided more and more into the deep things of God. Nevertheless, as in the earthly family we love and care for the babes and immature, so also in the household of faith the little ones and the dwarfs are to be cared for and loved and helped that they may grow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9월 3일

호세아 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느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신의 뜻과 마음을 주께 바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바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사람은 주께서 받아들이시는 희생제물을 바칠 수 없습니다. “순종이 희생제물보다 낫다는 점을 주시 하십시오”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별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야 할 교훈입니다. 순종의 영을 가지는 것 역시 필요하며, 순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더욱 알고자 힘씁니다. 이러한 반열에 대하여 성서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찾아졌고 나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께서는 “오 나의 하느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당신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EPTEMBER 3

I desired mercy, and not sacrifice; and the knowledge of God more than burnt offerings.
Hosea 6:6

HE who gives his will, his heart, to the Lord, gives all; he who gives not his will, who comes not in obedience of heart unto the Lord, can offer no sacrifice to the Lord that could be acceptable. "Behold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is a lesson which should be deeply engraved upon the hearts of all the sanctified in Christ Jesus. To have the

spirit of obedience is necessary too, and whoever has the spirit of obedience will not only obey the divine will, but will seek to know the divine will more and more that he may obey it. It is of this class that the Scriptures declare, "His word was found and I did eat it;" and again, in the words of our Lord, "I delight to do Thy will, O My God: Thy law is written in My heart."

9월 4일

요한 1서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움의 영향력은 실로 강력하고 현저하며 무서운 것이지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주를 알게 된 사람들과 주를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주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울의 조약돌을 보고도 거대한 두려움과 절망에 휩싸일 것이라고 “성서에 적혀 있습니다.” 믿음의 투석기는 약속의 말씀을 강력하게 투척하여 적을 죽이고 그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출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하느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신뢰하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뚜렷한 분파주의에 대항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에게 왔지만, 나는 당신들이 모독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SEPTEMBER 4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casteth out fear, because fear hath torment. 1 John 4:18

MIGHTY, imposing and terrifying indeed is the influence of fear, except upon those who have learned to know the Lord through previous experiences, and to trust Him even where they cannot trace Him. The giant of fear and despair must be met with the pebble from the brook, "It is written." The sling of faith must propel the word of promise with such force as to slay the adversary and to deliver us from his dominationThus armed only with the Word of God, and trusting in His rod and staff, we may well be courageous and answer imposing sectarianism as David answered the Philistine, "Thou comest to me with a sword and a spear and a javelin: but I come to thee in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which thou hast defiled."

9월 5일

아가 8:6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대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사람과 모든 선한 원칙의 적으로서, 보이는 즉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잠시 동안이라도 마음을 오염시키게 되면, 거룩한 영과 사랑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투기는 그 자체로 잔인한 괴물일 뿐만 아니라, 그 독 이빨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화를 분명히 초래하며, 그것을 품는 사람들까지도 일상적인 비통함과, 나아가서는 멸망에 까지 이르게 합니다. 투기는 마음에 생각하는 죄이고 악이며, 급속히 그 죄와 악을 행동으로 쉽게 인도합니다. 정신이 일단 투기로 오염되면, 완전히 제거되기가 아주 어려우며, 급속도로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색깔과 성격으로 동화시킵니다.

SEPTEMBER 5

Jealousy is cruel as the grave: the coals thereof are coals of fire, which hath a most vehement flame. Canticles 8:6

JEALOUSY is one of the great foes that confronts every Christian. It should be slain on sight as an enemy of God and man and of every good principle; and to the extent that its presence has defiled the heart even for a moment, a cleansing of the spirit of holiness and love should be invoked. Jealousy is not only a cruel monster of itself, but its poisonous fangs are almost certain to inflict pain and trouble upon others, as well as to bring general woe and, ultimately, destruction upon those who harbor it. Jealousy is sin in thought, wickedness in thought, and is very apt to lead speedily to sin and wickedness in action. The mind, if once poisoned with jealousy, can with great difficulty ever be cleansed from it entirely, so rapidly does it bring everything within its environment to its own color and character.

9월 6일

시 91: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아무 것도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육체적 관심사, 편안함, 또는 일상사를 간섭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욕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주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국 약속의 새 창조물로서, 어떠한 외부의 영향력도 우리의 실제 관심사와 영적 관심사를 간섭할 수 없으며, 주께서 자신의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영광을 갖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께 대한 우리의 신뢰 상실과 불충실만이 우리를 주의 사랑과 약속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SEPTEMBER 6

There shall no evil befall thee. Psalm 91:10

NOTHING shall by any means hurt us. Things may interfere with our fleshly interests or comfort or course of affairs; but when we remember that we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that it is as New Creatures that the Lord has promised us the Kingdom in His due time, we can realize that no outside influence can interfere with our real interests, our spiritual interests, nor hinder our attaining to the glories of the Kingdom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His faithful ones. Only our loss of confidence in the Lord and our unfaithfulness to Him could separate us from His love and His promises.

9월 7일

고린도 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 창조물들은 서로를 육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서 압니다. 각자의 영과 정신 속에는 고상한 생각과 높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육체에 따른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진실 되고, 품위 있고, 순결합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새로운 관점의 뜻과 목적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간의 우정은 세상과 육체와 적의 악한 영향력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안 서로의 힘을 인식하면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어떠한 말과 글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물들 간에 존재하는 사랑과 우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는 옛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SEPTEMBER 7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2 Corinthians 5:17

THESE New Creatures in Christ Jesus know each other not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In each other's spirits or new minds there are the noblest sentiments, the highest aspirations, that which is good, true, noble, pure--whatever may be their weaknesses according to the flesh. They love each other from the new

standpoint of intention, will, harmony with God, and their friendship for one another grows increasingly as they perceive each other's energy in fighting the good fight of faith against the evil influences of the world, the flesh and the adversary. Nor tongue nor pen can properly express the love, the friendship, which subsists between these New Creatures in Christ Jesus, to whom old things have passed away, and all things have become new.

월 8일

야고보 4:4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느님께서서는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하느님의 백성들의 선택에 맡기셨는데, 그들은 하느님과의 우정 및 교제와 세상과의 우정 및 교제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의 사랑과 악한 행동과 생각과 말들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며,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하느님과의 교제를 잃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성령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사람이 아닙니다.”

SEPTEMBER 8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s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James 4:4

GOD has purposely placed the matter in such a position that His people must take their choice, and lose either the divine friendship and fellowship, or the worldly friendship and fellowship; because those things which the Lord loves are distasteful to the worldly, and those things which the worldly love, evil deeds and evil thoughts, evil-speaking, are an abomination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ose who love and practice such things lose His fellowship-- they are not of His Spirit. "If any man have not the Spirit of Christ, he is none of His."

9월 9일

빌립보 2:15, 16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진리를 전하는 일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되는 것이 모든 하느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신의 빛을 비추고, 진리를 다듬고 빛내는 일에서--. “진리를 다듬고 빛내는 일!”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도록 생명의 말씀에 아주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그에 대한 오류가 분명해진 뒤에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오류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충실하게 제거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것이 교리 상의 오류이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상의 언행에 관한 오류이든지 간에--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진리의 순결한 빛이 가능한 한 방해를 받지 않고, 깨끗하고 투명한 상태로 비춰질 것입니다.

SEPTEMBER 9

That ye may be blameless and harmless, the sons of God, without rebuke, in the midst of a crooked and perverse nation, among whom ye shine as lights in the world; holding forth the word of life. Philippians 2:15,16

IT is the duty of every child of God to be very active in the dissemination of the Truth--in letting his light shine, and in keeping it trimmed and burning. "Trimmed and burning!" what does it mean? It means that we must give very close attention to the words of life that we may come to an exact knowledge of the Truth, and that we must carefully and faithfully trim away every vestige of error as fast as it becomes apparent to us--whether it be an error in doctrine or in our daily walk and conversation--so that the pure light of divine truth may shine out with as little obstruction as possible through the medium of a clear and transparent character.

9월 10일

에베소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기질은 양심을 가립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면 항상 옳은 것이므로, 하느님께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상이라고 말씀 하셨을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험담이나 중상을 육체의 일이나 악과 같이 정죄하실 때, 하느님께서 거짓이나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중상은 바로 중상인 것이며,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러하며, 하느님의 법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에서도 그러합니다. 중상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할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이며,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관계없으며, 세상의 법도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해를 입히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SEPTEMBER 10

Let no corrupt communication proceed out of your mouth, but that which is good to the use of edifying, that it may minister grace unto the hearers. Ephesians 4:29

THE depraved taste hedges itself behind conscience, and declares that it is always right to speak the truth, and hence God cannot have meant that speaking the truth would be slander; but that in condemning evil speaking and slander, as works of the flesh and the devil, He must have meant the speaking of that which is false, untrue. This is a great mistake: a slander is equally a slander, whether it be true or whether it be false, and is so regarded, not only in the law of God, but also in the laws of civilized men. A slander is anything which is uttered with the intention of injury to another, whether true or false, and the laws of men agree with the law of God, that such injury to another is wrong.

9월 11일

누가 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투, 증오, 적의, 분쟁, 박해 등을 불러 왔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의 주께서는 그들을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걸으셨던 것과 동일한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도 주의 것과 유사한 종류 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와 하느님의 대의명분을 섬기고 우리의 주인이며 인도자께서 지시하신 대로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반대 등을 겪을 것입니다.

SEPTEMBER 11

Whosoever doth not bear his cross, and come after Me, cannot be My disciple. Luke 14:27

THE Lord's cross-bearing consisted in the doing of the Father's will under unfavorable conditions. This course brought upon Him the envy, hatred, malice, strife, persecution, etc., of those who thought themselves to be God's people, but whom our Lord, who read

their hearts, declared to be of their father, the devil....Since we are walking in the same "narrow way" that our Master walked, we may reasonably expect that our crosses will be of similar kind to His--oppositions to our doing the will of our Father in heaven--oppositions to our serving His cause and letting the light shine out as our Master and Leader directed.

9월 12일

누가 21:19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완전히 일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완전하고 갖추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는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매우 명백하게, 인내는 다른 은혜의 성품들을 포함합니다.--어느 정도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인내는 분명히 믿음의 다음에 위치하며, 인내의 정도로써 일반적으로 믿음의 양을 측정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을성이 없고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주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주의 은혜로운 약속에서 쉼을 얻고, 그 약속들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열심과 힘을 다한 후에, 그는 그 결과와 시간과 때를 주께 맡기면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SEPTEMBER 12

In your patience possess ye your souls. Luke 21:19

"LET patience have her perfect work, that ye may be perfect and entire, wanting nothing," the apostle explains. Very evidently patience, therefore, includes other graces of character--implies their possession to a certain extent. Amongst the Lord's people patience surely must be preceded by faith, and the degree of patience very generally measures the amount of faith. The Christian who finds himself impatient and restless evidently is lacking in faith toward the Lord; for otherwise he would be able to rest in the Lord's gracious promises, and wait for their fulfilment. After using reasonable diligence and energy he should be content to leave the results and times and seasons with the Lord.

9월 13일

시 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의 주와 같이, 평화 조성자가 되기를 추구하며, 평화의 띠 안에서, 성령의 연합 가운데 있는 모든 형제와 함께 거하도록 합시다. 대적과 모든 죄악--우리의 지체, 우리의 타락한 육체를 포함하여--에 대하여 우리의 활동과 우리의 전투 등을 수행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모든 형제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전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사랑할만하고 도움 되는 자질을 집결하여, 서로서로 세워주며, 기회가 되는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히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SEPTEMBER 13

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 Psalm 133:1

LIKE our Lord, let us seek to be peacemakers, and to dwell together with all the brethren in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s of peace. Let our activities, our combativeness, etc., be engaged against the great enemy and all the works of sin,--including those in our members, our own fallen flesh. We, and all the brethren, will thus find sufficient engagement for every combative element of our nature, in ways well pleasing to the Lord, and employment for every lovable and helpful quality we possess, in building one another up, and doing good unto all men as we have opportunity, especially to the household of faith.

9월 14일

베드로 전 2:12, 19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우리는 비방당하고 중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원칙에 대한 충성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생활의 행실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느님의 이름과 대의에 영예를 돌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과 왕국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SEPTEMBER 14

Having your conversation honest among the Gentiles: that, whereas they speak against you as evildoers, they may by your good works, which they shall behold,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For this is thankworthy, if a man for conscience toward God endure grief, suffering wrongfully. 1 Peter 2:12,19

WE may be evil reported of and slandered, but all who know us, who have dealings with us, should find from experience our loyalty to principle, our endeavor that the words of our mouths as well as the meditations of our hearts and the conduct of life should be pleasing to the Lord and an honor to His name and cause, that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Christ, to whom belongs the glory and the Kingdom forever.

9월 15일

고린도 후 6: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영적인 면에서 세상과 분리되어 양심적으로 살며, 마음의 할례와 하느님의 가족으로의 입양을 자백하는 사람들만을 형제들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윤리주의자, 자유주의자, 고등비평가 뿐만 아니라 대중들로 부터도 반대를 받게 되는데, 그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그들의 어두움을--교리적인 면이나 다른 면에서--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유일한 안전한 행로입니다. 멀리 갈수록 더 좋고 참 이스라엘만이 형제들로서 인식되어 짐으로써, 알곡이 가라지로부터 분리되어 저야 합니다.

SEPTEMBER 15

Come out from among them, and be ye separate, saith the Lord, and touch not the unclean thing; and I will receive you. 2 Corinthians 6:17

THOSE who conscientiously live separate from the world in spiritual matters, and recognize as brethren only those who confess to circumcision of the heart and adoption into God's family, will find themselves opposed by moralists, liberalists and higher critics, as well as by the masses, who hate the light, because it condemns their darkness--doctrinal and otherwise. Nevertheless, this is the only good and safe course to pursue. Better far is it that only true Israelites should be recognized as brethren, and thus the true wheat be separated from the tares.

9월 16일

시 29: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만약 당신이 극복할 수 있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거나, 그 결과로서 인내, 경험, 형제 애정, 동정심과 사랑의 성품을 배양한다면, 기뻐하시고 감사와 함께 하느님의 은혜와 도움을 인식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시험이 견디기 힘들만큼 과중하면, 그래서 당신을 압박하여 부숴버릴 정도이면, 그 문제를 위대하신 ‘짐_지시는 분’께 가져가시고, 당신에게 좋은 것은 짐을 져 주시고, 당신에게 좋지 않거나 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 부터는 벗어나도록,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SEPTEMBER 16

The Lord will give strength unto His people; the Lord will bless His people with peace.
Psalm 29:11

IF you have trials and temptations which you are able to overcome, and which are working out in your character patience, experience, brotherly-kindness, sympathy and love, rejoice and offer the prayer of thanksgiving and acknowledgment of divine mercy and help. If your trials seem heavier than you can bear, and likely to crush you, take the matter to the great Burden-bearer, and ask His help in bearing whatever would do you good, and release from all that would do you no good, but which would injure you.

9월 17일

골로새 1:27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모든 하느님의 참 자녀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과는 독립적인, 명확한 개인적 그리스도인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는 다른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고 예증된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생활의 원칙과 같은 것들을 끌어내야 하며, 그것들로 인해 성품을 확립하고 자신만의 영적 개성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영적 개성은 명확하고 확실하여야 하며, 그렇게 할 때, 비록 자신들의 영적 생활을 통해 맨 처음 우리들을 양육하였고, 우리의 성품을 완성시켜주었던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가 떨어져 나가더라도(사도가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한--히브리 6:4-6; 갈라디아 1:8), 우리들은 계속 살며, 진리의 성령에 우리 자신을 계속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SEPTEMBER 17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27

EVERY true child of God must have a definite individual Christian character which is not dependent for its existence upon the spiritual life of any other Christian. He must from the Word of Truth, proclaimed and exemplified by other Christians, draw those principles of life, etc., which give him an established character, a spiritual individuality of his own. So positive and definite should be the spiritual individuality of every one, that, should even the beloved brother or sister whose spiritual life first nourished ours and brought us forward to completeness of character fall away (which the apostle shows is not impossible--Hebrews 6:4-6; Galatians 1:8), we would still live, being able to appropriate for ourselves the Spirit of Truth.

9월 18일

출애굽 33:14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주께서는 그의 백성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돌보시며,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며, 우리의 세속적, 영적 필요를 돌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주께 사랑으로 헌신한 우리의 모든 감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훈련과 단련을 위하여 우리 주위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가 주께 도움과 동정과 우정을 가납르게 요청할 때 들어주십니다. 주께서는 한시라도 한눈을 팔지 않으시며, 우리가 정오의 바쁜 시각이나 고요한 한 밤중에 주를 부르더라도 그러하십니다. 그러한 영속적인 충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한 하느님의 실제 자녀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러한 그의 입양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SEPTEMBER 18

My presence shall go with thee, and I will give thee rest. Exodus 33:14

THE Lord is ever present with His people. He is always thinking of us, looking out for our interests, guarding us in danger, providing for us in temporal and spiritual things, reading our hearts, marking every impulse of loving devotion to Him, shaping the influences around us for our discipline and refining, and hearkening to our faintest call for aid or sympathy or fellowship with Him. He is never for a moment off guard, whether we call Him in the busy noon hours or in the silent watches of the night. How blessed the realization of such abiding faithfulness! And no real child of God is devoid of this evidence of his adoption.

9월 19일

요한 17: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영적 생활의 진보와 발전을,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연관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모든 자녀는 하느님의 말씀에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조심해야하며,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느님의 말씀과는 따로 떨어진 그러한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자만심과 자랑을 키우고, 성서의 경고와 충고를 무력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기만당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에 더 높은 선생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기만적인 술책을 사용하여, 그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합니다.

SEPTEMBER 19

Sanctify them through Thy Truth: Thy Word is Truth. John 17:17

OUR Lord always links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our spiritual life with our receiving and obeying the Truth, and every child of God should beware of that teaching which claims to be in advance of the Word, and that Christ or the Holy Spirit speaks to such advanced Christians independently of the Word. It cultivates spiritual pride and boastfulness, and renders powerless the warnings and exhortations of the sacred Scriptures because the deluded ones think they have a higher teacher dwelling in them. And Satan, taking advantage of the delusion, leads them captive at his will.

9월 20일

이사야 57:15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록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주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거나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새 창조물인 주의 백성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에 빠질지라도, 주와의 친교와 용서를 갈구한다면, 마음이 통회하고 상한다면, 낙담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모든 죄로부터 조건 없이 받아들이시고 의롭게 하시는 마련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사도는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SEPTEMBER 20

Thus saith the high and lofty One that inhabiteth eternity, whose name is Holy; I dwell in the high and holy place,...to revive the spirit of the humble, and the heart of the contrite ones. Isaiah 57:15

LET us ever keep in memory tha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the Lord never despises, will never spurn. Therefore, into whatever difficulty any of the Lord's people of the New Creation may stumble, if they find themselves hungering for the Lord's fellowship and forgiveness, if they find their hearts contrite and broken, let them not despair, but remember that God has made a provision through the merit of Christ which enables Him to accept and justify freely from all sin all that come unto Him through Jesus-- through faith in His blood....Those who have broken and contrite hearts on account of their sins may know that they have not committed "the sin unto death," for their condition of heart proves this, as the apostle declares: "It is impossible to renew again unto repentance" any who have committed the sin unto death.

9월 21일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적은 무리의 양들은 주께서 호의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에 계시며, 이미 지불된 대속가격에 호의를 보이셨기 때문에 해를 당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는 약속의 말씀--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라, 단지 부활 때까지 예수 안에서의 평온한 잠이라는 보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마음에서 우러난 노래와 선율을 주께 드리고,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고귀한 피로써 우리를 사셨으며 경애하는 우리의 구속자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주신, 주의 크시고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웅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SEPTEMBER 21

Yea,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Psalm 23:4

THE sheep of the little flock fear no evil because of the Lord's favor, because He is with them, on their side, and has shown His favor in the redemption price already paid. He is with them, too, in His word of promise--His assurance that death shall not mean extinction of life, but merely until the resurrection, an undisturbed sleep in Jesus. What wonder that these can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singing and making melody in their hearts to the Lord, calling upon their souls with all that is within them to praise and laud and magnify His great and holy name, who loved us and bought us with His precious blood, and has called us to joint-heirship with our dear Redeemer.

9월 22일

시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베일의 건너편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미 여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렇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 주의 기쁨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분명히 왕국에서 주의 기쁨에 준비되어있지 않을 것이며, 천년기 동안에 왕국의 관리 아래에서 어떠한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되더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의 충실한 자들에게 주어진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그들이 처음 주께 받아드려질 때와 자신을 주께 헌신할 때처럼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랜 과거처럼 회상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의 일처럼 인식되고 감사히 여겨져야 합니다. 나날이 하느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따르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축복하여 줍니다.

SEPTEMBER 22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Psalm 23:6

THE goodness and mercy which we anticipate beyond the veil has its beginning here already and is thus to be appreciated. Whoever knows nothing of the joys of the Lord in the present time will evidently not be prepared for the joys of the Lord in the Kingdom, whatever blessings and joys he may attain to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Kingdom during the Millennial Age. There is then joy and rejoicing granted to the Lord's faithful ones, not a momentary matter connected with their first acceptance of the Lord and

their consecration of themselves to Him. The goodness and mercy of the Lord is not to be looked back to as a thing of the remote past, but is to be recognized and appreciated as a thing of the present. Day by day God's goodness and mercy follow us, refresh us, strengthen us, bless us.

9월 23일

유다 3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한 우리의 선한 싸움은 상당 부분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으며, 그것은 하느님의 성품을 지키는 것도 역시 포함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고 공격자--주와 사도가 알려주었으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백성에게 알려질 큰 기쁨 주는 좋은 소식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의 신조와 이론--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의미할 것입니다. 사도가 “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다시 말한 것처럼, 우리도 진리를 지키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하느님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를 대표하며, 그렇기에 우리의 규범이며, 진실한 병사로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규범을 지켜야합니다.

SEPTEMBER 23

Ye should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delivered unto the saints. Jude 3

OUR good fight of faith consists in a considerable measure in our defense of the Word of God, which includes also our defense of the character of God. This will mean our willingness to stand for the Truth at any cost and against any number of assailants--against the creeds and theories of men, which would misrepresent the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the Lord and the apostles have announced, and which shall, thank God, yet be unto all people. As the apostle again says, "I am set for the defense of the Truth." We can do no less than defend the Truth. The Truth is God's representative, Christ's representative, and hence our standard, and as true soldiers we must defend our standard, even unto death.

9월 24일

고린도 전 9:27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 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몸, 육체는 죽은 것으로 여겨졌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성품은 그 상승 상태를 유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로서의 상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살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에 대한 새 정신의 싸움은 그것이 타락한 성품에 속한 죄와 약점에 대한 싸움이라는 의미에서 선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새 창조물’의 전체 행로가 믿음의 행로라는 의미에서 믿음의 싸움인데, 사도가 “우리는 봄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걷습니다.”라고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자신의 육체와 그 성향과 욕망에 대한 이 싸움을, 자신의 조력자로서의 약속과 주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싸워 나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SEPTEMBER 24

I keep my body under, and bring it unto subjection: lest...I myself should be a castaway.
1 Corinthians 9:27

THERE is a tendency for the body, the flesh, to arise from its condition of reckoned deadness, hence the new nature needs to be continually on the alert to maintain its ascendancy, to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and to gain the prize as an overcomer. These battlings of the new mind against the flesh are a good fight in the sense that they are fightings against sins and weaknesses that belong to the fallen nature. They are a fight of faith in the sense that the entire course of the New Creature is a course of faith, as the apostle says, "We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It is a fight of faith in the sense that no one could keep up this battle against his own flesh and its propensities and desires, except as he can exercise faith in the promises and in the Lord as his helper.

9월 25일

고린도 전 1:30 “하나님께서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사신 분께서,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스승으로서 자신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알게하셨으며, 우리의 조력자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나서 자신의 아래 제사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하시고 성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충실한 자들을 죄와 죽음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구출하셔서, 영광과 영예와 불멸성을 갖는 신성한 지체가 되게 할것입니다; --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죽은 자로부터 우리도 역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자시여!” 진실로 그는 자신을 통하여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최상으로 구원해 주실 의향과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SEPTEMBER 25

Who of God is made unto us wisdom, and righteousness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deliverance]. 1 Corinthians 1:30

HE who redeemed us, or bought us with the sacrifice of His own life, gives us, as our Prophet or Teacher, wisdom by His Gospel, to see our fallen state and Himself as our helper; as our Priest, He first justifies us and then sanctifies or consecrates us, as His under priesthood; and finally, as King, He will fully deliver the faithful from the dominion of sin and death, to the glory, honor and immortality of the divine nature; -- for "God will raise up [from the dead] us also, by Jesus." "Hallelujah! What a Savior!" Truly He is able and willing to save to the uttermost all that come unto God by Him.

9월 26일

에베소 2:20-22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루 하루가 지남에 따라, 우리는 삼중으로 이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1)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계속 예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언약궤를 메는 왕 겸 제사장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장막으로부터 성전의 상태까지 행진하고 있습니다. (3)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영과 이해력으로, 새 노래로 하느님의 은혜와 공의, 사랑과 진리를 노래하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충성스럽게 우리의 임무를 완수합시다. 그렇게 하면 오랜 기간의 우리 행로는 끝나게 되고 주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SEPTEMBER 26

Jesus Christ Himself being the chief corner stone; in whom all the building fitly framed together groweth into an holy temple in the Lord: in whom ye also are builded together for an habitation of God through the Spirit. Ephesians 2:20-22

LET us, as day after day rolls by, remember our three-fold relationship to this Temple:

(1) We are still in process of preparation as living stones. (2) AS members of the Royal Priesthood carrying the Ark we are marching from the Tabernacle into the Temple

condition; some of our number have already entered in and some are still on the way.
(3) As the Lord's people the time has come for us to know, to sing with the spirit and understanding, the new song of divine mercy, justice, love and truth. Let us be faithful in each of these respects, fulfilling our parts, and ere long our course will be ended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fill the Temple.

9월 27일

마태 4:7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치 말라”

유혹은 지속적으로 주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떤 기이한 일들을 행하고, 그럼으로써 하늘의 승인을 받고 있음을 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도록 시키신 일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승인하신 것과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위대함을 세상에 확신시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용하고 겸손하면서도 최대한 추리력을 사용하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우리의 빛을 비추고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자신의 경이로운 빛으로 불러주신 분을 찬양하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봉사자로서 합당한 종의 신분이 되고자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PTEMBER 27

Thou shalt not tempt the Lord thy God. Matthew 4:7

TEMPTATIONS continually assail the Lord's people --suggestions to do some wonderful works in His name, and to thus prove to themselves and to others that they are heaven's favorites. The lesson for us to learn is that the work which the Father has given us to do is not a work of convincing the world or of showing His favor toward us and our greatness in Him, but rather that we should quietly and humbly, yet as effectively as reason and propriety will permit, let our lights shine, and sho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us from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and from a desire to be wonder-workers to the reasonable position of servants, ministers of the Truth.

9월 28일

베드로 전 5:8,9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탄이 우리를 반대한다는 생각과 우리가 단지 혈과 육에 대하여만 아니라 권력의 상층에 있는 세력들과 악한 영에 대하여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섬뜩한 것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편에서 우리의 단호한 결정에 따라 우리가 다른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부터 큰 도움과 원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리할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단호한 저항과 주와 주의 뜻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와 주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더욱 강하여 지며,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보다 더 크십니다. 악이 드러난 뒤에 머뭇거리면 유혹의 힘을 증가 시킵니다.

SEPTEMBER 28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whom resist steadfast in the faith. 1 Peter 5:8,9

THIS thought of Satan's opposition to us, and that we are contending not merely with flesh and blood but with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wicked spirits in high positions of power, would be appalling to us did we not on the other hand realize that by positiveness of decision we acquire great helps and assistances by other unseen powers. From the moment of our positive resistance of temptation and positive standing up for the Lord and His cause, we become stronger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and greater is He that is for us than all that be against us. Hesitancy after the wrong is seen increases the power of the temptation.

9월 29일

잠언 16: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새 창조물"의 혹독한 시련 중의 하나는 자만심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영에 대한 사랑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만심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거역하며, 주께 대한 선한 용기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만 이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승리는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자만심이 완전히 낮추어지고, 죽임을 당하여,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파괴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 전투이며, 이 거인에 대하여 합당한 유일한 무기는 시냇가의 돌이며, 그것은 주의 전갈인데,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주께서 보시기에 받아들이실만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 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시에서 이처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랑이 끝나는 곳에 진정한 위엄이 시작 된다"

SEPTEMBER 29

Every one that is proud in heart is an abomination to the Lord. Proverbs 16:5

ONE of the severe ordeals of the New Creature is the conquering of the love of the spirit of worldliness under the leadership of Worldly pride challenges faith in God and obedience to Him, and only those who are of good courage and full of confidence in the Lord can overcome this giant. It is necessary, too, that the victory should be made complete--that pride should be thoroughly humiliated, killed, so that it can never rise up again to destroy us. It is an individual battle, and the only proper armament against this giant is a stone from the brook, the message of the Lord, showing us what is pleasing and acceptable in His sight, and assuring us that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and he that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s the poet has expressed it:-- "Where boasting ends, true dignity begins."

9월 30일

고린도 후 5: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 자체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격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그것은 하느님의 것이며, 마음과 혀와 손에서 하느님과 같은 것입니다--하느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속성들을 감찰하시고 살피심으로써 그것들을 완전히 제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학생으로서, 우리는 그의 학교 안에 있으며, 그가 매일 매일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훈과, 우리가 철저히 배워야 할 교훈은 사랑의 교훈입니다. 모든 다양한 용모나 지체들 중에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심에 대한 상의 증표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그 교훈에 청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관해 모두를 붙잡고 이야기 해줍니다. 시에서 “모든 사랑스러운 색깔이 빛이듯이, 모든 은혜는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SEPTEMBER 30

The love of Christ constraineth us. 2 Corinthians 5:14

IT seems impossible to describe love itself; the best we can do is to describe its conduct. Those who possess a love with such characteristics are able to appreciate it, but not able otherwise to explain it--it is of God, Godlikeness in heart, in the tongue, in the hands, in the thoughts--supervising all the human attributes and seeking fully to

control them.... As disciples or pupils of Christ, we are in His school, and the great lesson which He is teaching us day by day, and the lesson which we must learn thoroughly if we would attain the mark of the prize of our high calling in all its various features and ramifications, is the lesson of love. It takes hold upon and relates to all the words and thoughts and doings of our daily lives. As the poet has said, "As every lovely hue is light,--so every grace is love.

10월 1일

시 39:1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마도 경륜이 풍부한 모든 사람들은 혀가 다른 어떤 몸의 지체보다도 , 좋은 나쁜 간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혀보다는 다른 모든 기관을 제어하기가 쉽다는 것을 압도적으로 경험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너무나 능숙한 종이기 때문에 모든 야망과 욕정과 타락한 성향은 그것을 악을 행하기 위한 중 또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의 이 부분을 다스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정신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경각심과 지혜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나 남들에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OCTOBER 1

I will take heed to my ways, that I sin not with my tongue: I will keep my mouth with a bridle while the wicked is before me. Psalm 39:1

PROBABLY every person of experience will fully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the tongue is potent in its influence beyond any other member of the body, for either good or evil. Experience teaches also that with the vast majority it is easier to control any other organ than the tongue. So skillful a servant is it that every ambition and passion and inclination of the fallen nature seeks to use it as a servant or channel for evil. It requires, therefore, on the part of the Christian, increased vigilance, wisdom and care so as to govern this member of his body and bring it into subjection to the new mind in Christ, that it shall be, not a hindrance to himself or to others, but, on the contrary, a help in the narrow way.

10월 2일

빌립보 3:13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들을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자신의 뒤로 물리치셨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으로 인해 하느님의 시야에서 덮여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 분에게 믿음을 두며, 우리의 육체가 물려받은 결점들에 따라 다소간에 불완전한 행로를 걷고 있는 우리가 그 분의 발걸음을 따라 걷기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족이나 실패들이 가볍게 여겨지거나 빨리 잊혀 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능력이 미치는 한, 바로 잡아져야 하며,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 매일같이 하느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OCTOBER 2

Forgetting those things which are behind. Philippians 3:13

WE forget the things that are behind, because it is right that we should do so. Because God forgets them, and declares that He has cast all of our imperfections behind His back; that our imperfections are all covered from His sight, by the merit of Him who loved us and who died for us, and whom we love, and in whom we are trusting, and in whose steps we are seeking to walk with more or less imperfection according to the defects we have inherited in the flesh. We are not meaning to suggest that slips or failures should be lightly esteemed or quickly forgotten; they should be rectified to the extent of our ability, and divine forgiveness should be sought for these defects daily.

10월 3일

시 119:165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의 요청은, 점차적으로, 은혜와 지혜와 성령의 열매와 주를 섬기는 기회와 하느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닮도록 점점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라면, 누가 약속된 “모든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평화의 하느님”께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평화는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큰 악들 중의 하나를 쫓아냅니다. 그러한 것들로 채워진 마음에는 이기심과 야망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거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지배하며, 세상의 근심과 혼란을 물리치며, 대적 자신이 자기에 의해 기만 당한 대리인들을 통해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같은 불리한 상황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OCTOBER 3

Great peace have they which love Thy law; and nothing shall offend them. Psalm 119:165

OUR requests should be, increasingly, for grace and wisdom and the fruits of the Spirit and opportunities for serving the Lord and the brethren, and for growing more and more into the likeness of God's dear Son. Under these conditions who can doubt that the promised "peace of God beyond all understanding" would "guard" such "hearts" and their "thoughts?" This peace would of itself dispel one of the great evils that afflict the hearts of many. Selfishness and ambition would find little room in a heart so filled. Divine peace can dwell in our hearts, and rule in them, so as to keep out the worry and turmoil of the world, even when we are surrounded by these disadvantageous conditions--even when the adversary himself is besetting us through deceived agents.

10월 4일

마태 4:19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생활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미래에 걸쳐 유익이 됩니다. 아마도 특히 고기잡이 일--사도들이 그들의 여생 동안에 종사하였던 큰일과 같은 특별한 것--에 도움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그의 부르심에서 이것을 암시하십니다. 고기잡이 일은 활력과 기술과 적절한 미끼를 필요로 하며 낚시꾼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는 주께서 우리가 종사하도록 특권을 주신 영적 고기잡이 일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고기가 자기들을 잡으려는 사람을 발견하면 쉽게 위험을 눈치 채듯이, 사람들도 어떤 것에 붙잡힐까봐 조심하며--특히 자기들의 자유를 잃을까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사람들의 경우--그러한 방법으로 성별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OCTOBER 4

Jesus saith un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ALL of life's affairs will teach us lessons profitable throughout its future, if we will receive them. Perhaps there was something peculiarly helpful in the fishing business--something peculiarly like the great work in which the apostles were to engage the remainder of their lives. Our Lord intimates this in His call. Fishing requires energy,

tact, proper bait and that the fisherman keep himself out of sight. And these four things are requisites in the spiritual fishing in which the Lord privileges us to engage. We are to remember that as fish are easily alarmed when they find that any one wishes to take them, so humanity is shy of being captured by anything--especially if they have the least suspicion that they may lose their liberties: and thus consecration appears to the world.

10월 5일

히브리 12: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오, 얼마나 많은 하느님의 참 자녀들이, 주와 주께서 충실하게 인내한 반대에 관해 생각하고, 탐구하며, 이해하고, 숙고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피곤하여 낙심하고 중요한 상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는지요. 그들은 주의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의 안에서 나타난 것처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취지고 인식되어지지 않았던 것과 같이, 그들로부터 비취지는 빛도 인식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면에서 의를 위하여 부당한 고통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그것이, 비록 좋은 의도이더라도, 불완전한 것임을 떠 올린다면, 훌륭한 병사로서 어려움을 인내하도록 강화되고, 일을 잘 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반대 속에서도 나약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OCTOBER 5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contradiction of sinners against Himself, lest ye be wearied and faint in your minds. Hebrews 12:3

ALAS, how many of God's true children become weary and faint in their minds, and are in danger of losing the chief prize because they have failed to think upon, to study out, to comprehend, to consider the Lord and what He faithfully endured of opposition. As they would consider His perfection and how, as represented in Him, the light shined in darkness and was not appreciated, so they would expect that the light shining from them would not be appreciated either. As they would consider how the Lord suffered in every sense unjustly and for righteousness' sake, and then would reflect that their own conduct, even though well meant, is imperfect, it would strengthen them to endure hardness as good soldiers, and not to be weary in well doing, and not to faint under opposition.

10월 6일

누가 9:55, 56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 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주의 제자들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연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비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확립하신 원칙은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정도에 따라서 만, 주로부터 자비를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언제나 고발하고 정죄하는, 잘못_찾기 성격은 좋지 않은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주의 백성 모두가 조심해야할 성격입니다.... 자비, 선함, 사랑은 주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성품 요소들이며,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주의 자녀들로서 계속하여 있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OCTOBER 6

Ye know not what manner of spirit ye are of: the Son of man came not to destroy men's lives but to save them. Luke 9:55,56

SO with all of the Lord's disciples: their continual study should be to avoid that hypercritical disposition to sentence and to destroy other people while desiring mercy for themselves. The rule which the Lord establishes is that we must expect from Him mercy only in proportion as we shall exercise this grace toward others....The fault-finding disposition that is ready to accuse and condemn everybody, indicates a wrong condition of heart--one which all the Lord's people should be on guard against....Mercy, goodness, love, are the elements of character which He desires to see in the spiritual Israelites, and without which we cannot long continue to be His children.

10월 7일

마태 7: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의 약속 위에 세워졌으나 행실로 뒷받침되지 않는 희망은 모래 위에 세워진 희망입니다. 큰 시험의 때가 닥쳐서 그러한 희망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그 희망은 그것을 소유한 자를 기만하여, 그는 자신의 왕국 참여에 대한 확신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순종으로 세우고, 험로는 물론 마음으로도 주를 시인하고 찬양하며, 행실이 믿음에 부합하고, 그들의 열매로 주와의 활력 있는 관계를 증거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헤쳐 나가며,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OCTOBER 7

Every one that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not, shall be likened unto a foolish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the sand. Matthew 7:26

THE hopes built upon the Lord's promises and unaccompanied by works are hopes built upon the sand. It is only a question of time until the great testing time shall come and such hopes will be shown to be worse than useless. They will be shown to have deceived their possessor, who thought himself safe in his assurances of a share in the Kingdom....On the contrary, those who build with obedience, their hearts as well as their tongues confessing and honoring the Lord, their deeds corroborating their faith, and their fruits bearing testimony of their vital relationship with the Lord--these shall pass through all the storms of life and shall never be moved, never be shaken, because they are on the foundation.

10월 8일

갈라디아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육적이고 이기적이며 불공정하고 불의한 육체의 욕망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휘두르도록 용인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며, 매년 심을 때마다 다음번의 심기가 더 쉬워지게 함으로 사망--둘째 사망--으로 이르는 길의 끝을 더욱 확실하게 합니다. 반면에, 매년 성령으로 심고, 매년 이기심 등으로 향하는 육체의 욕망을 저항하고, 매년 새 정신과 새 뜻을 순수하고 고상하며 선하고 참된 영적 방향에서 행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며, 더 부가적인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며, 계속 인내한다면, 궁극적으로 주의 인자하신 약속과 계획--영원한 생명과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OCTOBER 8

Be not deceived,...he that soweth to his flesh shall of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he that soweth to the Spirit shall of the Spirit reap life everlasting. Galatians 6:7,8

WE sow to the flesh every time we allow the fleshly, selfish, unjust, unrighteous desires of the flesh to have sway in our hearts and lives, and each sowing makes easier the additional sowing and makes more sure the end of that way which is death--Second

Death. On the contrary, each sowing to the Spirit, each resistance to the desires of the flesh toward selfishness, etc., and each exercise of the new mind, of the new will, in spiritual directions toward the things that are pure, the things that are noble, the things that are good, the things that are true, is a sowing to the Spirit, which will bring forth additional fruits of the Spirit, graces of the Spirit, and which, if persevered in, will ultimately bring us in accord with the Lord's gracious promises and arrangements--everlasting life and the Kingdom.

10월 9일

마태 8:26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야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무서워하고 큰소리로 울부짖었다면, 시간이 흘러,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책망과 함께, 구원자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훈에 교훈이 더하여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뒤에는, 주인께서--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우리에게 주 안에서의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뢰와 더 큰 평화와 더 큰 기쁨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적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구출하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하늘의 왕국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능력에 대한 더 큰 신뢰를 기대하십니다.

OCTOBER 9

Why are ye fearful, O ye of little faith? Matthew 8:26

EACH experience should be helpful to us. If at first we were fearful and cried aloud, by and by we received the succor, with perhaps the reprimand, "O thou of little faith!" but as lesson after lesson has come to us, the Master will expect--and we should expect of ourselves--greater faith, greater trust, greater peace, greater joy in the Lord, greater confidence in His presence with us and His care over us, and in His power to deliver us from the adversary and from every evil thing, and to bring us eventually in safety to the port we seek--the heavenly Kingdom.

10월 10일

골로세 3:9,10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나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단지 우리의 정신과 뜻에 있어서만, 옛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변화는 현재의 멸성인 것이 불멸성을 입고, 현재의 부패하는 것이 부패하지 않는 것으로 일으킴을 받을 때--영광과 능력과 영적인 존재로 일으켜 질 때--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우리는 자진적인 정신을 나타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것이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감독할 때에만 주와 우리 자신에게 가장 잘 나타나고, 유용한 것임이 증명됩니다.

OCTOBER 10

Ye have put off the old man with his deeds, and have put on the new man, which is renewed in knowledge after the image of Him that created him. Colossians 3:9,10

ONLY in our minds, in our wills, have the old things passed away and all things become new. Actually, this change will be accomplished when this mortal shall have put on immortality, when this corruptible shall be raised in incorruption--raised in glory, in power, spirit beings. But meantime, in order to be counted worthy of a share in the First Resurrection, it is required of us that we shall demonstrate our willingness of mind, our earnest desire to be all that the Lord would have us be; and in no way can this be better demonstrated to the Lord and to ourselves, or prove more helpful, than by keeping a strict surveillance of our hearts and of our thoughts.

10월 11일

이사야 52:11 “여호와와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찌어다”

하느님의 방법은 하느님의 종과 악의 종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을 증거 하는 일과 진리의 대사가 되는 특권은 주의 백성을 위해 보존된 은총입니다. 주께서는 악한 영이나 타락한 악귀나 악한 남녀를 찾아서 좋은 소식의 전령이 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은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피서, 마음으로 주와 연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봉사에 대해 분개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시 50:16,17

OCTOBER 11

Be ye clean, that bear the vessels of the Lord. Isaiah 52:11

THE divine method seems to be to make a clear separation between the servants of God and the servants of evil. The privilege of testifying for God or being ambassadors

for the Truth is a favor reserved for the Lord's own people. He seeketh not the evil one nor the fallen demons nor evil men or women to be heralds of the good tidings. The Lord's people should note this matter carefully, and resent the services of any who do not give evidence of being in heart-union with the Lord. "Unto the wicked God saith, What hast thou to do to take My covenant into thy mouth? Seeing thou hatest instruction, and casteth My words behind thee."--Psalm 50:16,17.

10월 12일

마태 6:28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 주께서는 자연의 단순한 것들도 어떻게 연구되고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과 관련되어 배워야 할 교훈들은, 올바른 관점에서 창조자에 대한 믿음을 연구하고, 창조자께서는 인간의 정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고상하신 성품의 구현체이시며 대표자라는 것--공의, 지혜, 능력,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마음이 전진하고, 은혜와 지식과 사랑에 있어서 성장합니다. 적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마음은 더 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에 있어서 장애에 부딪칩니다.

OCTOBER 12

Consider the lilies of the field, how they grow. Matthew 6:28

OUR Lord calls attention to how such simple things in nature should be studied, be considered. The lessons to be learned in connection with all the affairs of life will be helpful to such as approach the study from the right standpoint, of faith in the Creator, and a realization that He is necessarily the embodiment and representative of the very highest and very noblest qualities of which the human mind could conceive;-- that He is perfect in Justice, perfect in Wisdom, perfect in Power, perfect in Love....The heart that thus considers makes progress, grows in grace, in knowledge, in love. The heart that fails to consider the little things fails to be able to appreciate the larger things, and thus is hindered from a proper consideration of God and from a proper appreciation of His plan, and thus from a proper appreciation of His character.

10월 13일

야고보 2:18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현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따라 판단될 것이지만, 행위는 요구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불완전한 행위로써 우리의 뜻과 의도의 충실함을 하느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써 주께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면, 그 믿음은 주께 가납되며 우리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왕국에의 참여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사랑하며--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도--, 그 사랑을 전시하고 나타내기 위해 생활의 행위를 통해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모든 크고 귀중한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OCTOBER 13

I will show thee my faith by my works. James 2:18

WHILE the Lord's people of the present age are not to be judged by their works but by their faith, nevertheless, works will be required. By our works we demonstrate our faith, and, thank God, imperfect works can demonstrate to Him the loyalty of our intentions, our wills....If our works demonstrate to the Lord the sincerity of our faith, that faith will be acceptable to Him and we will be counted perfect and be granted a share in the Kingdom, and all the great and precious things which the Lord has in reservation for those who love Him--not merely in word but also in deed--for those who strive by the deeds of life to show forth, to demonstrate, their love

10월 14일

잠언 21: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는 사랑 가운데 성장해야하며, 사랑은 으뜸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계발시킴에 있어서 많은 발전을 이루기 전에, 우리는 공의, 옳은 것, 의로움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에서 주어진, 사람은 관대하기 이전에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물’인 주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 공의에 관한 주제를 계속하여 연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새겨져 있는 교훈들을 매일 행동에 옮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을 세워나가기 전에 이러한 올바른 성품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올바르게 진전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의에 관한 잘못된 개념 위에 세워진 모든 사랑은 기만적이며, 주께서 제자의 자격으로 요구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OCTOBER 14

To do justice and judgment is more acceptable to the Lord than sacrifice. Proverbs 21:3

WE are to grow in love, and love is the principal thing; but before we can make much development in the cultivation of love, we must learn to be just, right, righteous....It is a proper presentation of the matter that is given in the proverb, that a man should be just before he is generous. It behooves the Lord's people, therefore, the New Creation, that they study this subject of justice continually and daily put into practice the lessons inculcated in the divine Word.... Such as get this proper foundation of character before they begin to build love will find that they are making progress properly. All love that is founded upon injustice or wrong ideas of righteousness is delusive, is not the love which the Lord will require as the test of discipleship.

10월 15일

마가 11:22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주의 추종자가 된 후부터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처럼 주에 관해 배우고 성령의 은혜와 특히 믿음에서 점점 더 발전하도록, 분명히 보이지 않는 능력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추종자로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특별히 찾으시는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조차 믿음에 따라 우리는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거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고통에 결부된 생각, 즉, 고통은 단지 약간의 아픔 일뿐이며 더욱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뤄준다는 생각으로 즐거워 할 수 있습니다.

OCTOBER 15

Have faith in God. Mark 11:22

OUR daily experiences since we became the Lord's followers have been guided and guarded apparently by the power unseen, to the intent that as pupils in the school of Christ, we may all be taught of Him and develop more and more of the graces of the Spirit, and particularly more faith. How important this item of faith is we probably cannot fully appreciate now. It seems to be the one thing that the Lord specially seeks for in those now called to be followers. ...So according to our faith will we be able to rejoice even in tribulation. We cannot enjoy the sufferings; we can enjoy the thought which faith attaches to them, namely, that these are but light afflictions working out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10월 16일

시 107:29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인간적인 열정, 반대 등과 같은 격렬한 요소들 가운데서 주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한 배를 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거나, 주께서 정하신 때에 주의 방법으로 세상에 평화를 말씀하시는 주의 권능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때때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어두운 때--폭풍이 무섭게 몰아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부르짖게 될 때--가 닥친다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현 시점의 귀중한 경험들을 잘 배워서, 그 때가 닥쳐도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합시다--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신의 귀중한 피로써 우리를 사신 분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합시다.

OCTOBER 16

He maketh the storm a calm. Psalm 107:29

WE of today represent the Lord's cause in the midst of the raging elements of human passions, oppositions, etc.,...and our hearts would be at times dismayed except as faith is able to see the Lord with us in the ship, and able to grasp the thought of His mighty power in His own time and way to speak peace to the world....It must not surprise us, however, if a dark hour is before us--if the time shall come when the stormy winds will be so fierce that many will cry out in fear and trembling. Let us learn well the precious experiences of the present time, so that then our faith shall not fail us--so that in the darkest hour we shall be able to sing and to rejoice in Him who loved us and bought us with His own precious blood, and to sing the song of Moses and the Lamb.

10월 17일

시 91:4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충성되고 믿음이 강한 자녀들을 자신의 가슴에 아주 가까이 모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말로써 “나는 당신의 장막에서--당신의 보호 아래서--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 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서원--성별--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시 61:3, 4, 5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시 59:16

OCTOBER 17

He shall cover thee with His feathers, and under His wings shalt thou trust. Psalm 91:4

SO close to His heart does Jehovah gather His loyal and faithful children that they feel the warmth of His love, and the responsive language of their hearts is, "I will abide in Thy tabernacle"--under Thy protection-- "forever:" "I will trust in the covert of Thy wings; for Thou hast been a shelter for me and a strong tower from the enemy; for Thou hast heard my vows"-- my consecration--"Thou hast given me the heritage of those that fear Thy name." Psalm 61:4,3,5

"I will sing of Thy power: yea, I will sing aloud of Thy mercy in the morning: for Thou hast been my defense and refuge in the day of my trouble." Psalm 59:16

10월 18일

잠언 18:9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는 주의 성별된 백성들 중의 누구라도 낭비성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어떤 부문에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이 점에서는 계속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물에 대한 인식과 주신 분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에 대하여 세심하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 주의 비유에 의하면, 주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또는 영적인 재능, 기회, 축복들을 우리가 사용하는가 또는 낭비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우리의 사랑과 열심을 평가하십니다

.

OCTOBER 18

He that is slothful in his work is brother to him that is a great waster. Proverbs 18:9

WE cannot see wastefulness in any of the Lord's consecrated people without feeling that, however great progress they have made in understanding the mind of the Lord in some respects, they are still deficient in this particular. An appreciation of the gift and respect for the Giver implies carefulness and a stewardship in respect to all that comes

to us from our heavenly Father--things temporal and things spiritual. According to our Lord's parables He is measuring our love and zeal in a considerable degree by our use or abuse of the talents, opportunities, blessings, temporal and spiritual, now bestowed upon us.

10월 19일

마태 10:8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에게 크게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강화시켜 준 축복된 음식을 굶주리고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줌에 있어서 깨어 있도록 합시다. 그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양식을 찾다가 길가에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서 있지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며 반드시 낙담할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생명의 빵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나 진리의 지식을 아무리 가졌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이기적으로 저장되거나 섭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께 성별되어져야 하며, 그러한 성별로부터 주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도 축복을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OCTOBER 19

Freely ye have received, freely give. Matthew 10:8

LET us be on the alert to give to all who are hungering and thirsting the blessed food which has so greatly refreshed and strengthened us. If they do not get it they will faint by the way as they go looking for other provisions. We have the very thing which all of the household of faith need; without it they cannot maintain their standing, they cannot press on, they shall surely become discouraged....Whatever we may have of financial means for sending forth the bread of life to others, or whatever we may have of knowledge of the Truth, is neither to be selfishly hoarded nor selfishly partaken of by ourselves. It is to be consecrated to the Lord, and out of that consecration the Lord will bring blessing to others and increased blessings upon our own heads and hearts.

10월 20일

마태 10:16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모두가 진리를 섬기는 노력을 함에 있어서 지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주께서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도록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행로를 통해 이 교훈을 어떤 기회에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심으로 예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진리를 언급할 적절한 때와 적절하지 못한 때가 있으며, 그것들을 제공하는 현명한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훈련받은 사랑은 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선한 것을 성취합니다.

OCTOBER 20

Be ye wise as serpents, and harmless as doves. Matthew 10:16

OH, that all of the Lord's dear people could learn the value of wisdom in connection with their endeavors to serve the Truth! Our Lord not only taught us to be wise as serpents and harmless as doves, but He exemplified this lesson in His own course, saying on another occasion to the apostles, "I have many things to tell you, but ye cannot bear them now." We, too, should learn that there are opportune and inopportune times for mentioning certain truths, and that there are wise and unwise methods of presenting them. It is not enough that we do not speak untruths; it is not enough that we speak the truth; additionally we should see to it that we speak the truth in love, and love that is trained uses wisdom that it may accomplish more good.

10월 21일

누가 11:2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예찬, 존중,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을 표현합니다. 주께 우리의 청원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들의 첫 번째 생각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이기적인 것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유익에 관한 생각이어서도 안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산에서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완전히 승인하시거나 시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손상되기에 더 큰 위험에 처하는 마음 상태는 없을 것입니다.

OCTOBER 21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Luke 11:2

THIS expresses adoration, appreciation of divine goodness and greatness, and a corresponding reverence. In addressing our petition to the Lord our first thought is to be, not a selfish one respecting ourselves, nor a thought respecting the interests of others precious to us, but God is to be first in all of our thoughts and aims and calculations. We are to pray for nothing that would not be in accord with the honor of our heavenly Father's name; we are to wish for nothing for ourselves, or for our dear ones, that He would not fully approve and commission us to pray for. Perhaps no quality of heart is in greater danger of being blotted out amongst professing Christians than this thought of reverence for God.

10월 22일

마태 20:22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좁은 길에서 우리의 주께서 보여 주신 용기는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그는 얼마나 강한 성품의 소유자 입니까! 그는 결코 뒤 돌아 설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함으로써--그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앞에 있는 훌륭한 본--겸손의 위대함과 봉사의 승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잔을 취하고 그의 죽음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그의 왕국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긴한 경험을 획득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찌꺼기로 간주하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가해질 불같은 시험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거나, 어떤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지금 우리는 주와 함께 고통을 받고 그와 함께 점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여기까지 우리가 초청받았습니다.

OCTOBER 22

Are ye able to drink of the cup that I shall drink of? Matthew 20:22

THE courage of our Lord in the narrow way fills us with admiration. What a strong character was His! He had no thought of turning back; He was intent upon

accomplishing His Father's will--upon sacrificing Himself in the interest of others. A noble pattern the apostles saw before them--greatness in humility, victory through service. It is well that we should have clearly before our minds that unless we partake of His cup and are immersed into His death, we can have no share in His Kingdom of glory. Let us then count all things else as loss and dross to obtain this necessary experience. As it comes to us let us not be fearful, nor think strange of the fiery trials that shall try us, as though some strange thing had happened unto us. On the contrary, even hereunto were we called, that we might now suffer with the Lord and by and by be glorified together with Him.

10월 23일

마태 20: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방인들 중에서는 통치자가 주인이며, 섬김을 받기는 하지만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의 경우는 그 원칙이 반대입니다;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이 존중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물의 질서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올바른 정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담겨진 원칙에 이 얼마나 완전히 동감합니까! 그들은 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세상의 영광은 이 얼마나 상반됩니까! 진실로, 주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선한 일들을 위한 그들의 열심에서--서로 섬기며, 기회가 되는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특별한 백성일 것입니다.

OCTOBER 23

Whosoever will be chief among you, let him be your servant. Matthew 20:27

AMONGST the Gentiles the rulers are lords, who do no serving but are served, but among the followers of Jesus the rule is to be reversed; he who would serve most was to be esteemed most highly. What a beauty there is in the divine order of things! How thoroughly all who are right minded can sympathize with the principles here laid down! How reasonable they are and how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world. Truly, the Lord's followers will in this sense of the word be a peculiar people in their zeal for good works --for serving one another and for doing good unto all men as they have opportunity.

10월 24일

누가 23:26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우리는 가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에 있었기에 주의 짐을 보고 달려가서 도와드리지 않았는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까? 만약 주의 십자가를 지는 도움을 드리는 특권을 시므온이 갖게 된 것을 질투하신다면, 많은 주의 형제들은 매일 상징적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주께서는 주의 충실한 추종자들에게 행해진 모든 봉사를 주 자신에게 드린 봉사로 간주하시는데 동의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추종자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지만 “형제들”은 식별하여야 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 짐을 지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OCTOBER 24

And as they led Him away, they laid hold upon one Simon,...and on him they laid the cross, that he might bear it after Jesus. Luke 23:26

WE HAVE often wondered, where were Peter and John and James that they did not see the Master's burden and run to proffer assistance? If disposed to envy Simon his privilege of assisting the Master in the bearing of the cross, let us reflect that many of the Lord's brethren are daily bearing symbolic crosses, and that it is our privilege to assist them, and that the Lord agrees to reckon any service done to His faithful followers as though it were rendered to His own person....As the wooden cross was not our Lord's heaviest burden, so, too, His followers have crosses which the world sees not, but which the "brethren" should understand. "Bear ye one another's burdens and thus fulfill the law of Christ."

10월 25일

역대 후 19:11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자와 함께 하실찌로다”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즐겁지 않은 과제를 친절한 태도로 수행하기를 꾀하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싸움을 하도록 두십시오: 주께서 감독하시고 그 결과는 결국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새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 왕국,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육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자신만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같은 하늘의 군대의 성원인 모든 사람들을 도와서 서게 하고, 몸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우두머리이신 분의 안에서 완전을 이루도록 합시다.

OCTOBER 25

Deal courageously, and the Lord shall be with the good. 2 Chronicles 19:11

WHOEVER has a duty to perform let him not fear, and while seeking to do unpleasant tasks in a kindly manner, both justly and lovingly, let us fear not man, but rather fear the Lord and be intent on pleasing Him. Let the world fight its fight: the Lord will supervise and the results will be glorious eventually. Let us who belong to the new nation, to the new Kingdom that is not of this world, use no carnal weapons, but the sword of the Spirit--let us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 lay hold upon the glorious things set before us, and not only stand ourselves, but help all those begotten of the same Spirit and members of the same heavenly army corps to stand, complete in Him who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10월 26일

베드로 전 5: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대단히 위안을 주고 격려적인 제안입니다. 하여튼, 주의 백성들은, 하느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며 그리스도 학교의 생도로서의 기간이 지속되면서, 주께 자신들의 지혜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욱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주께 자신들의 뜻이 땅에서나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요청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크든 작든 자신들의 짐을 주께 말씀드리며, 주의 동정심과 사랑을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적용해야하며, 자신들의 마음에 진정제와 같이 확실하게 위안시켜 주는 주의 말씀을 새기며, 주께서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주께 고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경험을 통해 그들에게 유익을 주실 능력과 의향이 있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OCTOBER 26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th for you. 1 Peter 5:7

THIS is a very consoling and encouraging suggestion from the Word. However, the Lord's people are to learn more and more distinctly, as their years of membership in God's family and tutelage in the school of Christ go on, that they are not to ask the Lord

to guide their efforts according to their wisdom; that they are not to request that their wills shall be done either on earth or in heaven, but rather, telling the Lord their burdens, great and small, they are to realize and appropriate to themselves His sympathy and love, and to apply to their own hearts as a balm the consoling assurances of His Word, that He is both able and willing to make all of their experiences profitable to them if they abide in Him with confidence and trust.

10월 27일

시 31:15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의 성별된 종들 모두는 그들이 어린 양의 추종자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을 희생하였으며, 그들의 성별을 계속 인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주께서 좋아하시는 언제라도 그리고 주의 섭리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경로를 통하여 완성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성별된 엘리야 반열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아시고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들의 머리카락 한 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사랑하는 대속자--엘리야 반열의 머리이신--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부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은 다음과 같은 시의 표현과 같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어떠한 몫이라도 만족하리니, 내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로라”

OCTOBER 27

My times are in Thy hand. Psalm 31:15

ALL of the Lord's consecrated servants devoted their lives to sacrifice when they became followers of the Lamb, and if they could but realize their consecration continually, they would be ready for the consummation at any moment at the Lord's pleasure and by whatever means or channel His providences may permit. The Lord's consecrated ones of the Elijah class are to remember that not a hair of their heads could fall without their Father's knowledge and permission, and the attitude of their hearts should be that expressed by our dear Redeemer--the Head of the Elijah body--"The cup which My Father hath poured for me, shall I not drink it?" The language of their hearts should be that expressed by the poet: "Content whatever lot I see, Since 'tis my God that leadeth me."

10월 28일

이사야 61:1,2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우리의 임무는 양순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식하고, 피난처와 구출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 세상의 죄를 물리치신 하느님의 어린 양에게로 인도하며, 죽음의 재를 대신하여 부활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하고, 현 시대의 억눌리고 낙담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영을 점점 대체하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의 일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침에 기뻐하시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도와서 일어서게 하고 즉시 찬양의 외투를 입게 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새 노래--우리 하느님의 사랑의 친절--를 부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OCTOBER 28

The Spirit of the Lord God is upon Me; because the LORD hath anointed Me,...to comfort all that mourn, ...to give them beauty for ashes, the oil of joy for mourning. Isaiah 61:1,2

OUR commission is to seek out the meek and the mourning ones, who have appreciated their own shortcomings and weaknesses, and who are looking for refuge and deliverance. It is part of our commission to point them to the Lamb of God, who taketh away the sin of the world, to point them to the beauty of the resurrection for the ashes of death, and the glories which the Lord has promised by and by to take the place of the spirit of heaviness and disappointment and sorrow and trouble of this present time. It is our commission to tell such that "Joy cometh in the morning," and to assist them to arise and at once put on the garments of praise, and to begin to walk in newness of life, with a "new song in their mouths-- even the lovingkindness of our God."

10월 29일

고린도 후 4:8-10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씹을 당하여도 짜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린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짚어짐은”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수치와 치욕과 시험과 박해를 즐겁게 인내하고, 주인이시며 본이 되시는 분의 경험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확신하건데, 그러한 희생으로 나타난 그들의 충성에 비례해서 미래의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가 “별마다 다른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 한 것과 같습니다

OCTOBER 29

We are troubled on every side, yet not distressed; we are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forsaken; cast down, but not destroyed; always bearing about in the body the dying of the Lord Jesus. 2 Corinthians 4:8-10

THOSE who joyfully endure for the Lord's sake, the Truth's sake, the greatest shame, the greatest ignominy, the greatest trials, the greatest persecutions in this present life, and thus have experiences most like those of the Master and Pattern, we may be sure will in proportion to their faithfulness manifested in such sacrifices, have a future great reward;--as the apostle has declared, "star differeth from star in glory."

10월 30일

마태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당신은 하느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경험과 관찰로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열심이거나 아니면 냉담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우리는 “먼저(주로) 하느님의 왕국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여야 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 주의, 생각, 힘, 영향력과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들--현 생활을 위해 요긴한 것들을 제외하고--을 그것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것들에 비례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OCTOBER 30

No man can serve two masters. Matthew 6:24

"YE cannot serve God and Mammon." Experience and observation corroborate this; and hence as a rule we find that people are either cold or hot in spiritual things...We are to "seek first (chiefly) the Kingdom of God." It is to be our chief concern and to receive from us all the time, attention, thought, energy, influence and means we have--the things needful for the present life being understood to be excepted; and our love and zeal will be manifested by the proportion of even these which we are willing to sacrifice in the interest of heavenly things.

10월 31일

시 63:3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를 맛 본 사람들과 주의 은총이 생명보다 나음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과 주의 제단 위에 모든 육적인 좋은 것들을 기쁘게 올린 사람들은, 남들에게 좋은 소식을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나오게 불러주신 분께 대한 찬양을 발하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 소식은 너무나도 좋아서 혼자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말하도록 고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말하고자 하며, 그것을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즐거워하며, 어떤 것들--고통을 당하고, 금전적 손실을 입고, 세상의 친구를 잃고, 가족관계에 단절은 아닐지라도 긴장이 생기며, 세상 사람들이나 명목적으로 교회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일들--을 대가로 치루기도 합니다.

OCTOBER 31

Because Thy lovingkindness [favor] is better than life, my lips shall praise Thee. Psalm 63:3

THOSE who have tasted of the Lord's grace, those who have come to realize His favor as better than life, and who have joyfully laid upon His altar every earthly good thing, and hope and ambition, rejoice to tell the good tidings to others; they rejoice to tell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them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ous light. The message is too good to keep; they not only do not require to be hired to tell it, but they are willing that the telling of it, and the enjoying of God's favor in connection with the telling, shall cost them something--cost them trouble, cost them money, cost them the loss of earthly friendship, cost the straining, if not the breaking, of some home ties, cost them the frown of the world and of churchianity.

11월 1일

시 141:3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감시자나 우리의 언행을 감시하기 위해 서 있는 피켓의 수는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감시하는 피켓 라인이 강할수록 비례적으로 점점 줄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부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을 통해 말합니다.” 이러한 일반적 진리는 특히 개심자의 경우에 예가 되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언행에 있어서 더 개방적입니다.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서,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비해서 그들의 표현 방식에 관해서 덜 자제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들은 사도의 다음 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 3:2

NOVEMBER 1

Set a watch, O Lord, before my mouth; keep the door of my lips. Psalm 141:3

THE number of watchmen, or pickets doing duty and standing guard over our actions and words will be fewer in proportion as the picket line guarding our minds, our thoughts, is a strong one. It is here that we need to be especially on the alert.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eth." This general truth is particularly exemplified in the regenerate, who are more open in their conduct and language, proportionately, than others. Having the right sentiments at heart they are less on their guard in respect to their manner of expression perhaps than previously; but all the more, they need to remember the words of the apostle, "If any man sin not with his lips, the same is a perfect man." --James 3:2

11월 2일

사무엘 상 3:18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최상의 복지를 위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면서, 열렬히 추구하고 붙잡기를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련과 어려움과 난국의 암흑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주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자들을 아신다”는 것과 주께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조정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참을성 있게 주를 기다려야 하며, 주의 섭리가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시는 경험들을 인내하면서, 우리를 관계하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NOVEMBER 2

It is the Lord: let Him do what seemeth Him good. 1 Samuel 3:18

WE know not what is for our highest welfare. Sometimes those things which we crave and desire to grasp, considering them to be good, might really be to our disadvantage. Blessed are they who are able by faith to pierce the gloom of every trial and difficulty and perplexity, and to realize that "The Lord knoweth them that are His," and that He is

causing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their good. We are to wait patiently for the Lord, and to take patiently such experiences as His providences may mark out for us, questioning not the wisdom, the love and the power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11월 3일

마태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살펴보지 않고 기도하는 실수를 하며,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살펴보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유일하게 적합한 방법은 우리 주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침해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살펴야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의 모든 격려와, 그것들의 성취 증거와, 주께서 임하여 계심을 나타내는 표징과, 목전에 다가온 시대의 대 격변들에 대하여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충성과 사랑에 있어서 우리를 강화시켜주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살펴야합니다; 그리고 살피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해야합니다; 우리는 가족으로서 가정에서 기도해야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해야합니다.

NOVEMBER 3

Watch and pray, that ye enter not into temptation: the spirit indeed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Matthew 26:41

SOME make the mistake of praying without watching; others make the mistake of watching without praying; but the safe and only proper method is that which our Lord directed, to combine the two. We are to watch, and to be on our guard against the encroachments of the world, the flesh and the devil. We are to watch for all the encouragements of the Lord's Word, the evidence of their fulfilment, the signs that betoken His presence and the great changes of dispensations just at hand. We are to watch for everything that will strengthen us in faith and hope and loyalty and love; and while watching we are to pray without ceasing. We are to pray together as the Lord's people; we are to pray in our homes, as families; we are to pray in secret, in private.

11월 4일

빌립보 2:7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섬기며 두 주인 모두를 만족시켜주거나, 그들의 이해가 상충할 때에 두 주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 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느님과 의를 섬기면서, 동시에 현 시대의 통치자이며 “이 세상의 군왕”인 자와 함께 하는 적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이 승인할 만한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성별된 백성 모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느님께 대하여 부유하고자 하며,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제로 부의 신과 이기심과 현재 생명을 섬기며 하늘 왕국의 유익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희생하지 않는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명성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NOVEMBER 4

He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and took upon Him the form of a servant. Philippians 2:7

AS no man is able to serve two masters and satisfy both, and do justice to both, their interests conflicting, no more can we serve God and righteousness, and at the same time be pleasing and acceptable to the adversary and those who are in harmony with him who now rules in this present dispensation, the "prince of this world." All of the Lord's consecrated people, those who would lay up treasures in heaven and be rich toward God, must be willing to become of no reputation amongst those who are not consecrated, and who, whatever their professions, are really serving Mammon, selfishness, and the present life, and not sacrificing these interests to the attainment of the heavenly Kingdom.

11월 5일

히브리 10:21, 22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 분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 깨끗하고 큰 대속의 가운데에서 확고하다면, 그리고 우리의 성별이 계속 충분하고 완전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들에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분의 뜻을 구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실로 확신에 찬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인데,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계속 그 분의 약속과 마련의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의 모든 은혜로운 섭리가 계속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신에 찬 온전한 믿음--주께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NOVEMBER 5

Having an High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let us draw near with a true heart in full assurance of faith. Hebrews 10:21,22

LET us remember that He who has begun the good work changes never, and that if our hearts are still in harmony with Him, if our faith is still clear and firm in the great atonement, if our consecration is still full and complete, so that we seek not our own wills but His will to be done in our affairs, then we may indeed have the full assurance of faith, because knowing that God is unchangeable, and knowing that we are still in line with His promises and arrangements, we know that all of His gracious providences are still being exercised on our behalf. This is full assurance of faith--full confidence in the Lord.

11월 6일

로마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의 봉사를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너무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우리에게 크나큰 애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께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자신의 성별에 결부된 상이 없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큰 상과 축복을 결부시키신 만큼,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_결여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판단력의 약함--불과 몇 해 동안의 하찮고 일시적인 자기 뜻대로의 쾌락과,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과 축복과 영광을 저울질하지 못하는--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NOVEMBER 6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Romans 12:1

TO render all we have to the Lord's service is not only a reasonable thing, but an offering far too small --far less than what we would like to render to Him who has manifested such compassion and grace toward us. And we should feel thus, even if there were no rewards attached to such a consecration of ourselves. But inasmuch as God has attached great rewards and blessings, we should feel not only that a refusal to

accept would be an indication of non-appreciation of divine mercy but an indication also of weakness of mind, of judgment, which is unable to balance the trifling and transitory pleasures of self-will for a few short years, with an eternity of joy and blessing and glory, in harmony with the Lord.

11월 7일

계시 20:4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비록 이러한 목 베임이 상징적이며 문자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_의지의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머리들, 정부들과 입법자들의 머리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하느님께서 예수의 몸인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신 예수 외에는 어떠한 머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제도권의 머리들이나 권세들로 부터의 단절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머리카락 의지로 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그 대신에 우리 주 예수의 머리 직분과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로마 6:3에서 사도가 말함으로 우리의 관심을 끈 생각과 같은 것인데, 그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래에서 그의 몸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 받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성별하고, 궁극적으로 충실하게 죽을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NOVEMBER 7

And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beheaded for the witness of Jesus, and for the Word of God. Revelation 20:4

ALTHOUGH this beheading is figurative and not literal, it nevertheless has a deep significance.... It signifies, not only death to self-will, but also to be cut off from all other heads, governments and law-givers, and to recognize no "head" but Jesus, whom God hath appointed to be the Head of the church, which is His body....It means, not only to be cut off from institutional heads and authorities, but also to cease to have heads and wills of our own, and to accept, instead, the headship, the will, of our Lord Jesus. It is the same thought that is drawn to our attention by the apostle in Romans 6:3, where he declares that we are baptized into the body of Christ, as members of that body, under the one Head, Christ, by being baptized into His death,--a full consecration of our wills, and ultimately a full laying down of our lives, faithfully unto death.

11월 8일

출애굽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비록 이 계명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들로 간주됩니다. 머리이신 분의 성스러운 이름이 몸의 구성원들 모두에게 속합니다. 신랑의 영예로운 이름이 그의 배필에게 속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주의 깊게 한다면, 우리는 적절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니지 않도록 조심하고, 세상에서 주의 대표자 및 대사로서의 나의 위치에 대한 영예와 존엄과 책임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나는 신중하게 행하고, 주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 반대로 모든 생각과 언행에서 주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도록 할 것이다.”

NOVEMBER 8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Exodus 20:7

ALTHOUGH this commandment was not given to spiritual Israel we can readily see how the spirit of it comes to us....We have taken the name of Christ as our name. We are counted as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The holy name of the Head belongs to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e honored name of the Bridegroom belongs to His espoused. What carefulness the thought of this should give us, and how appropriately we should say to ourselves:--"I must see to it that I have not taken the Lord's name in vain,--that I appreciate the honor, dignity and responsibility of my position as His representative and ambassador in the world. I will walk circumspectly, seeking as far as possible to bring no dishonor to that name, but contrariwise to honor it in every thought and word and deed."

11월 9일

갈라디아 5: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거대하고 계속적인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새 정신이 스스로 방어하고 육체를 장악하며 복종을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는, 실제로 죽지 않고, 계속하여 세상과 적들과 관계를 맺으며, 이것들에 의해 계속 자극을 받고 세상의

염려와 야망, 모략, 항쟁, 투쟁과 우리의 새 의지에 대한 불복종과 함께 활력을 되찾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안팎으로 이러한 종류의 전투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새 창조물’이 주의 은혜와 힘을 계속 받음으로써 멸성의 육체를 정복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는 그 싸움이 중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OVEMBER 9

The flesh lusteth against the Spirit, and the Spirit against the flesh: and these are contrary the one to the other: so that ye cannot do the things that ye would. Galatians 5:17

HERE is the great and continual battle, for although the new will asserts itself and puts the body under and compels its subjection to the new mind, nevertheless the mortal body, not being actually dead, is continually coming in contact with the world and the adversary and is continually being stimulated by these and reinvigorated with earthly cares, ambitions, methods, strivings, conflicts and insubordination to our new will. No saint is without experiences of this kind-- fightings without and within. It must be a fight to the finish or the great prize for which we fight will not be gained. For although the New Creature masters the mortal body by the Lord's grace and strength repeatedly, nevertheless until death there can be no cessation of the conflict.

11월 10일

고린도 전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선악의 원칙이 나의 정신에 굳게 고착되어, 나는 전적으로 의의 편에 서고 악을 대적함으로써, 비록 나에게 이익이 된다하더라도 악을 격려하지 않고 정죄할 것인가? 나는 의와 진리의 편에 서서, 비록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의견을 버리거나, 세상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진리와 진리의 정진을 기뻐하겠는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사도가 여기에서 주의 백성들의 영이라고 묘사한 것처럼, 이기심을 초월하고 나날이 더욱더 분명히 분별되어지고,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항상 굳게 고착하는 견고한 원칙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NOVEMBER 10

Love....rejoiceth not in iniquity, but rejoiceth in the Truth. 1 Corinthians 13:6

ARE the principles of right and wrong so firmly fixed in my mind, and am I so thoroughly in accord with the right and so opposed to the wrong that I would not encourage the wrong, but must condemn it, even if it brought advantage to me? Am I so in accord with right, with truth, that I could not avoid rejoicing in the Truth and in its prosperity, even to the upsetting of some of my preconceived opinions, or to the disadvantage of some of my earthly interests? The love of God, which the apostle is here describing as the spirit of the Lord's people, is a love which is far above selfishness, and is based upon fixed principles which should, day by day, be more and more distinctly discerned, and always firmly adhered to at any cost.

11월 11일

베드로 후 1:5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주의 백성들이 겪는 하나의 큰 어려움은, 의로운 행로를 가기로 결정하고 유혹에 저항하려고 마음먹으면서도, 충분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은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혹자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의 마음속에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의 행로는 적절한 것 이었습니다: 우리는 유혹자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확고하게 유지함으로써 대적조차도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찾아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여야합니다; “물러가시오, 대적이여-- 나는 나의 하느님만을 숭배하고 섬기겠습니다.”

NOVEMBER 11

Giving all diligence, add to your faith virtue. (fortitude). 2 Peter 1:5

ONE great difficulty with the Lord's people is that, even when determined for a right course and thus resisting the temptation, they do not take sufficiently positive action. Many say to the tempter, I have concluded not to yield at this time. Thus they leave in their own minds an opportunity open by which the tempter may return. Our Lord's course was the proper one: we should dismiss the tempter once and forever. We should take our stand so firmly that even the adversary would not think it worth while to come back at us along that line; "Leave me, adversary-- I will worship and serve my God alone."

11월 12일

요한 20:27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와 주의 선하심, 능력, 지혜, 사랑에 믿음을 갖는 것 이외에 우리가 주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음은 가꾸고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의 폭풍으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사도들이, 점점 믿음이 강해져서, 기록이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주께서 안 계시고 주를 찾을 수 없을 때에도 주께 믿음을 둘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 일상의 교훈의 일부가 되어 주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야 하며, 우리 생활상의 과거 경험들과 주의 말씀에 있는 이러한 교훈들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주께 대한 믿음이 뿌리를 확고히 내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NOVEMBER 12

Be not faithless, but believing. John 20:27

IT is impossible for us to come near to the Lord except as we shall exercise faith and trust in Him, in His goodness, in His power, in His wisdom, in His love.... Faith is a matter of cultivation, of development. The same apostles who cried out in terror when the storm was upon the Sea of Galilee gradually grew stronger and stronger in faith until, as the records show, they could and did trust the Lord in His absence and where they could not trace Him. Similarly it should be a part of our daily lesson to cultivate trust in the Lord, and to think of the experiences in the past in our lives and all of these lessons in His Word, that thus our faith in Him may become rooted and grounded.

11월 13일

마태 6:8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느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주께 대한 간구, 청원, 탄원은 마음의 거룩함과 주의 성령으로의 충만함과 영적인 양식, 재충전, 활력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의 것들에 관해서는, 주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무엇이 ‘새 창조물’로서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를 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주께 성가시게 계속 조르는 것을 보고 주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위해 모범이 되지 않고 그 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으시거나 태만하시지나 않을까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실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OVEMBER 13

Your Father knoweth what things ye have need of. Matthew 6:8

OUR petitions, our requests, our cries to the Lord, therefore, should be for the holiness of heart, for the filling of His Spirit, for the spiritual food, refreshment, strength; and as for the natural things, He knoweth the way we take and what would be to our best interests as New Creatures. We are to leave this to Him: He would not be pleased to see us importuning Him for things which He did not give us, for to do so would not be an exemplification of faith in Him, but the reverse--an exemplification of doubt, a manifestation of fear that he was forgetting or neglecting His promise to give us the things needful.

11월 14일

사도 20:28-30 “너희는 삼가라...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 날 줄을 내가 아느니라”

하느님의 교회는 훈련과 시험 및 최종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역경들에 순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극복한 사람에게는 큰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충성,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진리를 위한 열정, 비난과 박해를 참을성 있게 죽을 때까지 인내함, 적당한 때에 자신의 교회를 구출하시고 높이시겠다는 하느님의 능력과 목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 등에 대한 똑같은 시험에서 통치 할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한 충실한 사람들에게 시편 91의 축복된 위안이 주어집니다.

NOVEMBER 14

Take heed unto yourselves,...[for] grievous wolves shall enter in among you, not sparing the flock. Also of your own selves shall men arise, speaking perverse things, to draw away disciples after them. Acts 20:28-30

IT is necessary for the discipline, trial and final proving of the church of God that they should be subjected to these adverse influences; for to him that overcometh them is the promise of the great reward. If we would reign with Christ, we must prove our worthiness to reign by the same tests of loyalty to God, of faith in His Word, of zeal for the Truth, of patient endurance of reproach and persecution, even unto death, and of

unwavering trust in the power and purpose of God to deliver and exalt His church in due time. To such faithful ones are the blessed consolations of Psalm 91.

11월 15일

요한1서 2: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는, 우리 주의 일상적인 품행과 선한 모든 것들과는 관계하시고 이에 부합하게 악한 모든 것들은 피하시는 점들에서, 우리 주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걸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의 발걸음에 가능한 한 가깝게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불완전한 육체를 가지고서, 육체로 계실 때에도 완전하셨던 주의 모든 완전함과 같이 걸을 수 있거나,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주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걸어야 한다는 것--주께서 인식하시고 확립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 동일한 방향, 동일한 이정표와 표준을 향하여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NOVEMBER 15

He that saith he abideth in Him ought himself also so to walk, even as He walked. 1 John 2:6

HE is to walk as our Lord walked, in His general deportment and relationship to everything that is good and correspondingly to avoid everything that is evil. He is to walk as nearly as possible in the footsteps of Jesus.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he either should or could, in an imperfect body, walk up to all the perfection of his Lord, who even in His flesh was perfect. It means just what it says, that we should walk as He walked--in the same way, in the same direction, toward the same mark and standard that He recognized and established.

11월 16일

마가 14:8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대속자와 개인적 접촉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의 “형제들”을 사랑, 동정심, 기쁨과 평화의 향기로 기름 부어 주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이것은 우리의 자기_부인의 관점에서는 더욱 값비싼 것이며, 우리의 만형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관점에서는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알라바스터(향기) 통은 우리의 마음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 특히 그리스도--머리이신 주 예수께, 그리고 주의 몸인 교회의 모든 성원들에게--께로 향하여 선의, 친절과 사랑의 가장 깊고 강렬한 향기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와 지금 함께 있는 발에 해당하는 성원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헌신의 향기를 뿜어주는 우리의 특권으로써 그렇게 해야 합니다.

NOVEMBER 16

She hath done what she could. Mark 14:8

IT is not our privilege to come into personal contact with our dear Redeemer, but it is our privilege to anoint the Lord's "brethren" with the sweet perfume of love, sympathy, joy and peace, and the more costly this may be as respects our self-denials, the more precious it will be in the estimation of our Elder Brother, who declared that in proportion as we do or do not unto His brethren, we do or do not unto Him.Our alabaster boxes are our hearts, which should be full of the richest and sweetest perfumes of good wishes, kindness and love toward all, but especially toward the Christ--toward the Head, our Lord Jesus, and toward all the members of His body, the church; and especially on our part toward the feet members who are now with us, and on whom we now have the privilege of pouring out the sweet odors of love and devotion in the name of the Lord, because we are His.

11월 17일

시 91:11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것은, 하느님께서 몇몇의 충실한 목자나 선생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자기들이 회개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구부리고, 속임수 철학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단순함으로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위하여 “주께서 이러 저러하게 말씀하신 것”을 필요로 하고, 모든 것들을 말씀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즉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을 갓도록 권고합니다. (히브리 13:17) 우리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진실한 양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NOVEMBER 17

He shall give his angels [messengers] charge concerning thee, to guard thee in all thy ways. Psalm 91:11

THAT is, God will raise up some faithful pastors and teachers who will "watch for your souls as they that must give an account." True, there shall arise false teachers, perverting the Word of the Lord and seeking by cunning sophistries to subvert your souls; but if in simplicity of heart God's children require a "Thus saith the Lord" for every element of their faith, and carefully prove all things by the Word, they will be able to distinguish readily the true from the false. And having done so, the Apostle Paul (Hebrews 13:17) counsels us to have confidence. The Lord, our Shepherd, will care for the true sheep.

11월 18일

시 34:7 “여호와와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권력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적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고, 육과 혈과 적들에 더하여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의 세력들--사탄과 어둠 속의 그의 무리들--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또 한편으로 “우리의 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대항하는 자보다 크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하늘의 무리들이 하느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하느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는 일이겠습니까!

NOVEMBER 18

The angel of the Lord encampeth round about them that fear Him, and delivereth them. Psalm 34:7

HOW it enlarges the confidence of a Christian to realize that whilst earthly powers may be in opposition, and whilst he may be really of himself powerless to resist adversaries, and whilst in addition to the flesh and blood adversaries he may realize that he battles also with spiritual wickedness in exalted places --against Satan and his minions of darkness--yet that, on the other hand, "greater is He that is on our part than all that be against us," and that all the heavenly hosts are subject to the divine will and may be employ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divine cause according to divine wisdom.

11월 19일

데살로니가 전 5:6 “우리는 깨어 근신할찌라”

우리 주께서 주신 모든 방향에 대해서 면밀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그리고 주께서 받아들이실만한 봉사에 관하여 깨어 있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대제사장의 발걸음을 가능한 한 최대한 가까이에서 좇으려고 노력합시다....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우리 아버지의 성품과 계획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대한 봉사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회와 특권들을 진지하게 인식한다는 점에서 깨어 있도록 합시다;--아무 생각도 없이 태만히 하다가, 기회와 특권들이 우리 손에서 빠져 나간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NOVEMBER 19

Let us watch and be sober. 1 Thessalonians 5:6

LET us watch in the sense of taking careful notice of all the directions which the Lord our God has given us, respecting what would be acceptable service to Him. Let us watch ourselves, striving to walk as nearly as possible in the footsteps of the great High Priest....Let us be sober in the sense that we will not be frivolous; that while happy, joyous in the Lord, free from the anxious cares that are upon many others through misapprehension of our Father's character and plan, we may, nevertheless, be sober in the sense of earnest appreciation of present opportunities and privileges in connection with the Lord's service;-- not thoughtlessly negligent, letting opportunities and privileges slip through our hands to be afterwards regretted.

11월 20일

베드로 후 1:10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매일의 잘못들을 보상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것들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더하여,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한도까지 배양한다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아직 무익한 종이며, 우리 자신의 의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폭 넓은 의복 안에 거하며, 계속 “열심”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버리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NOVEMBER 20

If ye do these things, ye shall never fall. 2 Peter 1:10

THE contingency is not in the doing of these things perfectly, and regardless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to cover our transgressions and compensate for our daily shortcomings; but if, added to our faith in the imputed righteousness of Christ, we have cultivated all these graces to the extent of our ability, we shall not fall. When we have done all that we can do, we are still unprofitable servants, not daring to trust in our own righteousness, but in the ample robe which is ours by faith in Christ, while, with consistent "diligence," we work out 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knowing that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s only applied to such as desire to forsake sin and pursue that "holiness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

11월 21일

야고보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종종 시험이 모두 지나가고 이긴 자들의 자리에 받아들여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믿음과 신뢰가 우리의 마음에서 연단하는 일을 함으로써, 우리를 완숙하게 하고 기꺼이 주께 복종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합시다. 우리의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어떤 종류의 교훈이라도 가져다 줄 때에 기뻐합시다;-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더욱 강해지고, 진리와 의를 위해 더욱 확고해지며, 우리 자신의 약점을 더 잘 알게 되며, 동일한 잘못으로부터 더 잘 대비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승리만 거둔 싸움의 경우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실패의 경우에서조차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강화되고, 그 방향에서 다시 더 큰 열정을 나타낼 결심을 구체화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로 나아 갈 수 있습니다.

NOVEMBER 21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e fall into divers temptations. James 1:2

ALL wish frequently, no doubt, that the testings were all over and that we were accepted to a place amongst the overcomers; but patience and faith and trust are to do a refining work in our hearts, making us mellow, willing and obedient to the Lord. Let the good work go on. Let us rejoice if our trials have brought us lessons of any kind that are profitable to us;--that have tended to make us stronger in character, more firm

for truth and righteousness, more aware of our own weaknesses, and more on guard against the same. Even those conflicts which have resulted in only partial victories have possibly been to our advantage....Even on points in which there may have been absolute failure, the result may be a strengthening of character, a crystallization of determination for greater zeal in that direction again, and a humility of heart before the Lord in prayer.

11월 22일

시 69:9 “당신의 집에 대한 순전한 열심이 나를 삼키고”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들은 다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맛 본 사람들은 결코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불붙은 사랑은 절실한 열정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러하셨는데, 이것은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으신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주를 기쁘시게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의와 진리를 위한 동일한 열정적인 영으로 충만함으로써, 자신들을 주의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 바치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느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느님께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NOVEMBER 22

The zeal of Thine house hath consumed me. Psalm 69:9

COLD, calculating people may have other good qualities, but there is no room for coldness or even lukewarmness on the part of those who have once tasted that the Lord is gracious. With such, the love enkindled should lead to a consuming zeal. It was thus with our Lord Jesus, and this was one of the reasons why He was beloved of the Father....Let all who desire to be pleasing in the Lord's sight become so filled with the same spirit of zeal for righteousness and truth that it will consume them as sacrifices upon the Lord's altar. Thus they will be most pleasing and acceptable to Him through Jesus our Lord.

월 23일

히브리 10:36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이 단지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 뒤에, 그러한 성품의 표시를 우리의 마음과 뜻에(부분적으로는 육체에) 끈질긴 인내를 통하여, 하느님의 의로우신 뜻을 우리 마음의 법으로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생활의

규칙으로서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당신의 믿음의 시험이 인내[끈질긴 인내]를 낳습니다” 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견디면, 이러한 끈질긴 인내의 성품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만족할만하게 시험을 견디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왕국에 적합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NOVEMBER 23

Ye have need of patience, [cheerful endurance, constancy] that, after ye have done the will of God, ye might receive the promise. Hebrews 10:36

HERE we see that it is not merely to do the will of God that is the test, but that after having attained to that point, that mark of character in our hearts, in our wills (if only partially in the flesh) we should, by patient endurance, establish God's righteous will as the law of our hearts, the rule of life under al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Then, and not until then, will we be in the heart condition of fitness for the Kingdom. The Apostle James says, "The trying of your faith worketh patience [patient endurance]"; that is to say, if our faith stand the trial it will work this character of patient endurance. Of course, on the other hand, if we do not attain to patient endurance, it will mean that our faith has not stood the test satisfactorily, that we are not fit for the Kingdom.

11월 24일

사도 24:16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마음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양심도 다른 모든 우리의 타락한 지체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규제하려면 원칙을 설립하고 규제하여야 합니다. 양심은 원반에 시각이 정확히 표시되는 시계와 같은데, 시각의 정확성은 그것의 주요 용수철이 적절히 조절하는 것에 달려있으며,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시각을 표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양심도 우리에게 선과 악을 항상 가리켜 주는데, 그 양심도 새로운 주요 용수철인, 새 마음과 순수한 뜻과 관련하여 조절되고 난 뒤에야 우리에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올바르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이, 그 양심이 사랑의 법과 완전히 일치하게 됩니다.

NOVEMBER 24

Herein do I exercise myself, to have always a conscience void of offense toward God, and toward man. Acts 24:16

OUR consciences require regulating, as do all the other features of our fallen nature. If our consciences are to be regulated we must have some standard by which to set and regulate them. The conscience is like a watch whose dial is properly marked with the hours, but whose correctness as a time-keeper depends upon the proper regulating of its mainspring, so that it may point out the hours truthfully: so our consciences are ready to indicate right and wrong to us, but they can only be relied upon to tell us truly what is right and what is wrong after being regulated in connection with the new mainspring, the new heart, the pure will, brought into full harmony with the law of love, as presented to us in the Word of God.

11월 25일

야고보 1: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찌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유혹과 대적으로부터 오는 유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과 의로우신 원칙에 대한 충성의 시험이며, 그것들을 저항함으로써 의에 대한 충성을 증명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과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반대로, 악과 잘못으로 유도하는 함정과 덫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서, 선이 악으로, 악이 선으로 보이게 하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의 허위와 악에 빠지게 하는 함정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NOVEMBER 25

Let no man say when he is tempted, I am tempted of God: for God cannot be tempted with evil, neither tempteth He any man. James 1:13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emptations which the Father considers proper and the temptations which come from the adversary. The former are tests of loyalty to God and to the principles of righteousness, and are intended to be a blessing and a help to all those who withstand them, and who thus demonstrate their loyalty to righteousness. The temptations of Satan, on the contrary, are in the nature of pitfalls and snares in evil and wrongdoing, temptations to make right appear wrong and wrong appear right,

putting light for darkness and darkness for light. In this sense of misrepresentation and ensnarements in evil, God tempteth no man.

11월 26일

출애굽 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만약 누구든지 주의 축복된 봉사에서 주께 더욱 많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에 더욱 더 적합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온유, 겸손, 활력, 자기-희생적인 주의 봉사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등에서 사랑받고 영예로운 종, 모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종들은 항상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배양하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주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소질을 배양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겸손과 열정과 주와 주의 뜻에 대한 사랑과 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도록 하느님의 봉사의 모든 부분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NOVEMBER 26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What is that in thine hand? Exodus 4:2

IF any man would be more abundantly used of the Lord in His blessed service, let him seek first to be fitted for it more and more. Let him imitate that beloved and honored servant, Moses, in meekness, humility, energy and untiring zeal and self-sacrificing service of the Lord. But the wise steward will seek always to cultivate along the lines of his natural abilities, and not expect the Lord to work a miracle for his advancement, and so waste valuable time seeking to develop that which he does not by nature possess. Let us each, therefore, seek by humility, by zeal, by love for the Lord and for His cause, by faith in His power, to be in that condition of heart and mind which will make us ready to be used, and useful in any department of the divine service to which the Lord may be pleased to call us.

11월 27일

에베소 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는 모든 언행에서 기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모든 생활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며, 우리 손으로 찾은 일들을 힘을 다하여 주께

받아들여 질만한 방법으로 하고,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유혹들로부터 보호받으며, 궁극적으로 악한 자로부터 구원을 받고, 주의 왕국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더욱 더 명심하고 실행하도록 합시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NOVEMBER 27

Praying always with all prayer and supplication in the Spirit, and watching thereunto with all perseverance. Ephesians 6:18

WE are to have the spirit of prayer in all that we say and do: that is to say, our hearts should be going out continually to the lord for guidance in all of life's affairs, that we may do with our might what our hands find to do, in a manner that will be acceptable to Him, and that we may be shielded by Him from temptation that would otherwise be beyond our endurance, and that we may be ultimately delivered from the evil one and have a place in our Lord's Kingdom. Brethren and sisters, let us more and more remember and put in practice these words of our Lord, "Watch and pray, lest ye enter into temptation."

11월 28일

욥 34:29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위안의 하느님이신 분외에 누가 바다에 갑자기 불어 닥치는 강풍처럼 영혼에 일어나는 동요의 와중에서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위함에 처한 바다의 선원들처럼 우리는 그분께 애원할 것이며,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의 평강과 평화가 가득한 피난처--축복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답을 가져다주는 애원은 어떠한 것일까요? 모든 혼란의 경우를 제거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아닐 것인데,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에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것이 항상 하느님의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평강을 분명히 가져다주는 애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순종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NOVEMBER 28

When He giveth quietness, who then can make trouble? Job 34:29

WHO but He, the 'God of all comfort,' can give quietness in the midst of tumults which rise upon the soul like sudden storms upon the sea? Like ocean mariners in peril, we cry unto Him, and He bringeth us to the desired haven--blessed haven--of quietness

and peace in God. What is the cry which brings this answer of peace? It is not a prayer that all occasion for disturbance shall be removed, for it is not always the divine will to bring peace to the human spirit in that way; it is not always the best way. But there is a cry which never fails to bring the quietness in which none can 'make trouble.' It is the prayer for sweet, trustful loving acquiescence in the will of God."

11월 29일

히브리 10: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느님의 약속은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의, 성품이든 오게 될 영광이든, 기초가 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잡아 어떠한 경우에서나 어떠한 정도라도 타협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 진리를 문자적으로 만이 아니라 영으로 붙잡도록 합시다;-- 그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것이 참일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숭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한 인내의 중요성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인 자비를 배양하고 실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우리의 시험과 성품 계발을 위해 적절히 허락하신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을 즐거이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주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 없이는 완전한 사랑을 결코 획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NOVEMBER 29

Let us hold fast the profession of our faith without wavering; for He is faithful that promised. Hebrews 10:23

GOD'S promise is the foundation upon which all that we hope for, either of character or coming glory, is built. Let us prize this truth so that we will not compromise it in any sense or in any degree; let us not only hold the Truth in the letter but in the spirit;-- in the love of it, because it is true, as well as because it is beautiful and grand. And let us ever remember the importance of patient endurance, that we may not only cultivate the Christian graces, and practice them, but that we may take joyfully the trials, persecutions or difficulties which our Lord may see proper to permit to come upon us for our testing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character which He explains to us is of paramount importance, and without which perfect love could neither be attained nor maintained.

11월 30일

마태 28:20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씨 뿌리는 일을 면밀히 감독하셨던 분께서는 거두는 일에 관심이나 주의를 덜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활동력과 용기로써 진리의 낫을 휘두르며,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과 우리의 책임은 추수가 아니라 단지 익은 “밀”을 찾아내어 모으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소수의 익은 밀알을 찾아내는 우리의 노력이 클수록 우리가 찾아내는 사람들에서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이며, 희소하고 소중한 것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봉사에서 우리의 모든 지혜를 사용하면서, 주의 일에서 우리에게 한 부분을 나눠 주시는 주의 목적은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NOVEMBER 30

Lo, I am with you alway, even unto the end of the age. Mattheew 28:20

SURELY He who was careful to supervise the sowing work is not less interested and careful in respect to the reaping. Let us then thrust in the sickle of Truth with energy and courage, remembering that we serve the Lord Christ, remembering that we are not responsible for the harvest but merely for our energy in gathering what ripe "wheat" we can find. If the labor be great for the finding of a few grains of ripe wheat we are to rejoice the more in those we do find, and learn to love and appreciate that which is scarce and precious. Let us remember, too, while using all the wisdom we can in this service, that the Lord's object in giving us a share in His work is not so much what we can accomplish as in the blessing that the labor will bring upon us.

12월1일

마태 22:39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두뇌와 혀를 사용하여 여러분에 대하여 나쁜 추측을 하고 중상을 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법은 그분의 계약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웃에 대하여 어떤 의혹도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상황에 의해서 인지할 수 없는 의혹이 어쩔 수 없이 생각나면, 새 정신으로 즉각, 타고난 자비로움과 함께, 오해와 오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의혹을 억누르며, 외관상으로 죄 있는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사람으로서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DECEMBER 1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Matthew 22:39

YOU would not want your neighbor to use brain and tongue in evil surmises and slanders against you; and you should not do so to him....the law of the Lord commands that all under His Covenant shall not utter one solitary suspicion against a neighbor: and that if suspicion beyond knowledge is forced upon the mind by associated circumstances, the new mind shall promptly, with its native benevolence, counterbalance the suspicions by suggestions of the possibility of misinformation or misinterpretation and always give the apparently guilty the benefit of the doubt.

12월 2일

사도 22: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으시오.”

이것은 지시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유하여 신속히, 전적이며 완전한 순종으로서, 주와 진리를 전적으로 고백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써 주를 보고 귀로써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도 신속히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잠시 후에는 더욱 복종하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그들에게 “극단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적당히 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주께 완전히 헌신하지는 마십시오. 당신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당신을 미쳤다고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신의 희망과 전망에 장애가 될 것이며, 친구들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당신이 희생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DECEMBER 2

And now, why tarriest thou? Arise and be baptized. Acts 22:16

THERE is a directness in this address that is worthy of being copied by all who have an influence upon others, and who are seeking to bring them along in the right way. Urge them to promptness, to full and complete obedience, to a full confession of the Lord and the Truth. If they are not inclined to promptly obey after their eyes of faith have seen the Lord, and after their ears have heard His voice, they will be much less likely after a while, when the world and the flesh and the devil will say to them, Do not be an extremist; be moderate; do not make a full consecration of yourself to the Lord. Your neighbors and friends will think you beside yourself, and it will interfere with your

hopes and prospects, and turn your friends into enemies. It will cost you too much; go slowly.

12월 3일

계시 3: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기인 오늘날에 끈질긴 인내로써 경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포상입니다; 시험의 때를 회피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니지만, 우리 주의 파로우시아(임재)의 때에 살고 있는 결과로 그것을 상쇄하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우정과 지시와 “때에 따른 음식”으로 지금 주어지는 영적 양식을 과거의 어떤 충실한 사람들도 즐겨보지 못하였던 정도로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은혜도 온 세상에 닥치는 유혹의 때의 시험의 치밀하고 혹독함으로 인해 그 만큼 상쇄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DECEMBER 3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Revelation 3:10

THIS is the special reward of those who are running the race with patient endurance in the present time, in the Laodicean period; while it was not our privilege to escape the hour of temptation, it is our privilege to have a counter-balancing special blessing as a result of living in the time of our Lord's parousia (presence). We may have His fellowship, His instruction, His dispensing of spiritual food which is now "meat in due season," in a manner and to a degree in which none of the faithful of past periods enjoyed these. But as we might expect, this greatest favor is correspondingly offset by the subtlety and severity of the trials of this hour of temptation coming upon the whole world. If ever patient endurance was necessary it is necessary now.

12월 4일

누가 11:13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 주의 성별된 백성이 그들의 생활에서 주요 목표와 모든 기도에서의 주된 걱정이 주의 성령과 거룩한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 건전한 정신의 영을 더욱 많이 갖는 것이라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새벽동이 틀 때까지 주와 씨름해야하며, 그들이 주를 붙잡는다면 분명히 그들이 바라는 축복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열렬히 갈망할 때까지 그것을 보류하십니다.

DECEMBER 4

If ye then being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un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shall your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em that ask Him? Luke 11:13

IF the Lord's consecrated people could all be brought to the point where the chief aim in life, the burden of all their prayers, would be that they might have a larger measure of the Spirit of the Lord, the spirit of holiness, the spirit of Truth, the Spirit of Christ, the spirit of a sound mind, what a blessing it would mean! If then they should wrestle with the Lord until the breaking of the day, their hold upon Him would be sure to bring the desired blessing. The Lord has revealed Himself to His people for the very purpose of giving them this blessing; nevertheless, He withholds it until they learn to appreciate and earnestly desire it.

12월 5일

여호수아 24:15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상을 섬기게 하십시오;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본 우리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우리는 우리의 하느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표시하신 어떤 길이든지 우리는 기쁘게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분의 손이기 때문에, 무슨 것을 보든지 간에, 그렇게 신뢰하고 걸음을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참 목자를 따름으로써,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의 우리에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확신과 함께 우리는, 하늘의 집에 도달하기 전에도, 우리의 순례 여행 중의 집에서도, 기쁨과 평화와 마음의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DECEMBER 5

Choose ye this day whom ye will serve;...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24:15

LET others reverence whom and what they will; we, who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racious, we, who have come to know Him through the power of the spirit by which we are begotten again to newness of life--we can do naught else than reverence our God; and reverencing Him we must trust Him implicitly; and trusting Him implicitly we will gladly walk in whatever way He may mark out for us; and thus trusting and thus walking we are content, whatever lot we see, since 'tis His hand that leadeth us. And let us be assured that, following the true Shepherd after this manner, we shall ultimately reach the heavenly fold. In these assurances we have joy and peace and blessing of heart, even in the house of our pilgrimage, before we reach the heavenly city.

12월 6일

잠언 25: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신과의 전투가 가장 큰 전투이며, 그것에 대하여 주께서는 “자신의 영(자신의 마음, 의지)을 제어하는 자는 도시를 점령한 자보다 낫다” 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제어의 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참된 성품을 갖기 위한 전투를 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우리 내부의 이기심과의 전투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고, 우리 마음과 육체에서 분노와 적의와 증오와 분쟁을 억누르는 면에서 우리의 눈에서 빛이 분출되는 등과 같은 격렬한 전투의 경험을 겪은 뒤에야, 우리는 형제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을 그들의 어려움으로부터 도와주기--그들이 약점과 결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위한 준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DECEMBER 6

He that hath no rule over his own spirit is like a city that is broken down, and without walls. Proverbs 25:28

THE battle with self is the greatest battle, and we have the Lord's word for it that he that "ruleth his spirit (his own mind, will) is better than he that taketh a city," because he has to that extent learned to exercise the combativeness of a true character in the right direction, in self-control. It is after we have had considerable experience in

battling with sin and selfishness in ourselves, in casting the beam out of our own eyes, in subduing anger, malice, hatred and strife in our own hearts and flesh--it is then, and by means of this severe battle and experience, that we will be prepared to assist the brethren, and to assist our neighbors in their difficulties--to help them to overcome their besetments and weaknesses.

12월 7일

베드로 전 2:23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적들이 적절하고 정당하게 욕하고 비난할 그 어떤 것을 그분에게서 발견한 것 때문이 아니며, 그분의 적들이 거의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을 욕하거나 비난할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셨기 때문도 아니며, 다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욕설을 감당하실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것들을 겸손하고 끈기 있게, 또한 이를 위해 자신이 불림을 받았음을 명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끈기 있게 인내하시고 교훈을 배웠으며, 충성됨을 증명하셨고, 참 성품을 계발하시고 전시하셨으며, 사람들의 눈멀고 무지함에 대한 연민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시고 이를 나타내셨습니다.

DECEMBER 7

When He was reviled, He reviled not again. 1 Peter 2:23

NOT because His enemies had found in Him something that could properly and justly be reviled and evil spoken of;--nor because His enemies were so nearly perfect that He could find nothing in them to revile and speak evil of; but because He was so full of submission to the divine will that He was enabled to take the scoffs and railings of the people, and to bear these humbly and patiently, and to remember that even hereunto He was called, did Jesus endure patiently and learn the lessons, and prove Himself faithful, and develop and demonstrate His true character, and feel and manifest His pity for the people, in their blindness and ignorance, and His love for them.

12월 8일

요한 15: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의 주인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처럼 가능한 한 우리의 경우도 그러해야하며, 우리에게 대하여 쏟아진 증오, 악의, 질투와 살인 등의 일들은 완전히 불공정한 것이 되고--우리의 삶은 가능한 한 거의 순수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우리의

생각과 언행은 우리의 주를 찬양하는 것이어야 하며, 모든 사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점점, 교회가 영광을 얻고, 새로운 하느님의 섭리가 나타남에 따라, 지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되며,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큰 기쁨을 맛보며... 그들이 하느님의 완전하신 형상과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DECEMBER 8

If the world hate you, ye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John 15:18

AS our Master was hated without a cause, so let it be with us so far as possible, that the hatred, malice, envy and murder which may be poured out against us may be wholly unmerited by us--that our lives shall be as nearly pure as possible; that so far as we are able our thoughts and words and deeds may show forth the praises of our Lord, and speak of our love for all men, especially for the household of faith. By and by, when the church shall have been glorified, and a new dispensation inaugurated, those who hate us now, largely because they are blinded by the Adversary and misled, will bow before us, as the Lord's Anointed, and we shall have the great pleasure of lifting them up blessing them, encouraging them and forgiving them; and assisting them back to the full image and likeness of God.

12월 9일

야고보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희생의 계약을 주와 함께 맺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모든 시험, 박해, 생활의 어려움 등은 그들을 증명하고,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고, 그들의 성품이 의에 고착하고 뿌리내려 있는지,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모든 시험, 어려움과 유혹들을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빛으로 끌어들이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작은 시험으로 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신다면, 그것들이 아무리 사소하거나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나는 그것들을 나의 사랑의 온전함과 주와 주의 뜻에 대한 나의 헌신을 주께 전시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DECEMBER 9

Blessed is the man that endureth temptation: for when he is tried, he sha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th promised to them that love Him. James 1:12

IF we could but keep in memory the fact that every trial, every persecution, every difficulty of life, permitted to come upon those who have made the covenant of sacrifice with the Lord, is intended to prove them, to test their love, to see whether or not their characters are fixed, rooted and grounded in righteousness, and being built up in love, it would put all these trials, difficulties and temptations in a new light before us, and greatly assist us in fighting a good fight and overcoming. We would say, if by these little trials the Lord is proving my love and devotion to Him, then, however trifling they may be or however important, I will diligently use them as favorable opportunities to demonstrate to my Lord the fullness of my love and devotion to Him and His cause.

12월 10일

사무엘 상 2:30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주께 대한 봉사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즉각적으로 힘을 다해--그분과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뜻을 위한 열정으로--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태하거나, 기회를 등한히 하면, 의심의 여지없이 그 기회는 우리에게서 사라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의 자유 인격을 침해하거나 억압하시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사람 또는 저 사람을 양육하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동역자로서 우리가 즐기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더욱더 인식하고, 특히 우리의 주와 주인이신 예수께서 행하신 이 큰 봉사와 관련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자 공동_상속자로서 불림을 받은 친구관계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DECEMBER 10

Them that honor Me, I will honor. 1 Samuel 2:30

IN whatever department of the Lord's service He is pleased to open the door of opportunity to us, we should enter it promptly and with energy--with zeal for Him and for the cause to which He has called us. This is one condition of our acceptableness to Him. If we are slothful, inattentive to opportunities, undoubtedly they will be removed from us, and given to others, for the Lord is abundantly able to raise up one or another

to serve His cause without interfering with, or overruling our free moral agency. Let us more and more appreciate what a privilege we enjoy in being co-laborers together with God, an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this great service which our Lord and Master Jesus is exercising, and to fellowship in which we have been called, as His bride and joint-heir.

12월 11일

잠언 23:26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 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넘겨진 마음과 뜻은,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 힘쓰며, 하느님의 생각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며 언행으로 그것에 복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마음의 조건이 갖춰지는 정도에 따라, 동일한 정도로 모든 부면--야망, 희망, 감정과 노력 등--에서 새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이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지식에서 자라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정신을 하느님의 계획과 뜻으로 채움으로써, 변환시키는 영향이 생활의 모든 면에서 확장될 것입니다.

DECEMBER 11

My son, give Me thine heart, and let thine eyes observe My ways. Proverbs 23:26

THE heart, the will, thus given over to God, seeks to know the divine will, to catch the divine thought and to obey it in word and in act; and in proportion as this condition of the new mind is attained, in that same proportion will there begin to be a newness of life in every respect--in ambitions, hopes, sentiments and efforts. It is for this reason that the revelation of the divine will and plan is furnished to believers--that by growing in the knowledge of it, by thinking on these things, by filling the mind with the divine plan and will, the transforming influence may extend into every avenue of life.

12월 12일

잠언 23:7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주의 성별된 백성들은 조심스럽게 불결한 것들을 몰아내고,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잠입하지 않도록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이 들어오면, 그 결과는 많은 적든 간에 우리들의 타락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생각을 유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순결한 언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결한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부터 오든지 간에--세상이나 육체나 마귀로부터--그 공격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공격을 저지한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저지되지 못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사도 야고보는 “욕망[모든 종류의 자기 욕구]이 마음에서 자라서 죄를 낳고[죄 많은 언행을 발전시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고 하였습니다.

DECEMBER 12

As a man thinketh in his heart, so is he. Proverbs 23:7

IT...behooves the Lords consecrated people...to carefully strain out the impurities, and see that they do not enter into our hearts, our thoughts, realizing that with them in, the result will be to work to our defilement, to a greater or less degree. Whoever maintains purity of thought will have comparatively little effort in maintaining purity of word and of action. Whether the impurity come from one direction or another-- from the world or the flesh or the devil--its attack must first of all be upon the mind; and if repelled there the victory is won; if not repelled we cannot know what the consequences might be, as the Apostle James declares: "Lust [selfish desire of any kind], when it has conceived [in the mind] bringeth forth sin [develops sinful words or deeds], and sin when it is finished bringeth forth death."

12월 13일

사도 7:60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이 교훈을 잘 배우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의 결과든지 좋은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그러한 결과들로 인도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섭리에 따라 도구로써 사용된 사람들에게 가장 관대하고 자비롭게 생각하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결과를 바라지 않았거나 그 반대의 결과를 기도하였을지라도 그러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일들과 세력들에 대해서 그러한 견해를 가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주를 통하여 항상 승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사탄이나 또는 그의 모든 종들에 대해서도 빈정거림이나 욕설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DECEMBER 14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cts 7:60

HOW great a blessing it would be for all spiritual Israelites to learn well this lesson; viz., that if we accept the results of any matter as being good, and if we realized that we were guided to those results by divine providence, we should think and feel most generously, most kindly, toward those who were the instruments used by providenc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y might have been unwilling instructors, or, like Joseph's brethren, have verily intended opposite results. Those who are enabled to take such a view of affairs and forces operating in their daily lives are enabled "always to triumph through the Lord," as the apostle expresses it. And such find no room for bitterness or railing, either against Satan or against any of his servants.

12월 14일

마태 5:7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자질과 그럼으로써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하느님과 같은 성품인 자비, 동정심, 인자를 행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자비의 성품을 크게 강조하시며, 이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른 어떤 지식과 은혜를 받았다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자비를 단지 겉모습의 형태로만으로서 용서나 인자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에서 서로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자 만이 자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자비를 받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DECEMBER 14

Blessed are the merciful: for they shall obtain mercy. Matthew 5:7

ALL do not know it, but it is a fact that the grandest quality that man can exercise, and the one which brings the largest amount of blessing itself, is the exercise of the God-like quality of mercy, compassion, benevolence. The Lord lays great stress upon this quality of mercy, declaring that whatever else may be our attainments of knowledge or of grace, if we have not this one we can never be acceptable to Him --if we do not have mercy upon others neither will our Heavenly Father have mercy upon us. And to insure that we do not consider this mercy to be merely an outward form, an expression

of forgiveness and benevolence, our Lord expounds the matter, saying, "If ye do not from the heart forgive one another, neither will your Heavenly Father forgive you."...Only the merciful shall obtain mercy: and if we have not mercy at the hands of the Lord all is lost; for by nature we wer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and under just condemnation.

12월 15일

시 23:1 “주는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양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그들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던 매우 중요한 성품의 표상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양들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품들은 온유함, 유순함과 자신들을 완전히 목자의 보호에 맡기는 복종입니다.... 참된 양은 목자의 미세한 억양의 목소리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간직하며, 그분의 섭리를 연구하며, 자신의 특권인 주와의 친교와 개인적 우정을 발전시킵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결코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그들의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DECEMBER 15

The Lord is my Shepherd. Psalm 23:1

THE Lord, in calling His people His sheep, chose a very significant emblem of the character He would have manifested in them. The most noticeable characteristics of the sheep are meekness, docility and obedience to the shepherd to whose care they fully entrust themselves....The true sheep will carefully listen for the faintest accents of the voice of the Shepherd-- i.e., he will treasure up His words in his heart, he will study His providences, and he will cultivate that communion and personal fellowship with the Lord which are his privilege. Those who thus abide in Him can never go astray. "They can never, never lose their way."

12월 16일

열왕 상 18:21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I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찌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정신이 결정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시금석이 필요합니다. 이 시금석은 하느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의문이 생길 때에--그것이 식별되자마자--주의 뜻을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결정하고,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찍 시작할수록 더 능숙해 질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기 위해 더욱 활기차게 노력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적극성을 그분께 보인다면, 더 낮고 더 빠르게 우리의 성품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DECEMBER 16

How long halt ye between two opinions? If the Lord be God, follow Him: but if Baal, follow him. 1 Kings 18:21

WE need to have some touchstone, as it were, some matter which will help us to decide, which will enable the mind to reach a decision quickly. This touchstone should be God's will; so that to perceive the Lord's will in respect to any question would be to settle it--as quickly as discerned....Ability to decide quickly, and to decide always on the right side, what the Lord's will is, requires some experience and discipline; but the sooner we begin the sooner we will become proficient. The more energetically we set ourselves to know the Lord's will and to do it, and to show Him by our promptness that we delight to do His will, the better and the more quickly will we find our characters established on proper lines.

12월 17일

빌립보 2:12, 13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을 제공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자신에게 이끌어 주시고 의의 행로로 견도록 모든 필요한 은혜를 약속하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더욱이, 우리가 자기_희생의 길에서 예수의 발자국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주의 깊게--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모든 어려운 때에 도와주시는 약속된 은혜를 항상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며, 의를 향한 우리의 최선의 노력들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하여 바쳐 질 때에, 하느님께 가납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DECEMBER 17

Beloved,...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Philippians 2:12,13

IT was God that provided for us the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and it is God that has drawn us unto Himself and that has promised us all needed grace to walk in the paths of righteousness; and more, even to follow in the footprints of Jesus in the way of self-sacrifice. While, therefore, with fear and trembling, --with great carefulness--we endeavor to work out our salvation, it is our privilege always to realize the promised grace to help in every time of need, and to be confident that our best efforts toward righteousness are acceptable to God when presented through the merit of the righteousness of Christ, imputed to us by faith.

12월 18일

히브리 13:6"주는 나의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

생활에서 올바른 행로를 걷고, 생활에서 닥치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러한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올바른 영--환난에서 기뻐하고 그러한 경험을 기쁨으로 간주하는 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울무를 가져다주는, 사람에게 대한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멸성인 동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주의 지시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사자와 같이 용감하고, 비둘기처럼 예의바르고, 양처럼 온순해야 합니다. 이 특수한 성품들의 결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여 져야 하며, 다른 어디에서도 보여 지지 않을 것입니다.

DECEMBER 18

The Lord is my helper, and I will not fear what man shall do unto me. Hebrews 13:6

TO have the proper course in life, to be able to meet the trials and difficulties of life as they come to us, and to meet them in the proper spirit which the Lord directs--in the spirit of rejoicing in tribulation, and counting such experiences all joy,--it is necessary that all fear of man, which brings a snare, shall be removed. And it is our Lord's direction that we shall fear Jehovah, and not fear our mortal fellows. The righteous are bold as a lion, as well as gentle as a dove, and meek as a lamb. This peculiar combination should be found in every Christian, and we doubt if it will be found elsewhere.

12월 19일

열왕 상 20:11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인내의 시험은 그리스도의 몸인 선택된 교회가 거쳐야하는 가장 혹독한 충성 시험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덕성과 은혜의 강도를 채는 척도가 되는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병사로서 누구도 승리의 월계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전투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전투에 있어서도 적들은 깜짝 놀랄만한 갑작스런 공격으로 주의 백성들을 압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대비책은 지속적인 경각심과 기도와 하느님의 전신갑주--진리와 진리의 영--를 입는 것입니다.

DECEMBER 19

Let not him that girdeth on his harness boast himself as he that putteth it off. 1 Kings 20:11

THE test of endurance is certainly one of the severest tests of faithfulness to which the elect church, the body of Christ, is subjected. It is the test which gauges and registers the strength of every other virtue and grace, and no soldier of the cross will be crowned with the laurels of victory who has not stood this test....In the battle of this day, as in all other battles, the effort of the enemy is to surprise and suddenly attack and overwhelm the Lord's people; and the only preparation, therefore, that can be made for such emergencies is constant vigilance and prayer and the putting on of the whole armor of God--the Truth and the spirit of the Truth.

12월 20일

1디모데 후 2:15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연구” 라는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하느님의 승인과 택하심을 받는 좁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승인받았음을 나타내도록 연구하십시오--성서 원칙을 연구하십시오; 그 성서원칙과 일치하도록 당신의 행로를 연구하십시오. 시온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증진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당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죄의 화살과 악과 세상의 영의 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을 연구하십시오. 충실한 십자가의 병사의 의무--겉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 가장 용감하고 가장 고상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하십시오.

DECEMBER 20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2 Timothy 2:15

THERE is much significance in that word "study;" and only the studious find the narrow way to the divine approval and acceptance.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study the doctrine; study your course of conduct, to keep it in harmony with the doctrine. Study how to promote the peace and prosperity of Zion, and how to shield yourself and others from the missiles of error and from the poison of an evil, worldly spirit. Study to perform the duties of a faithful soldier of the cross--the seemingly insignificant, as well as the bravest and noblest deeds.

12월 21일

계시 5:2 “누가 합당하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느님께서 그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은총 받으신 우리 주 예수,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펼쳐진 하느님의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를 볼 수 있기에 합당하다고 간주 해 오신 것을 인식하면서, 모든 것들에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느님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읽기에 합당함을 증명하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축복받은 봉사의 일부를 담당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되는 큰 특권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이 가장 희소한 가치의, 실제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임을 증명하고, 진리의 빛을 중심으로 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아하게 전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도록 허락하신 혹독한 압력을 충실하게 인내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은 것들에 충실하면, 적당한 때가 오면 우리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기에 합당한 것으로 간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DECEMBER 21

Who is worthy? Revelation 5:2

LET us, dearly beloved, as we realize that thus far God has counted us worthy to look upon the scroll of His plan which has been unsealed for us by our blessed Lord Jesu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prove our worthiness to continue to look therein and to read the wondrous things of His law, by faithful obedience and loyalty to it in all things.

Let us not undervalue our great privilege in being counted worthy to have some part in the blessed ministry of reflecting the light of divine Truth; let us prove ourselves jewels of rarest value, diamonds indeed, heartily receiving and beautifully transmitting to others the light of Truth, and faithfully enduring the severest pressure that God may permit to come upon us; for, if faithful in these small things we shall in due time be counted worthy also to reign with Christ in power and great glory.

12월 22일

디모테 후 2: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느님으로부터 영예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승인하신 방법—겸손한 방법—대로 그것을 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주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쓰심에 맞는, 그리고 영예로운, 그릇이 되고자 한다면 하느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 당신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적당한 때에 그분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손이 찾은 일이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하시고, 시종여일하게 당신의 질그릇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만드십시오.

DECEMBER 22

If a man therefore purge himself, he shall be a vessel unto honor, sanctified, and meet for the Master's use, and prepared unto every good work. 2 Timothy 2:21

IF any man desire honor from God, let him not fail to seek it in God's appointed way--along the pathway of humility; for the Lord giveth His favors to the humble. If you would be a vessel fit for the Master's use and a vessel of honor, humble yourself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and He will exalt you in due time. Do not be in a hurry about it either; but whatsoever thy hand findeth to do, do it with thy might, beginning and ever continuing to cleanse your earthen vessel, that it may be fit for the Master's use.

12월 23일

잠언 15:23, 25:11 “때에 알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들을만한 귀를 가지고 있고 주로 향하는 길을 묻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한마디의 말이 백 또는 천 마디의 말보다도 더욱 가치 있고 힘 있는 중요한 때와, 인생에 있어서 큰 위기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의 봉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즐거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때와 남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때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때라도 남들에게 적합한 때와 기회라면 기꺼이 언제라도 그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적합한 기회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복음일지라도 그들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DECEMBER 23

A word in season, how good it is! A word fitly spoken is like apples of gold in pictures of silver. Proverbs 15:23; Proverbs 25:11

WE are to remember, when talking with those who have an ear to hear and are inquiring the way to the Lord, that there are great crises in the lives of men, momentous occasions, in which one word may be more valuable, more potent, than would be a hundred words or a thousand words at another time,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we are to be instant in the Lord's service, whether seasonable or unseasonable to ourselves, --gladly ready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We are to distinguish, however, between out-of-season to ourselves and out-of-season to others; and to be willing to serve others at any time, however out-of-season to ourselves, if it be in season and opportune for them. We are not to intrude even the Gospel itself at inopportune times, however convenient the occasion may be to ourselves.

12월 24일

마태 1:21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우리의 구원자의 탄생과 복음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하느님의 섭리로써 준비하신 세세한 사건들에 대한 기록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과거에 사소한 일들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아직 미래에 있을 그분의 계획을 위한 섭리--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대단히 크고 소중한 모든 약속들의 성취--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계획의 더 큰 일들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은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들의 개인적이고 더욱 사적인 일들에 관한 주의 섭리에 대한 믿음도 자극합니다.

DECEMBER 24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Matthew 1:21

THE noting of those little incidentals by which divine providence prepared for our Savior's birth and for the sending forth of the Gospel message, are strengthening to the faith of the Lord's people. Realizing God's care in the past over even the little things, gives a foundation for confidence in His wisdom and provision for the features of his plan which are yet future--the fulfilment of all the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which centered in Him who was born in Bethlehem. And so also a realization of the divine providence in the larger affairs of the divine plan stimulates faith also in the Lord's providences as respects the personal and more private affairs of His people.

12월 25일

누가 2:10, 11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비록 이 날(12월 25일)이 우리의 사랑하는 대속자의 탄생을 기리는 정확한 날짜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오히려 10월 1일 무렵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탄생일을 경축하기를 바란다고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중요한 그 일이 어느 날에 경축되어야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널리 경축되고 있는 이 날(12월 25일)에 우리는 하느님과 구주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태도를 보이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적합할 것입니다. 년중의 이러한 때에 서로 서로 작은 기념품을 주는 관습은 특히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의 수여자 이십니다. 그분은 계속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계속 받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선물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자로서 선물한 것입니다.

DECEMBER 25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tidings of great joy, which shall be to all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ich is Christ the Lord. Luke 2:10,11

ALTHOUGH we cannot agree that this is the proper day for celebrating the birth of our dear Redeemer, but must insist that it was about October first-- (Volume 2, p.54) nevertheless, since He did not intimate His desire that we should celebrate His birthday, it is quite immaterial upon what day that event, of so great importance to all, is celebrated. Upon this day, so generally celebrated, we may properly enough join with all whose hearts are in the attitude of love and appreciation toward God and toward the Savior. The habit of giving little remembrances one to another at this time of year seems to us specially appropriate. God is the giver of every good and perfect gift. He is continually giving and we are continually receiving from Him; but amongst all His gifts the one of greatest importance to us is the gift of His Son to be our Redeemer.

12월 26일

여호수아 1:7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여러 종류의 용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자기중심주의와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 다른 종류는 상황의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부주의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새겨 주시는 용기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갖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험과 방법의 어려움을 분별하고 동시에 겸손하게 그 상황에서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께 대한 믿음--그들로 하여금 주와 주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게 하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으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DECEMBER 26

Be thou strong and very courageous. Joshua 1:7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courage; one sort is begotten of egotism and self-reliance; another kind is begotten of a recklessness which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difficulties of the situation; but the courage which the Lord inculcates, and which all the spiritual Israelites are to seek to possess, is the one which, while coolly and calmly discerning the trials and difficulties of the way and while humbly realizing its insufficiency for the occasion, is supported by a faith in the Lord-- a trust in the divine promises which enables them to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12월 27일

요한1서 5: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믿음을 둘 것이 아니라, 주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을 믿거나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신 역사를 보면, 상징적이든 실제적이든, 그분께서는 인간 대리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그분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백성을 은혜에서 은혜로,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주께서는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관리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대리인들을 통하여 그분의 인도를 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나 그들의 지혜와 힘에 두지 말고, 그들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지혜와 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ECEMBER 27

Little children, keep yourselves from idols. 1 John 5:21

WE are not to put our trust in leaders, but in the Lord. This does not signify that we are not to trust leaders, and not to acknowledge leaders, for all the history of the Lord's dealings with His people, the typical as well as the antitypical, shows us that He is pleased to use human agencies as His representatives in the teaching and leading of His people from grace to grace, from knowledge to knowledge. The lesson to be learned is that the Lord is thoroughly competent to manage His own work, and that while we may look for His leading through human agencies our trust is not in them, their wisdom, their strength, but in the Lord's wisdom and strength, guiding them and us through them.

12월 28일

시 110:7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께 더욱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열정으로 충실하고 즐겁게 생명을 맛보는 시냇물을 마시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음으로써 점점 그분의 봉사를 위해 적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분의 봉사를 위해 우리를 더욱 알맞게 준비시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해 생활에서의 모든 시험이 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것인 우리의 영광과 육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물을 마실 때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처럼 계속하여 머리를 드는 작은 새들로부터 배우도록 합시다. 생명의 맛을 보는 모든 경우마다 우리 주께 계속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과 모든 시험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진보를 이루도록 합시다.

DECEMBER 28

He shall drink of the brook in the way: therefore shall He lift up the head. Psalm 110:7

WE want to ask the Lord, our Master and Head, that He will bless us more and more, as with fresh zeal we shall endeavor faithfully and rejoicingly to drink of the brook of life's experiences, and gain wisdom therefrom that will fit and prepare us for His service by and by; and which will the better fit and prepare us for His service also in the present time, and enable us by His grace to show forth His praises in all the trying circumstances and vicissitudes of life so as to glorify Him in our bodies and spirits which are His. Let us, as we drink of the brook, take a lesson from the little birds, which, when drinking, repeatedly lift the head as though giving thanks to God. Let us continually give thanks to our Lord for every taste of life's experience, for every lesson, for every trial--appropriating them all to our spiritual development.

12월 29일

전도서 11: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진리의 종이 되고자 원하는 정도에 따라, 계속하여 봉사의 기회를 찾기 위해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주의 인도와 주께 사용되어짐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주와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증거를 보이더라도 구원의 손길을 확장하는 것에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하는 것에 주의를 다해야하며, 이것이 자신들을 왕 중의 왕이신 분의 봉사에 성별한 사람들의 주 사업임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DECEMBER 29

In the morning sow thy seed, and in the evening withhold not thy hand: for thou knowest not whether shall prosper, either this or that, or whether they both shall be alike good. Ecclesiastes 11:6

ALL of the Lord's people, in proportion as they desire to be the servants of the Truth, should be continually on the alert to note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should expect to

be guided and used of the Lord. Wherever we see evidences of devotion to the Lord and His Word, we should be on the alert to extend a helping hand....We are to be on the alert to pass along the blessing which we have received, and to esteem that this is the chief business of life with those who have consecra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he King of kings.

12월 30일

시 65:11 “주의 은택으로 년사에 관 씌우시니”

우리가 지나간 한 해 동안의 주의 섭리가 인도하신 것을 돌이켜 보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다가오는 새해와 관련하여 그분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강화하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올바른 자녀로서 올바르게 회상하여 보면, 과거에 대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들고 위를 보면서, 우리의 구출이 처음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가까워 졌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돌보심에 계속하여 맡긴다면, 우리에게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완성하실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DECEMBER 30

Thou crownest the year with Thy goodness. Psalm 65:11

AS we review the leadings of divine providence during the year that is past, let God's goodness and mercy stimulate our faith and confidence in Him as respects the New incoming Year. A proper retrospect on the part of a proper child of God will enable him not only to render thanks for the past, but to look up and lift up his head, realizing that our deliverance is nearer than when we first believed; and that He that began a good work in us is both able and willing to complete it, if we will but continue to submit our wills, our lives, our all, to His wisdom and loving care.

12월 31일

시 116:12-14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다가오는 새해를 위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주와의 친교를 위해 우리가 되고자 하고, 하고자 하며, 고통 받고자 하는 것들과 관련하여 선한 결심을 많이 하도록 합시다; 그럼으로써 주의 은혜에 따라 새해가 우리 생애에서 최상의 해--가장 큰 희망의 해, 가장 큰 노력의 해, 주의 은혜에 따라 자기_희생에서 가장 큰 성공의 해, 세상과 그의 영을 극복하는 해, 육체의 욕망을 물리치는 해, 대적을 저항하는 해,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는 해--가 되게 합시다.

DECEMBER 31

What shall I render unto the Lord for all His benefits toward me? I will take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I will pay my vows unto the Lord, now, in the presence of all His people. Psalm 116:12-14

THE close of the year is an excellent time for the making of new resolutions for the year to come. Let us, beloved brethren, make plenty of good resolves respecting what we shall be willing to be, to do, to suffer, in fellowship with our Lord; that we may by His grace make of it the best year thus far of our lives--the year of largest hopes, of largest endeavors, and by the Lord's grace of largest successes in self-sacrifice, in overcoming the world and its spirit, in vanquishing self and the desires of the flesh, in resisting the adversary, and in glorifying our Lord and blessing His people.